

공 개



의안번호	제 8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1. 3. 8. (제 4 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4호 '보험계약, 제1116호 '리스 개정결과 보고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1. 3. 8.

1. 보고주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4호 '보험계약', 제1116호 '리스' 개정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제안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4호 '보험계약', 제1116호 '리스'를 개정(20.12.18. 의결)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정배경

- 이자율 지표(기준금리)가 대체되는 과정에서, '新지표 이자율(新기준금리)'이 무엇이 될지, 언제 대체될지 결정전에 생기는 회계처리 이슈 해결 필요
- '新지표 이자율'이 결정되기 전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미래현금흐름 시기·금액에 불확실성 존재



□ **(1단계^{‘20.2월 既公표})** ‘이자율지표 개혁 - 1단계’를 공표하여, 기존 ‘이자율 지표’가 ‘新지표 이자율’로 대체되기 전까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위험회피회계(미래전망분석下) 적용을 중단하거나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 못하는 문제 해결

이자율지표 대체

- 은행간대출금리(IBOR: Interbank Offer Rate)와 같은 기준금리(이자율지표)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수많은 금융상품의 준거금리 역할을 해 왔음
- 그러나 금융안정위원회(FSB)는 LIBOR 조작사건(‘12년)¹⁾과 은행간 무담보 자금조달 시장 축소를 계기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각국의 IBOR(LIBOR, EURIBOR 등) 개혁과 함께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권고(‘13년)
- 한국의 경우, 지표금리 개혁을 위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19.6월)(금융위원회·한국은행 공동 발족)이 ‘대체지표개발 작업반’을 설치(‘19.7월) (→ (보도자료) 한국은행, 국내 무위험지표 금리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20.9.23일)
 - 작업반에서는 최종후보금리(콜금리 및 RP금리 각 1개) 중 무위험 지표금리를 정할 계획이며, 무위험지표 선정을 위한 논의를 ‘21.2월 현재 진행 중

□ **(2단계)** 이자율지표 개혁 완료후, 기존 이자율지표가 新지표 이자율로 대체 되는 시기에 발생할 회계처리를 다루었으며, 다음을 개정^{모두} 신설

① 금융상품 변경 관련 실무적 간편법

② 위험회피회계 관련 개정

- (1) ‘개혁 1단계’ 예외규정(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 관련)의 적용 종료 시기
- (2)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문서 수정
- (3)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현금흐름위험회피)
- (4) 소급적 효과성 평가(제1039호 적용시)
- (5) 항목 집합의 구분
- (6)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 - 별도의 식별가능성

③ 금융상품 관련 공시

④ 리스변경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1) ‘12년, 전세계 영업망을 갖춘 몇몇 은행들의 직원들이 서로 공모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LIBOR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미국과 영국 등의 조사 끝에 바클레이스 은행은 밥 다이아몬드 최고경영자(CEO) 등이 사임하고 조작에 가담한 은행들에 벌금이 부과됐다. (중앙일보, ‘17. 7. 28.)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1) 금융상품 변경 관련 실무적 간편법(⇒ 제1109호, 제1039호, 제1104호)

□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금융상품 변경’에 해당한다면 변경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실무적 간편법 제공(제1109호 문단 B5.4.5)*

* K-IFRS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보험사도 실무적 간편법 적용(제1104호 문단 20R, 20S)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금융상품 변경’ 요건

□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❶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 결과(direct consequence)에 따라 요구되는 변경
- ❷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준이 과거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한(economically equivalent) 변경*

* (예) (1) 기존 이자율지표와 新지표 이자율간의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新지표 이자율(무위험)에 필요한 고정 스프레드 가산, (2) 이자율지표의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재설정 기간, 재설정일, 액면이자 지급일 사이의 일수 변경, (3) (1)과 (2)의 변경을 이행하도록 금융자산·부채 계약조건에 대체조항 추가

- 문단 B5.4.5(변동금리부 금융상품 회계처리 규정)를 준용하여 변경된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을 新지표 이자율로 할인하여, (경제적실질의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B5.4.5 시장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이나 변동금리부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을 주기적으로 재추정하는 경우에는 유효이자율이 변동된다. 최초 인식시점에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이나 변동금리부 금융부채가 만기에 수취할 원금이나 지급할 원금과 같은 금액으로 인식된다면, 일반적으로 미래 이자지급액의 재추정은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실무적 간편법이 없다면, 변경된 현금흐름(新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기존 이자율지표(예: LIBOR)로 할인하여 계산한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해야 함
- 그러나 기존 이자율지표의 사용이 중단되었는데 기존 이자율지표로 할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2) 위험회피회계 관련 개정(⇒ 제1109호, 제1039호)

1) '개혁 1단계' 예외규정(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 관련)의 적용 종료 시기

- ☐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예외규정('20.2월 既公표) 적용을 다음 중 빠른 때 중단

* 현재 체결된 계약이 아닌 항목(예: 미래 변동금리채권 매입(예상거래))에 포함된 이자율 위험요소는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요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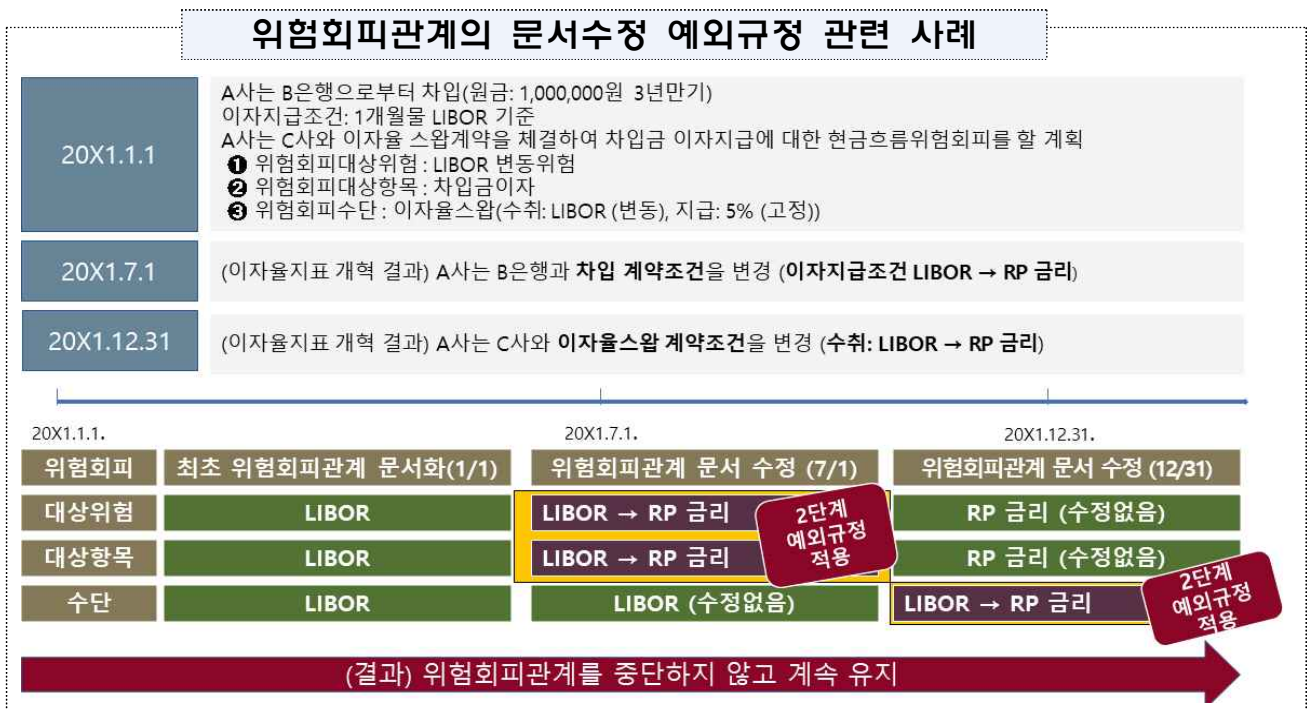
- ① 위험 구성요소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변경되어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을 때, 또는 ② 지정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될 때

2)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문서 수정

- ☐ '1단계'에 따른 예외규정 적용을 중단하면서 과거 문서화된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수정*할 경우 이는 위험회피 중단이 아님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함(① 新지표 이자율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 ②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 수정, ③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기술 수정)

- ☐ 위험회피관계 문서 수정은 불확실성의 해소 시점이 달라 서로 다른 시점에 문서 수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단일 위험회피회계에서도 여러 번의 문서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3)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현금흐름위험회피)

- **(지속되는 위험회피관계)**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위험회피관계 문서를 수정하는 시점에 **新지표 이자율**(‘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
 - 이 누계액은 **新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이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예: 예상거래가 실제 발생한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 **(중단된 위험회피관계)** 과거에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그러한 미래현금흐름의 기초가 될 **新지표 이자율**(‘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
 - 이 누계액은 **新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이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예: 예상거래가 실제 발생한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4) 소급적 효과성 평가 (제1039호 적용시) (선택사항)

- 위험회피 효과성을 소급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과거에 ‘1단계’ 예외규정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였다면 계속 위험회피 회계 적용 가능(→ 선택사항)
 - ‘1단계’ 개정에서, 소급적 평가를 하는 기업은 비록 위험회피결과가 80~125% 범위 밖이더라도 비효과적인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서 위험회피 회계를 중단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 이러한 기업이 ‘1단계’ 예외규정 적용을 중단하는 시점(문서를 수정하는 시점)에 위험회피 효과성을 다시 소급적으로 평가한다면 효과성 평가결과가 80~125% 범위를 벗어나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할 수 있도록, ‘1단계’의 예외규정 적용을 중단하는 시점(문서 수정 시점)에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누계액을 영(0)으로 재설정

5) 항목 집합의 구분

-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을 위험회피되는 지표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부 집합으로 구분하고, 그 지표 이자율을 각 하부 집합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
 - 구분된 하부 집합에 따라 新지표 이자율로 변경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위험회피관계의 문서 수정 요구사항(제1109호 문단 6.9.1)을 '하부 집합별'로 적용하여, 계속적으로 위험회피회계 적용可

6)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 - 별도의 식별가능성

* 현재 체결된 계약이 아닌 항목(예: 미래 변동금리채권 매입(예상거래))에 포함된 이자율 위험요소는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요소임

-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의 식별 가능성 판단시, 新지표 이자율을 24개월 이내에 별도로 식별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식별 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현행 기준에 따르면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❶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❷ 별도로 식별가능 해야 함

- 간주 규정 적용 이후, 24개월 이내에 별도로 식별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전진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

(3) 금융상품 관련 공시(⇒ 제1107호)

- 이자율지표 개혁이 기업의 금융상품 및 위험관리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을 공시
 - 이자율지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그 위험의 특성, 범위, 기업의 위험관리 방법
 -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 진척도, 기업의 전환 관리 방법
 - 기업의 전환 관리 방법, 전환 진척도,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금융상품에 노출된 위험

- 보고기간 말 현재 新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한 양적 정보를 유의적인 이자율 지표별로 세분화

* ❶ 비파생금융자산, ❷ 비파생금융부채, ❸ 파생상품

- 新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으로 인해 금융상품에 노출된 위험 관련, 기업의 위험관리전략이 변동되었다면 그 변동에 대한 설명

(4) 리스변경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제1116호)

□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한시적 예외규정에 따라 리스이용자의 리스 변경 회계처리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을 마련

○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리스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된 경우

- 아래의 특정 요건을 충족한 리스변경에 대해, 新지표 이자율(‘대체 지표 이자율’)을 고려하여 미래 리스료를 할인하고 리스부채를 측정하도록 함 (실무적 간편법)으로써 작성자 부담을 경감*

* (예) 리스변경일 현재 증분차입이자율을 따로 산정하지 않아도 됨

‘실무적 간편법’ 적용 요건

□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❶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러한 리스변경 필요
- ❷ 리스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은 이전 기준(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

○ 위와 같은 실무적 간편법이 없을 경우, 리스료 산정기준이 바뀌면 현행 K-IFRS 제1116호에 따라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해야 함

- 즉,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이라면, 수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문단 45(3))해야 하므로 작성자 부담 증가

* 수정된 내재이자율 또는 증분차입이자율

K-IFRS 제1116호 '리스'

- 42 리스이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중략)
 (2)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시장 대여료를 검토한 후 시장 대여요율 변동을 반영하는 변동을 포함한다. 리스이용자는 현금흐름에 변동이 있을 경우(리스료 조정액이 유효할 때)에만 수정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리스이용자는 변경된 계약상 지급액에 기초하여 남은 리스기간의 수정 리스료를 산정한다.
- 43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것이 아니라면 문단 42를 적용할 때 리스이용자는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을 사용한다. 리스료의 변동이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생긴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 45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리스변경 유효일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중략)
 (3) 수정 할인율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남은 리스기간의 내재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하나,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한다.

다. 시행일

☐ '21.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 적용가능)

- **시행일 현재 인식된 항목에 소급 적용(특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단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시켜 적용)**

중단한 위험회피관계 회복 요건

☐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❶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변동만으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였고, 이 개정 내용이 그 시점에 적용되었다면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할 필요가 없었음
- ❷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 기초에, 개정 내용을 고려한다면 중단한 위험회피관계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함

☐ **과거 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음**(사후판단(hindsight)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재작성 가능)

-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 전기말 장부금액과 당기초(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初) 장부금액의 차이를 당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으로 인식

라.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 ☐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변경사항을 회계처리할 때,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실무적 간편법이나 예외 규정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국내 회계처리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참고] 한국의 지표금리 개선 현황

- ☐ '21.2월 현재, 최종후보금리((은행·증권금융차입)콜금리 및 (국채·통안증권)RP*금리 각 1개) 2개 중 무위험지표금리 선정하기 위한 논의 진행 中

* 환매조건부 채권

- 한국 지표금리 개혁을 위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19.6월)(금융위원회·한국은행이 공동 발족)은 새로운 금융지표 개발을 위해 '대체지표개발 작업반*(이하 개발반)'을 설치(19.7월)**

* 국내 지표금리의 신뢰성 제고 및 국제금융거래에서의 정합성 확보 등을 위해 무위험 지표금리 마련을 추진

** (보도자료) 한국은행, 국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20.9.23일

- 개발반은 10개의 무위험지표 후보금리 중에서 최종후보금리((은행·증권금융차입)콜금리 및 (국채·통안증권)RP금리 각 1개) 2개를 선정

무위험지표금리 후보 선정결과

콜 예비후보금리 (4개)	RP 예비후보금리 (6개)
은행간 콜	전체 국채·통안 RP
은행차입(증권금융 포함) 콜	전체 국채·통안·지방·특수 ^{(Level1)¹⁾} ·특수은행채 ^{(Level1)¹⁾} RP
은행증권금융·고신용(AA-이상) 증권사차입 콜	전체 국채·통안·지방·특수(전체)·은행채 ²⁾ RP
	저신용차주 ³⁾ 제외 국채·통안·지방·특수(전체)·은행채 ²⁾ RP
전체 콜	전체 RP
	저신용차주 ³⁾ 제외 RP

주: 1)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보유비율) 산정 시 Level 1 고유동성자산(위험가중치 0%)로 인정되는 특수채 및 특수은행채

2) 은행(특수은행 포함) 발행채권

3) A-미만 또는 무등급 증권사, 단 추후 고레버리지 펀드 등 저신용 자산 운용사를 식별할 수 있게 될 경우 제외 여부를 추가 논의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개정경과

- ☐ 2020. 10. 30. 개정 공개초안 의결(회계기준위원회)
- ☐ 2020. 11. 2. ~ 2020. 11. 30.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금융감독원 등)
- ☐ 2020. 12. 18.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나.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보고(2021.2.24.)

다. 관련법규(붙임1)

<별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제1104호, 제1116호 개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 12. 18.

저작권

국제회계기준(IFRSs) 및 부속 출판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발표한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1 IFRS Foundation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IFRS Foundation) 및 이 출판물의 저작자와 출판자는, 이 출판물에 의거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은 자의 부주의 등 여하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제회계기준(IAS) 및 해석서(Interpretations)를 포함하는 국제회계기준(IFRSs)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s)의 정본은 IASB가 발표한 영문판입니다. 사본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출판 및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이, 이 출판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번역, 재인쇄, 재출간 또는 전자, 기계 또는 기타의 방법(복사와 리코딩을 포함한 정보저장과 검색의 방법으로서 알려진 것과 이후 개발될 것을 포함)에 의한 형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재단의 동의 하에 국제회계기준과 이 출판물에 포함된 관련 문서들의 한국어 번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게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은 국제회계기준재단이나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04513, 전화: +82 (0)2 6050-0150, 팩스: +82 (0)2 6050-0170, 이메일: webmaster@kasb.or.kr, 홈페이지: www.kasb.or.kr

국제회계기준재단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의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어로 구성된 일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또는 채택한 번호가 매겨진 모든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재무보고기준의 본문,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나 상설해석위원회(SIC)가 발표한 해석서의 본문(이하 '기준서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서 본문을 한국어로 재출간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은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모든 권리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어로 구성된 기준서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COPYRIGHT NOTIC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together with their accompanying documents are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1 IFRS Foundation

The IASB, the IFRS Foundation, the authors and the publishers do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who acts or refrains from acting in reliance on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whether such loss is caused by negligence or otherwise.

IFRSs (which includ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are copyrigh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Foundation. The authoritative text of IFRSs is that issued by the IASB in the English language. Copies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Please address publication and copyright matters to: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translated, reprinted or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form either in whole or in part or by an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now known or hereafter invented, including photocopying and recording, or in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related material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has been approved and is publish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 Korea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is the copyright of the IFRS Foundation. Copies of the Korean transla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or the KASB, KCCI Building 4th Fl., 39 Sejong-daero, Jung-gu, Seoul, 04513, Korea.

Tel: +82 (0)2 6050 0150
Fax: +82 (0)2 6050 0170
Email: webmaster@kasb.or.kr
Web: www.kasb.or.kr

The IFRS Foundation has waived the right to assert its copyright in certain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such materials consist of all numbered, bar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in the form that they are issued or adopted by the IASB, or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S IC) o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sovereign consent and in connection with any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oduction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FRS Foundation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FRS Foundation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목 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1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2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2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3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3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3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개정	3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37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38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40
IFRS 9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41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Financial Instrument: Recognition and Measurement)’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79
IFRS 7 ‘금융상품: 공시(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109
IFRS 4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s)’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114
IFRS 16 ‘리스(Leases)’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116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문단 5.4.5~5.4.9, 문단 6.8.13, 6.9.1~6.9.13, 문단 7.1.10과 7.2.43~7.2.46을 추가하였다. 문단 6.9.1 앞에 제목을 추가하였고 문단 5.4.5, 6.9.7, 6.9.9, 6.9.11과 7.2.43 앞에 소제목에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이 문단들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제5.4절 상각후원가 측정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

- 5.4.5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만 문단 5.4.6~5.4.9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문단 6.8.2에서 기술한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을 말한다.
- 5.4.6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
- (1)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특정된 계약조건의 변경(예: 참조하는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도록 계약조건을 변경)
 - (2)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의 계약 조건에 의해 고려되지 않았거나 예상되지 않은 방식으로 변경(예: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이자율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을 변경)
 - (3) 기존 계약조건의 활성화(예: 기존 대체조항(fallback clause)의 유발)
- 5.4.7 실무적 간편법으로,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문단 B5.4.5를 적용한다. 실무적 간편법은 이러한 변경에만 적용하고,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의 범위까지만 적용한

다(문단 5.4.9 참조). 이 경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기준의 변경으로 본다.

- (1)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 변경이 필요하다.
- (2)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은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하다.

5.4.8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변경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기존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간의 기준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고정 스프레드를 추가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할 때 사용한 기존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거나 이자율지표를 계산할 때 사용한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이자율지표의 개혁을 이행한다.
- (2) 이자율지표의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재설정 기간, 재설정일 또는 액면이자 지급일 사이의 일수를 변경한다.
- (3) 위 (1)과 (2)에서 기술된 변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에 대체조항을 추가한다.

5.4.9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에 추가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먼저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다. 그 다음 실무적 간편법이 적용되지 않는 추가 변경에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추가 변경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추가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문단 5.4.3이나 문단 B5.4.6을 적용한다. 추가 변경으로 인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제거되는 경우에는 제거 규정을 적용한다.

제6.8절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적용에 대한 한시적 예외규정

적용 종료

6.8.13 다음 중 이른 시점에 문단 6.8.7과 6.8.8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 (1) 문단 6.9.1을 적용하여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가 이자율지표 개혁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때
- (2)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가 지정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제6.9절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추가된 한시적 예외규정

6.9.1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문단 6.8.4~6.8.8의 요구사항 적용을 중단하는 대로(문단 6.8.9~6.8.13 참조),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즉, 이 변경은 문단 5.4.6~5.4.8의 요구사항과 일관됨)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에 문서화된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험회피지정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다.

- (1) 대체 지표 이자율(계약상 특정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
- (2)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 포함)을 수정
- (3)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기술을 수정

6.9.2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문단 6.9.1(3)의 요구사항도 적용한다.

- (1)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문단 5.4.6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이 아닌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되는 변경을 한다.
- (2) 최초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되지 않는다.
- (3) 선택된 접근법은 최초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등하다(문단 5.4.7과 5.4.8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

6.9.3 문단 6.8.4~6.8.8의 요구사항은 서로 다른 시점에 적용이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문단 6.9.1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시점에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해야 하거나 여러 번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위험회피지정에 그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문단 6.9.7~6.9.12를 적용한다. 또한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문단 6.5.8(공정가치 위험회피의 경우) 또는 문단 6.5.11(현금흐름 위험회피의 경우)도 적용한다.

6.9.4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변경이 이루어진 보고기간말까지 문단 6.9.1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한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거나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6.9.5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대한 변경(문단 5.4.6~5.4.8에서 기술한 바와 같음) 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대한 변경(문단 6.9.1에서 요구된 바와 같음)에 추가하여 이루어진 변경이 있는 경우, 이러한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 기준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먼저 적용한다.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문단 6.9.1에 명시된 것과 같이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한다.

6.9.6 문단 6.9.7~6.9.13에서는 이들 문단에서만 명시된 요구사항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위험회피관계에 이 기준서의 다른 모든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문단 6.4.1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적용조건을 포함)을 적용한다.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

현금흐름위험회피

6.9.7 문단 6.5.11을 적용하기 위해, 문단 6.9.1(2)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을 수정할 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된다.

6.9.8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기초했던 이자율지표가 변경될 때,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문단 6.5.12를 적용하는 목적으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의 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의 기초가 될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된다.

항목 집합

6.9.9 공정가치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에 문단 6.9.1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위험회피되는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하부 집합에 배분하고, 그 지표 이자율을 각 하부 집합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지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자율지표의 변동에 대해 항목 집합이 위험회피되는 위험회피관계에서, 집합 항목 중 일부의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는, 그 집합 내의 다른 항목이 변동하기 전에 대체 지표 이자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 사례에 문단 6.9.1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 중 관련되는 그 하부집합에 대한 회피대상위험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가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변경되거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만료되어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대체될 때까지, 기존 이자율지표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다른 하부 집합에 대한 회피대상위험으로 계속하여 지정할 것이다.

6.9.10 각 하부 집합이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되기 위한 문단 6.6.1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별도로 평가한다. 하부 집합들 중 일부가 문단 6.6.1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

우, 전체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또한, 전체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비효과성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문단 6.5.8과 6.5.11의 요구사항도 적용한다.

위험 구성요소의 지정

- 6.9.11 지정일 현재 별도로 식별할 수 없으나(문단 6.3.7(1)과 B6.3.8 참조)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된 대체 지표 이자율은, 24개월 이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그 날에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4개월의 기간은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별도로(즉, 24개월의 기간은 각각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처음 지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 6.9.12 후속적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처음 지정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그 대체 지표 이자율에 문단 6.9.11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한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를 그 재평가일부터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 6.9.13 문단 6.9.1에 명시된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에 추가하여, 지정일 현재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위험 구성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없을 때,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6.9.11과 6.9.12를 적용한다(문단 6.3.7(1)과 B6.3.8 참조).

제7.1절 시행일

- 7.1.10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제1107호, 제1104호, 제1116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02X년 X월 공포)

에 따라 문단 5.4.5~5.4.9, 문단 6.8.13, 제6.9절, 문단 7.2.43~7.2.46 이 추가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 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제7.2절 경과규정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에 대한 경과규정

- 7.2.43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 한다. 다만 문단 7.2.44~7.2.46에서 정한 규정은 제외한다.
- 7.2.44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예: 문단 6.9.13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음)는 전진적으로만 지정한다(즉, 과거 기간에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관계를 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단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한다.
- (1)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만으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 하였고, 이 개정 내용이 그 시점에 적용되었다면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 (2) 이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시점(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에, (개정 내용을 고려한다면) 중단한 위험 회피관계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
- 7.2.45 문단 7.2.44를 적용하여 중단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는 경우, 문 단 6.9.11과 6.9.12에서 언급하는 대체 지표 이자율이 계약상 특정 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최초 지정된 날을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즉,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24개월 기간은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부터 기산한다).
- 7.2.46 이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종전 장부금액과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기간 시작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최초 적용일이 포함된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 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0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개정(2020. 12. 1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문단 102M은 개정되었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문단 102O~102Z3, 108H~108K가 추가되었다. 문단 102P 앞에 제목이 추가되었고, 문단 102P, 102V, 102Y, 102Z1 앞에 소제목이 추가되었다. 읽기 쉽도록 이 문단들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적용에 대한 한시적 예외규정

적용 종료

- 102M 다음 중 이른 시점에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문단 102G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 (1)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과 위험회피수단의 회피대상위험과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 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 (2) 이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 102O 다음 중 이른 시점에 문단 102H와 문단 102I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 (1) 문단 102P를 적용하여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이 이자율지표 개혁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때
 - (2)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이 지정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추가된 한시적 예외규정

위험회피회계

- 102P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문단 102D~102I의 요구사항 적용을 중단하는 대로(문단 102J~102O 참조),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즉, 이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6~5.4.8의 요

구사항과 일관됨)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에 문서화된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험회피지정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다.

- (1) 대체 지표 이자율(계약상 특정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
- (2)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 포함)을 수정
- (3)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기술을 수정
- (4) 위험회피 효과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을 수정

102Q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문단 102P(3)의 요구사항도 적용한다.

- (1)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6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이 아닌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한다.
- (2) 최초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되지 않는다.
- (3) 선택된 접근법은 최초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등하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7과 5.4.8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

102R 문단 102D~102I의 요구사항은 서로 다른 시점에 적용이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문단 102P를 적용할 때, 기업은 서로 다른 시점에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해야 하거나 여러 번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위험회피지정에 그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문단 102V~102Z2를 적용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문단 89(공정가치 위험회피의 경우) 또는 문단 96(현금흐름 위험회피의 경우)도 적용한다.

102S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변경이 이루어진 보고기간말까지 문단 102P에서 요

구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한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거나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102T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대한 변경(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6~5.4.8에서 기술한 바와 같음) 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대한 변경(문단 102P에서 요구된 바와 같음)에 추가하여 이루어진 변경이 있는 경우, 이러한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 기준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먼저 적용한다.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문단 102P에 명시된 것과 같이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한다.

102U 문단 102V~102Z3에서는 이들 문단에서만 명시된 요구사항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위험회피관계에 이 기준서의 다른 모든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문단 88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적용조건을 포함)을 적용한다.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

소급적 효과성 평가

102V 문단 88(5)를 적용하여 누적기준으로 위험회피관계의 소급적 효과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단 102M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문단 102G 적용을 중단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누적변동을 영(0)으로 재설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각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별도로(즉, 개별 위험회피관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현금흐름위험회피

102W 문단 97을 적용하기 위해, 문단 102P(2)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을 수정할 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된다.

102X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기초했던 이자율지표가 변경될 때,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문단 101(3)을 적용하는 목적으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의 기초가 될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된다.

항목 집합

102Y 공정가치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에 문단 102P를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위험회피되는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하부 집합에 배분하고, 그 지표 이자율을 각 하부 집합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지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자율지표의 변동에 대해 항목 집합이 위험회피되는 위험회피관계에서, 집합 항목 중 일부의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는, 그 집합 내의 다른 항목이 변동하기 전에 대체 지표 이자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 사례에 문단 102P를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 중 관련되는 그 하부집합에 대한 회피대상위험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가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변경되거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만료되어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대체될 때까지, 기존 이자율지표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다른 하부 집합에 대한 회피대상위험으로 계속하여 지정할 것이다.

102Z 각 하부 집합이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되기 위한 문단 78과 83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별도로 평가한다. 하부 집합들 중 일부가 문단 78과 83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또한, 전체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비효과성을 회계 처리하기 위해 문단 89와 96의 요구사항도 적용한다.

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102Z1 지정일 현재 별도로 식별할 수 없으나(문단 81과 AG99F 참조)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된 대체 지표 이자율은, 24개월 이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그 날에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4개월의 기간은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별도로(즉, 24개월의 기간은 각각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처음 지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102Z2 후속적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처음 지정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그 대체 지표 이자율에 문단 102Z1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한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를 그 재평가일부터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102Z3 문단 102P에 명시된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에 추가하여, 지정일 현재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위험 부분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을 때,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102Z1과 102Z2를 적용한다(문단 81과 AG99F 참조).

시행일과 경과규정

- 108H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107호, 제1104호, 제1116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02X년 X월 공포)에 따라 문단 102O~102Z3, 108I~108K가 추가되었고, 문단 102M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 다만 문단 108I~108K에서 정한 규정은 제외한다.
- 108I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예: 문단 102Z3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음)는 전진적으로만 지정한다(즉, 과거 기간에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관계를 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단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한다.
- (1)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만으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였고, 이 개정 내용이 그 시점에 적용되었다면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 (2) 이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시점(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에, (개정 내용을 고려한다면) 중단한 위험회피관계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
- 108J 문단 108I를 적용하여 중단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는 경우, 문단 102Z1과 102Z2에서 언급하는 대체 지표 이자율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최초 지정된 날을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즉,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24개월 기간은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부터 기산한다).
- 108K 이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종전 장부금액과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기간 시작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최초 적용일이 포함된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개정 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0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개정(2020. 12. 18.)은 회계 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문단 24I~24J와 44GG~44HH를 추가하였고, 문단 24I 앞에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들 문단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그 밖의 공시

이자율지표 개혁에 관한 추가 공시

24I 이자율지표 개혁이 기업의 금융상품과 위험관리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 (1) 이자율지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에 기업이 노출된 경우 그 위험의 특성과 범위, 그리고 기업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 (2)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 진척도, 그리고 이러한 전환을 관리하는 방법

24J 문단 24I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 (1)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을 관리하는 방법과 보고일 현재 그 진척도, 그리고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금융상품에 노출된 위험
- (2) 이자율지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유의적인 이자율지표별로 세분화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한 양적 정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한다.
 - (가) 비파생금융자산
 - (나) 비파생금융부채
 - (다) 파생상품
- (3) 문단 24J(1)에서 식별된 위험으로 기업의 위험관리전략(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22A 참조)이 변동되었다면, 이러한 변동에 대한 설명

시행일과 경과규정

- 44GG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4호, 제1116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02X년 X월 공포)에 따라 문단 24I~24J와 문단 44HH가 추가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4호, 제1116호의 개정 내용을 적용할 때 이 기준서의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 44HH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를 기업이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6)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 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0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2020. 12. 1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개정

문단 20R~20S와 문단 50~51을 추가하였다. 문단 20R 앞의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편하도록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인식과 측정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

- 20R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보험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6~5.4.9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102B에 기술된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을 말한다.
- 20S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5.4.6~5.4.9를 적용할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4.5의 언급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AG7의 언급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3과 B5.4.6의 언급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AG8의 언급으로 본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 50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제1116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02X년 X월 공포)에 따라 문단 20R~20S와 문단 51이 추가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 개정내용은 문단 51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51 이 개정 내용의 적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종전 장부금액과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기간 시작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이 포함된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0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의 개정(2020. 12. 1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문단 104~106, C1B와 C20C~C20D를 추가하였다. 문단 104 앞에 제목을 추가하였고 문단 C20C 앞에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이 문단들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한시적 예외규정

- 104 리스이용자는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미래 리스료의 산정 기준을 바꾸는 모든 리스변경에 문단 105~106을 적용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6과 5.4.8 참조). 해당 문단은 그러한 리스변경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8.2에 기술된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을 말한다.
- 105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문단 42를 적용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을 회계처리한다. 실무적 간편법은 이러한 리스변경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리스변경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것으로 본다.
- (1)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러한 리스변경이 필요하다.
 - (2) 리스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은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하다.
- 106 그러나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에 추가하여 리스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리스이용자는 동시에 이루어진 모든 리스변경(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하는 것을 포함)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적용가능한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시행일

C1B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제1104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02X년 X월 공포)에 따라 문단 104~106과 문단 C20C~C20D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경과 규정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C20C 이 개정 내용은 문단 C20D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C20D 이 개정 내용의 적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종전 장부금액과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기간 시작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이 포함된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개정 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0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개정(2020. 12. 1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IFRS 9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S 9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문단 BC5.287~BC5.320, BC6.604~BC6.660, BC7.86~BC7.99를 추가하였다.
문단 BC5.287, BC6.604 및 BC7.86 앞에 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측정(5장)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개정(2020년 8월)

배경

BC5.287 2014년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은행간 대출 금리(IBORs: Interbank offered rates)와 같은 주요 이자율지표의 개혁을 권고하였다. 그 이후, 많은 국가의 공적 기관에서는 이자율지표 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이자율지표를 대신 하여 많은 거래 데이터에 기반하고 위험이 거의 없는 대체 이자율(대체 지표 이자율)로 상당 부분 대체하는 등 이자율지표 개혁을 위하여 시기적절한 진전을 시장참여자에게 장려하였다. 이자율지표 개혁이 진전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2021년 말까지 일부 주요 이자율지표가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IFRS 9 문단 6.8.2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개혁’)을 말한다.

BC5.288 2019년 9월 IASB는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자율지표의 개혁 이전 기간의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루기 위해 IFRS 9, IAS 39와 IFRS 7을 개정하였다(1단계 개정). 1단계 개정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한시적

예외규정을 제공한다. 문단 BC6.546~BC6.603에서 1단계 개정의 배경을 논의한다.

- BC5.289 1단계 개정을 공표한 후, IASB는 2단계 심의를 시작하였다. IASB는 개혁에 관한 2단계 과제에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이슈(‘대체 이슈’)에서 발생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이나 위험회피관계의 변경을 포함하여 이자율지표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를 다루었다.
- BC5.290 2단계의 목적은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됨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이나 위험회피관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IFRS를 적용하는 재무제표 작성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IASB는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것의 영향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해야 하며 그 전환이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목적은 IASB가 IFRS를 개정해야 하는지 또는 IFRS의 요구사항이 이미 그러한 영향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BC5.291 2020년 4월 IASB는 대체 이슈를 다루기 위해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2020년 공개초안)’를 발표하였다.
- BC5.292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의 대부분은 대체 이슈를 다루기로 한 IASB의 결정을 환영하였고, 이 개정이 2단계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 개정이 긴급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이자율지표를 개혁하거나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데 진전이 있는 일부 국가의 의견제출자들이 그러하였다.

BC5.293 2020년 8월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단계 개정)를 발표하여 IFRS 9, IAS 39, IFRS 7, IFRS 4와 IFRS 16을 개정하였다. 2020년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확정된 2단계 개정에서 IFRS 9에 문단 5.4.5~5.4.9, 6.8.13, 6.9절, 문단 7.1.10, 7.2.43~7.2.46을 추가하였다.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

BC5.294 IASB는 개혁으로 인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변경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수 있다.

- (1) 참조하는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기 위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을 변경한다.
- (2)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이자율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을 변경한다.
- (3) 대체조항(fallback clause)과 같은 기존 계약 조건의 활성화를 유발한다.

BC5.295 IASB는 문단 BC5.290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IFRS 9 문단 5.4.5~5.4.9의 2단계 개정의 적용범위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변경을 유발하는 법적 형식에 관계없이, 개혁의 결과로 인한 모든 변경을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5.294에 설명된 각 상황에서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된다. 따라서 IASB는 2단계 개정의 목적상 이러한 변경을 총칭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이라고 말한다.

무엇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을 구성하는가?

- BC5.296 IASB는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도록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간단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금융상품을 최초 인식한 이후 금융상품 계약조건이 변경 없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예: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이자율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을 변경)된다면 이는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비록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은 변경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자율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 BC5.297 IASB는 IFRS 9의 문단 5.4.3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이나 재협상'을 언급하는 반면, IFRS 9의 문단 3.3.2는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의 변경'을 언급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들 문단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만, 둘 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계약상 현금흐름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언급한다. 두 경우 모두 최초 인식시점에 계약에서 이러한 변경을 특정하거나 고려하지 않았다.
- BC5.298 IASB는 IFRS 9 문단 5.4.6~5.4.9의 개정 내용이 개혁의 결과로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면, 변경의 실질보다는 형식이 적절한 회계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개혁의 결과로 인한 계약상 현금흐름의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변경의 형식에 의해 가려지고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변경을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BC5.299 결과적으로, IASB는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IASB는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개혁의 결과로 인한 계약상 현금흐름의 산정 기준의 변경을 일관되게 회계처리하는 것은 이러한 변경의 경제적 실

질을 반영할 것이며, 따라서 금융자산의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다.

BC5.300 문단 BC5.294(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일부 기업은 대체조항과 같은 기존 계약조건의 활성화를 통해 개혁을 이행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대체조항에서 기존 기준금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이자율지표로 삼을 이자율의 서열체계(hierarchy)를 정할 수 있다. IASB는 이러한 상황(즉, 개혁에서 요구된 기존 계약조건의 활성화로 인한 미래 현금 지급이나 수취에 대한 기업의 추정치에 대한 변경)도 2단계 개정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렇게 하면,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이 단지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계약조건이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이 아닌 기존 계약조건의 활성화로 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계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 결과의 다양성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을 감소시키고 재무제표 작성자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다.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

BC5.301 IFRS 9 문단 5.4.7에서 정한 바와 같이, 2단계 개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IFRS 9 문단 B5.4.5를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한다. IASB는 이 결론을 도출할 때, 실무적 간편법이 없을 경우 이러한 변경에 적용하게 될 IFRS 9의 요구사항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였다.

BC5.302 IFRS 9 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이 없다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변경할 때, IFRS 9를 적용하는 기업은 그 변경으로 금융상품이 제거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제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IFRS 9는 금융자산의 제거와 금융부채의 제거에 대한 별도의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

- BC5.303 IASB는 대체 이자율지표는 위험이 거의 없는 반면 기존의 많은 이자율지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의 이전을 피하기 위해 기존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간의 기준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고정 스프레드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변경만 있는 경우, IASB는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것만으로 해당 금융상품이 제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 BC5.304 IFRS 9 문단 5.4.3은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않는 금융자산의 변경에 적용한다. 이 문단을 적용하면, 변경에 따른 손익은 재협상되거나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재계산하여 산정된다. 이에 따른 변경 손익은 변경일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제거가 되지 아니하는 금융부채의 변경을 포함하여, 그 밖의 계약상 현금흐름 추정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는 제거되지 않는 금융자산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관된다(IFRS 9 문단 B5.4.6 참조²⁾).
- BC5.305 따라서 IFRS 9 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IFRS 9 문단 5.4.3이나 B5.4.6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을 재계산하고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또 금융상품의 남은 기간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인식하기 위하여 최초 유효이자율(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기 이전의 이자율지표)을 사용할 것이다.
- BC5.306 IASB의 견해에 따르면, 개혁의 맥락에서 이러한 결과가 반드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과정에서, IASB는 오로지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기 위해 금융상품이 변경된 상황을 고려하였다. 이 상황에서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변경된 금융상품의 경제적 효과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더 이

2) 문단 B5.4.6은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에 대한 변경에 적용하지 않는다.

상 그 유효이자율을 사용할 수 없다면, 최초 유효이자율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아마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BC5.307 따라서 IASB는 변경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으로 제한되는 경우, 개혁의 결과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IFRS 9 문단 B5.4.5를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게 되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단 BC5.306에서 언급한 이유로 재무제표 작성자에게 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BC5.308 IFRS 9 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면, 개혁에서 요구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을 IFRS 9 문단 B5.4.5를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의 변동'과 유사하게 회계처리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혁에서 요구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그 금융상품에 제거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IFRS 9 문단 5.4.3이나 B5.4.6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즉, 개혁에서 요구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조정되거나 손익을 즉시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IASB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면 개혁이 기업의 금융상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BC5.309 IASB는 실무적 간편법이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되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고려하였다. IASB는 개혁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실무적 간편법의 범위를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IFRS 9 문단 5.4.7을 적용하여,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변경이 필요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이전 기준(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경우에만 그러한 변경을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으로 본다. 이는 2020년 공개 초안에서 제안한 조건과 일관된다.

- BC5.310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요구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만을 고려하였다. 이 조건은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의 변경(즉, 필요한 변동)을 포착하기 위해 고려되었다.
- BC5.311 또한 2020년 공개초안에서 개혁의 목적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으로 제한(즉, 금융상품 당사자들 사이의 가치 이전으로 이어지는 그 밖의 변동은 포함하지 않음)되기 때문에 IASB는 실무적 간편법 적용을 위한 두 번째 조건으로 경제적 동등성을 제안하였다. 즉,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려면 기준이 변경된 날에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이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해야 할 것이다.
- BC5.312 IASB는 경제적 동등성의 개념을 논의하면서 금융상품의 전체 계약상 현금흐름(이자 관련 금액 포함)이 변경 전과 변경 후에 실질적으로 비슷하도록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필요한 변경을 하는 상황을 고려하였다. 예를 들면, 오로지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간의 기준 차이를 보상하는 고정 스프레드를 더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한다면, 이러한 변경은 경제적으로 동등할 것이다.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IFRS 9 문단 B5.4.5(즉, 현금흐름이 재추정될 때 유효이자율을 수정하는 것)를 적용하면 발생하는 변동에 따른 손익이 유의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IFRS 9 문단 5.4.3이나 B5.4.6을 적용하는 것(즉, 변동에 따른 손익의 인식)과 결과적으로 비슷한 회계처리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 BC5.313 문단 BC5.310에 제안된 조건과 관련하여,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요구되지 않더라도, 또는 기존 이자율지표가 중단되지 않더라도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것인지 질문하였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그들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부 기존 이자율지표가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할 것으로 예

상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기존 이자율지표의 유동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세계 시장의 발전과 일관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IASB는 개혁이 IFRS 9 문단 6.8.2의 설명과 일관된다면, 실무적 간편법이 개혁을 실현하는 특정 방법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IASB는 2단계 개정은 개혁 자체가 의무적이지 않더라도 개혁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변경(즉,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필요한 변경)을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5.314 문단 BC5.311에 제안된 조건과 관련하여,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특정 변경이 경제적 동등성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상세한 양적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명시할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예를 들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영향을 받는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나 공정가치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되기 전과 후에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BC5.315 IASB는 '경제적 동등성'이 원칙중심적이기를 의도했기 때문에 그 조건의 평가와 관련된 세부 적용지침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서로 다른 국가의 서로 다른 기업이 개혁을 다르게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 조건을 평가하기 위해 특정 접근법을 요구하지 않았다. IASB는 '명확한 구분선(bright line)'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경제적 동등성 조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판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영향을 받는 금융상품에 대해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IFRS 9 문단 5.4.7(1)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업은 다음을 결정한다.

- (1) 어떤 대체 지표 이자율이 이자율지표를 대체하는지 그리고 대체 직전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기준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고정 스프레드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이자와 관련된 금액(대체 지표 이자율에 고정 스프레드 조정을 가산)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현금흐름 결과를 평가하여 경제적 동등성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즉, 대체 전후의 이자

율이 서로 실질적으로 비슷한지, 특히 대체 후의 이자율(예: 대체 지표 이자율에 고정 스프레드를 가산한 이자율)이 대체 전 이자율지표와 실질적으로 비슷한지를 평가한다.

- (2) 대체 지표 이자율(문단 BC5.315(1)의 필요한 고정 스프레드를 가산)이 영향을 받는 관련 금융상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

BC5.316 IASB는 문단 BC5.315에서 설명한 상황의 경우 이러한 평가가 변경에 따른 경제적 동등성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결정하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FRS 9 문단 5.4.8(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제적 동등성 조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로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예: 해당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가 대체 전후에 서로 실질적으로 비슷한지를 분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BC5.317 IASB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이 국가, 상품 형태 및 계약에 따라 유의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의(따라서, 실무적 간편법에 적합한) 포괄적인 목록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이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창출하는 변경의 예를 IFRS 9 문단 5.4.8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IFRS 9 문단 5.4.8에 명시된 변경만 있는 경우, 이러한 변경이 IFRS 9 문단 5.4.7(2)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결론 내리기 위해 더 이상의 분석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IASB는 이러한 예를 추가하는 것이 개정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예들이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개혁에서 요구되지 않은 변경

BC5.318 IASB는 거래상대방과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협상할 때,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거나 변경 전 조건과 경제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동시에 합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예: 상대방의 신

용도 변동을 반영).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 외에 그 밖의 변경이 있다면, 기업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유효이자율을 갱신함으로써 개혁에서 요구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IFRS 9 문단 5.4.7의 조건에 맞는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IFRS 9 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을 먼저 적용할 것이다. 그 다음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추가 변경(실무적 간편법이 적용되지 않는 변경)으로 인해 금융상품이 제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IFRS 9의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할 것이다. 추가 변경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제거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추가 변경(즉, 개혁에서 요구되지 않은 변경)을 IFRS 9 문단 5.4.3이나 문단 B5.4.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것이다.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일관되게 회계처리하면서, 개혁에서 요구되지 않은 금융상품의 변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았다.

기타 분류 및 측정 문제

BC5.319 기존 금융상품의 잠재적 제거와 새로운 금융상품의 인식 등 개혁의 결과로 금융상품 변경의 잠재적 재무보고 영향을 예상하여, 일부 이해관계자는 IASB에 금융상품과 금융부채에 대한 IFRS 9의 요구사항에 따른 분류와 측정에 대한 추가 사항을 고려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추가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1) 개혁으로 인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제거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IFRS 9가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상품을 제거하고 손익계산서에서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에 적절한 기준을 제공하는지의 결정
- (2)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에 따른 금융자산의 제거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결정
- (3)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의 평가. 특히, 해당 이자율의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가 수정되는지(불완전한 경우)를 포함하여 일부 대체 지표 이자율이 IFRS 9 문단 4.1.3(2)에서 설명한 '이자'와 일관되는지에 대한 평가

- (4) 개혁의 결과로 기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기대신용손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 (5) 개혁의 맥락에서 내재파생상품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의 판단. 특히,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한 후,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해야 하는지를 재평가하는지 여부
- (6) 주계약(상각후원가로 측정)과 내재파생상품(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으로 분리된 복합금융부채에 IFRS 9 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지의 결정. 특히, 이자율지표가 주계약의 계약조건이 아니라 최초 인식시점에 암묵적으로 포함된 경우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지의 결정

BC5.320 IASB는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였고, IFRS 9가 각각의 문제에 필요한 회계처리를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2단계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항에 대해 어떠한 개정도 하지 않았다. IASB는 문단 BC5.319(6)과 관련하여 IFRS 9 문단 5.4.7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IFRS 9 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을 이러한 주계약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위험회피회계(제6장)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개정(2020년 8월)

위험회피관계의 변경

BC6.604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과 관련된 2단계 개정은,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IFRS 9 문단 6.8.4~6.8.8의 요구사항 적용을 중단하는 대로,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한다(IFRS 9 문단 6.8.9~6.8.13 참조). 그러므로 개혁으로 발생하는 회피대상위험과 관련된 불확실성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대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여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도 적용되는 별도의 식별 가능성에 대한 요구사항의 개정(IFRS 9 문단 6.9.13 참조)을 제외하고, 2단계 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의 범위는 1단계 개정이 적용되는 범위와 동일하다.

BC6.605 1단계 개정의 일부로서, IASB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하여 개혁으로 발생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기초 금융상품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을 특정하도록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BC6.606 IASB는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IFRS 9 문단 5.4.6~5.4.9 참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변경되면, 이자율지표가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BC6.607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여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하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의 일부로서, IFRS 9에서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문서화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위험회피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의 식별과 위험회피의 효과성 평가 방법을 포함한다. IFRS 9에서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고 위험회피의 지정과 문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 밖의 모든 상황에서,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문서화된 위험회피의 지정이 변경되면 위험회피회계는 중단된다.

BC6.608 따라서 IASB는 일반적으로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IFRS 9의 문단 6.8.4~6.8.8에 명시된 1단계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한 후에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험회피관계를 어떻

계 회계처리하는지를 충분히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IASB는 2단계의 목적(문단 BC5.290 참조) 및 1단계의 목적(문단 BC6.550 참조)과 일관되게, 단지 개혁의 영향으로 위험 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개혁이 위험회피관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항상 반영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따라서 항상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BC6.609 따라서 IASB는 만약 개혁에 따라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금융 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변경(IFRS 9의 문단 5.4.6~5.4.8 참조)해야 한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을 요구하지 않고 이러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2단계에 대한 IASB의 목적과 일관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변경하기 위해 이미 문서화한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 (1) 대체 지표 이자율(계약상 특정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
- (2)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을 수정
- (3)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기술을 수정

BC6.610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개정안에 동의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개정안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견제출자들은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위험회피지정의 변경은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위험관리전략 또는 위험관리목적의 변경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IASB는 개혁에 따라 요구된 변경이 있을 때 영향을 받은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2019년 9월에 공표된 1단계 개정에 대한 IASB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

BC6.611 그러나,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일반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요구되는 변경의 범위와 시기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BC6.612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요구되는 변경의 범위와 관련하여,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부분은 변경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IASB는 IFRS 9의 문단 5.4.6~5.4.8에 기술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들은 2020년 공개초안으로 제안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요구된 개정사항에 암묵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았다. 기업이 영향을 받은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 하는 시점을 검토하면서, IASB는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운영노력과 위험회피관계의 변경에서 요구되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IASB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변경이 해당 보고기간에 회계처리 되도록 함과 동시에, (특히 기업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수많은 변경을 해야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 IAS 39의 문단 102P에 따라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만 하는 시점을 특정하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BC6.613 의견제출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IASB는 IFRS 9 문단 6.9.1의 제안된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 (1)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을 수정하는 것에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2) IFRS 9의 문단 5.4.6~5.4.8에 기술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들은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련성이 있다.
- (3) 위험회피관계의 변경은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각각의 변경들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요구된다.

BC6.614 IASB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1단계 개정의 적용이 서로 다른 시점에 중단될 수도 있고, 한 위험회피관계의 서로 다른 요소들에 대한 1단계 적용이 서로 다른 시점에 중단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시점에 IFRS 9 문단 6.9.1~6.9.12의 적용 가능한 2단계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할 수 있고, 그 결과 여러 번 특정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2단계 개정은 이러한 문단에서 특정된 요구사항에만 적용한다. IFRS 9 문단 6.4.1의 적용요건을 포함하여 IFRS 9의 다른 모든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개혁에 직접 영향을 받은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한다. 더불어, 1단계 개정에 대한 IASB의 결정(문단 BC6.568 참조)과 일관되게, 2단계 개정 또한 위험회피관계의 측정 요구사항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의 변동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IFRS 9 문단 6.5.8 또는 6.5.11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문단 BC6.623~BC6.627 참조).

BC6.615 문단 BC5.318에 명시된 바와 같이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추가하여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 또는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에 변경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식적 위험회피지정에 대한 추가적 변경의 효과는 이러한 변경들이 기초 금융자산의 제거를 야기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IFRS 9 문단 5.4.9 참조).

BC6.616 그러므로 IASB는 기업이 IAS 39의 적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먼저 적용하여 이러한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는지(예: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추가하여 이루어진 변경의 결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가 더 이상 적절한 위험회피 대상항목이 되기 위한 적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였다. 마찬가지로, 만약 기업이 IAS 39의 문단 102P에 명시된 변경이 아닌 변경을 위해 위험회피지정을 변경한다면(예: 위험회피관계의 기간을 연장), 기업은 이러한 위험회피지정의 추가적 변경이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먼저 결정할 것이다.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

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은 IAS 39의 문단 102P에서 요구한 것과 같이 변경될 것이다.

BC6.617 2020년 공개초안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개혁의 결과로 기업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경이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이러한 변경은 비파생상품과 파생상품에 대해 사용되는 대체 지표 이자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비효과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위험회피수단으로 베이스스 스왑을 지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이러한 변경을 IAS 39의 문단 102P에 규정하는 요구되는 변경의 범주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IASB는 개혁의 결과로 발생한 다른 변경에 대해 IAS 39 문단 102P의 범위를 확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2단계 개정의 목적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기간에 IFRS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기업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개혁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존재하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요구되는 변경의 범위를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는 데 필요한 변경으로만 제한하였다(IFRS 9 문단 5.4.6~5.4.8에서 기술한 바와 같음).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의 대체

BC6.618 2020년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대신에, 계약상대방은 파생상품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야기하는 접근법을 사용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만약 이러한 접근법이 파생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유사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2단계

개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즉, IFRS 9의 문단 6.9.1(3)이 적용될 것인지)를 문의하였다.

BC6.619 문단 BC5.298의 논리와 일관되게, IASB는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계약의 실질이라고 확인하였다. IASB는 IFRS 9 문단 5.4.7의 조건(즉, 변경이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으로 이루어짐)이 문단 BC6.618에서 기술한 파생상품 계약 조건의 변경을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IASB는 다른 접근법으로 파생상품의 최초 계약조건과 상당히 다른 조건을 가진 파생상품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변경은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으로 이루지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IASB는 만약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된다면, 위험회피회계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위험회피회계가 지속되려면 최초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6.620 IASB는 의견제출자들이 명시한 다음의 접근법들을 고려하였다.

(1) '종결(close-out) 및 동일한 조건으로 대체(즉, 시장의 조건)' - 이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새로운 두 가지 파생상품을 체결할 것이다. 이 두 파생상품 중 하나는 최초 파생상품과 동일하고 최초 파생상품과 상쇄되는 새로운 파생상품(이 두 계약은 모두 대체될 지표 이자율에 근거함)이고, 다른 하나는 최초 파생상품과 조건이 동일하여 이것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가 최초 파생상품의 해당일의 공정가치이며(즉, 새로운 파생상품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상태(off-market)임) 새로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반한 파생상품일 것이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새로운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은 최초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과 동일하고, 최초 파생상품은 제거되지 않으며, 대체 지표 이자율 파생상품의 조건이 최초 파생상품의 조건과 상당히 다르지는 않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은 IFRS 9의 문단 6.9.1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된다고 여겨질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 (2) '종결(close-out) 및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대체(예, 시장 조건)' - 이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존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현금결제로 종결할 것이다. 그런 다음 이 기업은 상당히 다른 조건이지만 시장 조건에 맞는 대체 지표 이자율 파생상품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새로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최초 인식시점에 영(0)이 되도록 할 것이다. 2020년 공개초안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교환이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최초 파생상품이 소멸되고, 상당히 다른 계약 조건의 대체 지표 이자율 파생상품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은 IFRS 9의 문단 6.9.1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 (3) '새로운 베이스스 스왑의 추가' - 이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최초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보유하되, 기존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베이스스 스왑을 체결할 것이다. 이들 파생상품의 결합은 최초 파생상품 계약 조건을 이자율지표에서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도록 변경하는 것과 동등하다. IASB는 원칙적으로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과 '이자율지표-대체 지표 이자율 스왑'의 조합은 최초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변경하는 것과 그 결과가 경제적으로 동등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실무에서 베이스스 스왑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베이스스 위험의 순노출을 경제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개별 파생상품 기준이 아니라 통합 기준으로 체결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이 IFRS 9의 문단 6.9.1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되려면, 반드시 베이스스 스왑이 최초 파생상품과 결합되거나 연계되어야 한다고(즉, 개별 파생상품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베이스스 변경은 개별 금융상품에 대해 이루어지고, 같은 결과를 얻으려면 베이스스 스왑이 개별 파생상품과 결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4) ‘새로운 거래상대방과의 경개(novating)’ - 이 접근법을 적용한 기업은 최초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새로운 거래상대방과 경개하고, 후속적으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기 위해 경개된 파생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변경할 것이다. IASB는 파생상품의 경개가 최초 파생상품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따라서 IFRS 9의 문단 6.5.6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될 것이라고 보았다(추가적으로 문단 BC6.336~BC6.338 참조).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은 IFRS 9의 문단 6.9.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되지 않는다.

BC6.621 따라서 IASB는 IFRS 9의 문단 6.9.2를 추가하여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IFRS 9의 문단 6.9.1(3)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 (1) 기업은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IFRS 9의 문단 5.4.6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이 아닌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한다.
- (2) 최초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되지 않는다.
- (3) 선택된 접근법은 최초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등하다(IFRS 9의 문단 5.4.7과 5.4.8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

BC6.622 문단 BC6.620에서 기술된 접근법의 맥락에서, 개정된 IFRS 9가 회계적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한 적합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IASB는 추가적인 개정이나 적용지침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

BC6.623 IASB는 문단 BC6.568에서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관한 측정 요구사항은 1단계에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IASB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측정의 요구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유용한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문단 BC6.567 참조). 이는 위험회피관계의 실제 결과에 기반한 비효과성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은 개혁의 경제적 영향을 충실하게 표현하며, 따라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BC6.624 IFRS 9의 위험회피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재측정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에 따른 손익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을 측정하고 인식할 때 당기손익으로 반영된다.

BC6.625 2단계 개정을 심의할 때,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이 변경될 때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그러한 공정가치 변동이 발생할 때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그러한 공정가치 변동을 포함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예외규정을 둘지를 고려하였다. IASB가 고려하였지만 기각한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1) '측정 조정금액을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 -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걸쳐 측정 조정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즉, 상각)할 것이다. IASB는 이 접근법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재무상태표에서 상계 계정을 인식하거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의 조정으로 상계 계정을 인식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계 계정은 '개념체계'의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측정 조정금액의 순액이 영(0)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측정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IASB의 결정과도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IASB는 또한 이러한 접근법이 운영상 복잡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기업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조정금액을 상각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한 조정금액을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측정 조정금액을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 -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측정 조정금액을 측정치의 차이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IASB는 이 접근법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회피대상위험의 변동은, 서로 다른 보고기간에 발생했을 수 있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조정에서 기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정금액을 기간에 걸쳐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하는 것은 IFRS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이익잉여금을 조정한다는 (IFRS 기준 전반에 걸친) IASB의 과거 결정들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또 IASB는 측정 조정금액이 ‘개념체계’의 수익과 비용(income or expense)의 정의를 충족할 것이고, 따라서 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IASB는 또한 측정 조정금액을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는 것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측정에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BC6.626 2020년 공개초안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근거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으로 발생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이 유의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이 개정이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에서 이루어진 변동을 요구하는 IFRS 9의 문단 5.4.7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IASB는 이러한 의견이 IFRS 9의 문단 6.9.1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에서 생기는 공정가치의 변동이 유의적이라면 그 변동은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변동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또 IASB는 IFRS 9 문단 6.9.1(2)의 요구사항에서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어서 기업들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최소화하도록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할 것이라고 보았다.

BC6.627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대한 측정과 인식과 관련하여 IFRS 9의 요구사항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과거의 결

정을 확정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측정에 IFRS 9의 문단 6.5.8(공정가치위험회피)과 문단 6.5.11(현금흐름위험회피)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것이다. IASB는 공정가치 변동을 그 밖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그러한 변경된 위험회피관계에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결정(IFRS 9 문단 6.9.1 참조)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비효과성의 인식과 측정에 IFRS 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에 대한 변경의 경제적 영향을 반영하고, 따라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 평가

BC6.628 IFRS 9 문단 6.8.6의 1단계 예외규정은 기업이 IFRS 9의 문단 6.4.1(3)(가)와 문단 B6.4.4~B6.4.6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과(또는)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되거나 계약상 특정되지 않음)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것을 요구한다. IFRS 9의 문단 6.8.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예외규정은 다음 중 이른 시점에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적용하는 것을 각각 중단한다.

- (1) 회피대상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때
- (2)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속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BC6.629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발생가능성의 요구사항에 대한 IASB의 검토결과와 일관되게(문단 BC6.630~BC6.631 참조),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이 변경될 때(IFRS 9 문단 6.9.1 참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는 위험회

피현금흐름과(또는)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할 대체 지표 이자율에 근거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IFRS 9 문단 6.8.6의 1단계 예외의 적용이 중단된 후의 기간에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의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

BC6.630 개혁에 따라 발생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IFRS 9의 문단 6.8.4는 예상거래(또는 그 구성요소)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지를 결정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되거나 계약상 특정되지 않음)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도록 한다. 기업은 다음 중 이른 시점에 이러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

- (1)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때
- (2)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속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BC6.631 IASB는 개혁에 따라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변경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즉, 기업이 IFRS 9의 문단 6.9.1(2)를 적용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 포함)을 수정할 때, 불확실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IFRS 9의 문단 6.3.3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지에 대한 평가는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여 결정된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할 것이다.

BC6.632 IASB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공식적 지정의 변경과 관련하여 IAS 39의 문단 102P(2)의 개정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변경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업이 가상의 파생상품(지정된 현금흐

름의 주요한 조건과 회피대상위험이 일치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주로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예상거래에 대응하여 사용됨)을 사용한다면,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을 측정할 목적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을 계산하기 위해 가상의 파생상품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BC6.633 결과적으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관계가 변경될 때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IFRS 9의 문단 6.9.1 참조), IASB는 그 시점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을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FRS 9의 문단 6.5.11(4)를 적용할 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것이다.

BC6.634 문단 BC330에서 기술된 접근법은 위험회피관계가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따라 변경될 때,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고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이유로만 금액이 당기손익으로 재조정되지 않는다면, 더 유용한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는 IASB의 관점과 일관된다. 이는 이러한 접근법이 보다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의 경제적 효과를 더 충실하게 반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BC6.635 IFRS 9 문단 6.8.5와 6.8.10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IASB는 이전에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개혁의 대상이었으나 이미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유사한 경감규정을 둘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비록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그 위험회피관계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여전히 적립금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심지어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은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 BC6.636 그러므로 IASB는 IFRS 9의 문단 6.5.12를 적용할 때, 기업은 IFRS 9 문단 6.9.7의 개정과 유사하게,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결정하였다. 그 금액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 BC6.637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게 IFRS 9 문단 6.9.7~6.9.8의 요구사항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소급적 측정을 요구하는지(즉, 기업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개시 이후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였을 경우의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으로 재계산해야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BC6.638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IFRS 9의 문단 6.5.11(1)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조정된다고(즉,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별도의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위험회피대상항목(현재가치)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누계액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2단계 개정은 IFRS 9의 측정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즉, 위험회피대상 기대 미래현금흐름 변동누계액의 현재가치)는 기대 미래 현금흐름과 시장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일에 결정된다. 즉, 공정가치는 소급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위험회피관계가 개시된 이후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해 왔던 것처럼 재측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BC6.639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이 되는 포트폴리오가 개방형인지 또는 폐쇄형인지에 관계없이, IFRS 9의 문단 6.9.7과 6.9.8의 개정이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확장된다고 확정하였다. 이 문단의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일반적인 참조는 그러한 범위를 반영하므로,

IASB는 개방형 또는 폐쇄형 포트폴리오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항목 집합

BC6.640 IASB는 공정가치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이미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는 항목뿐만 아니라 이자율지표를 여전히 참조하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전체 집합에 대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만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회피대상위험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을 포함)에 대한 기술을 수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IASB는 또한 오직 개혁의 영향을 이유로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2단계 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다른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요구사항과 경감규정이, 동적위험회피관계(dynamic hedging relationships)를 포함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BC6.641 그러므로 IFRS 9의 문단 6.9.9~6.9.10은 각 하부 집합에 대한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하부 집합에 개별 위험회피대상항목을 배분하고, IFRS 9의 문단 6.6.1의 요구사항을 각각의 하부 집합에 개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IFRS 9의 문단 6.5.8과 6.5.11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그 밖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이 전체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되기 때문에,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이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IASB의 견해에 따르면, 하부 집합들 중 일부가 IFRS 9 문단 6.6.1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하므로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의 엄격성이 유지된다. IASB는 이러한 회계처리의 결과가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는 집합 기준으로 위험회피

대상항목을 지정하는 근거가 기업이 집합 전체에 대하여 지정된 위험회피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BC6.642 IASB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하나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각각의 하부 집합별로 개별적으로 측정하고, 하부 집합 간 이동하는 항목을 추적하는 데 원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IFRS 9가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이미 충분히 세부적으로 식별하고 문서화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므로 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과 이에 따른 회계처리의 영향을 회피하는 효익이 이러한 예외의 관련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BC6.643 2020년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항목이 만기가 되고 대체 지표에 기초한 항목으로 대체될 때 항목 집합의 요구사항을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항목의 동적위험회피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IASB는 비록 2단계 개정의 목적이 개별 항목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될 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지만, 만료된 항목을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는 항목으로 대체하는 것은 동적위험회피관계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항목이 만기가 되었고, 그 항목을 대체하기 위해 집합의 부분으로서 지정되는 새로운 항목은 위험회피되는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관련된 하부 집합에 배분될 것으로 보았다.

BC6.644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IFRS 9의 문단 6.9.9~6.9.10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가상의 파생상품에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실제 위험회피대상항목(예: 변동금리대출)이 아직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가상의 파생상품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변경(따라서 측정)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IASB는 IFRS 9가 가상의 파생상품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지만, 가상의 파생상품을 비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위

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분을 계산하는 가능한 하나의 방법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다(IFRS 9 문단 B6.5.5 참조). 그러므로 가상의 파생상품을 구조화하는 조건은 회피대상위험과 기업이 위험회피하려는 대상의 위험회피현금흐름을 복제하는 것이다. 가상의 파생상품은 위험회피수단에만 존재하는(그러나 위험회피대상항목에는 없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에 대한 특성을 포함할 수 없다. 그러므로 IASB는 적절한 가상의 파생상품에 대한 식별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요구사항에 기반하고, 문단 6.9.9~6.9.10의 요구사항을 가상의 파생상품에 적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위험 구성요소의 지정

1단계 예외사항의 적용 종료

- BC6.645 위험회피관계에서 항목 전체나 항목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IFRS 9의 문단 6.3.7(1)과 B6.3.8은 특정 위험이나 복수의 위험(위험 구성요소)으로 생긴 항목의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변동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BC6.646 1단계 개정을 개발할 때, IASB는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의 적용 종료일을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IFRS 9 문단 6.8.7~6.8.8 참조). IASB는 그 예외규정에 종료일을 포함하는 것은 기업에게 즉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개혁이 진전됨에 따라(예를 들어,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위험 구성요소는 더 이상 별도로 식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단 BC6.597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IASB의 견해에 따르면, 이와 같이 위험회피회계를 즉시 중단하는 것은 1단계의 이 예외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IASB는 1단계 개정을 공표할 때, IFRS 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에

만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1단계 예외규정을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BC6.647 IFRS 9에서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1단계 예외규정과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2단계 개정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IASB는 기업이 1단계 예외규정을 야기했던 개혁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BC6.648 IASB는 개혁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다음에도 1단계 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그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에서 위험회피관계의 구성요소에 대한 실제 특성과 개혁의 경제적 효과 모두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IFRS 9에 문단 6.8.13을 추가하여,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다음 중 더 이른 시점에 중단하도록 하였다.

- (1) IFRS 9의 문단 6.9.1에서 명시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가 개혁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때
- (2)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가 지정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의 적용

BC6.649 2단계 개정을 개발하면서, IASB는 문단 BC6.645~BC6.648에서 논의된 것과 유사한 고려사항이,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지정하는 것에 적용된다고 인지하였다. 이는 위험 구성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IFRS 9의 문단 6.3.7(1)과 B6.3.8의 요구사항을 대체 지표 이자율이 충족한다고 기업이 결론지을 수 있는지가 개혁의 초기 단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BC6.650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 적용 지침과 사례는 이미 IFRS 9의 문단 B6.3.9~B6.3.10에서 제시되었다. 그러나 IASB는 비록 대체 지표 이자율이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될 때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합리적 기간 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이 IFRS 9의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BC6.651 IFRS 9의 문단 6.9.11의 개정은 1단계 개혁의 예외규정과는 다른 금융상품의 집합(set)에 적용된다. IFRS 9 문단 6.9.11의 적용범위 내의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결코 충족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1단계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의 전체 집단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이미 충족하였다. 그러므로 IASB는 2단계 개혁에서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경감규정도 한시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 BC6.652 결과적으로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대체 지표 이자율이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별도로 식별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만, 대체 지표 이자율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되는 날에 별도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였다.
- BC6.653 2020년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개정안에 동의하였으나, IASB에 24개월의 기간을 기산하는 날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IASB는 의견제출자들의 우려사항에 공감하였고, 24개월의 기간 적용에 대하여 다음의 대안들을 고려하였다.
- (1) 개별 위험회피 기준 - 즉, 대체 지표 이자율이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된 날부터 각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
 - (2) 개별 이자율 기준 - 즉, 대체 지표 이자율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최초로 지정한 날부터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해 별도로 적용

BC6.654 IASB는 24개월의 기간을 각 위험회피관계에 개별적으로(즉, 개별 위험회피 기준으로) 적용(2020년 공개초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음) 하는 것은 위험회피관계가 지정된 기준과 일관된다고 인정하였다. 기업은 새로운 위험회피지정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위험회피회계 적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IASB는 또한 서로 다른 위험회피관계(동일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한)에 24개월의 기간을 서로 다른 시점에 적용하는 것은, 그 기간이 서로 다른 시점에 종료할 것이고 그 결과 서로 다른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기간에 걸쳐 추적이 필요하여, 불필요한 운영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두 개의 위험회피관계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한 경우(첫 번째는 20X1년 3월 31일에, 두 번째는 20X1년 6월 30일에 지정한 경우), 비록 지정된 위험이 두 위험회피관계에서 동일하더라도, 각 위험회피에 대한 24개월의 기간은 서로 다른 날에 기산되고 종료될 것이다.

BC6.655 그러므로 IASB는 문단 6.9.11의 요구사항을 ‘개별 이자율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고, 24개월의 기간을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별도로 적용하여,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최초로 지정한 시점에 해당 기간이 기산되도록 결정하였다(다만, IFRS 9 문단 7.2.45 참조). IASB는 기업이 하나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이 24개월 이내에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특정 대체 지표 이자율이 이미 지정된 그 밖의 모든 위험회피관계에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6.654의 사례에 이 요구사항을 적용할 경우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24개월의 기간은 20X1년 3월 31일부터 기산될 것이다.

BC6.656 24개월의 기간을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별도로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이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요구사항은 각 위험회피관계에 별도로 계속 적

용해야 한다. 즉, 기업은 각 위험회피지정에 대하여 24개월의 잔여기간에(즉, 문단 BC6.654의 사례에서 20X3년 3월 31일까지)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BC6.657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계속적으로 평가하는 IFRS 9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대체 지표 이자율이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구성요소라고 결론 내리는 기업은 위험회피관계의 존속기간(문단 BC6.655에서 논의된 24개월의 기간 포함)에 걸쳐 별도의 식별가능성을 평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IASB는 24개월의 기간에 세부적 판단에 따른 복잡성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그 기간 내에 별도의 식별 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24개월의 기간에 해당 요구사항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최초 지정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기업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IFRS 9 문단 6.9.11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한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그 재평가일로부터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BC6.658 IASB는 24개월이 임의적으로 정한 기간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개정이 특성상 한시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된 종료시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단 6.9.11~6.9.13에 기술된 예외규정은 엄격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구성하는 요구사항 중 하나에 대한 유의적인 경감규정이고, 따라서 이 경감규정은 의도적으로 짧은 기간에 유효하다. IASB는 24개월의 기간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특히) 초기에, IFRS 9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기업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처음으로 지정한 날부터 24개월의 기간은 합리적인 기간이고,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시장의 성장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단기적

혼란을 막고, 기업이 개혁을 이행하고 모든 규제 요구사항을 따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BC6.659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을 개발하는 동안 12개월의 기간 또는 24개월보다 긴 기간을 포함해 IFRS 9의 문단 6.9.11에 대한 대체 기간을 제시할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 또는 대체, 그리고 여러 국가에 걸쳐 예상되는 완료시점에 대한 접근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하였다. IASB는 12개월은 모든 국가에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하였다. 이와 동시에, IASB는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24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걸쳐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았다.

BC6.660 IASB는 이 개정이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만 적용되고 신뢰성 있는 측정가능성 요구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위험 구성요소가 지정된 시점이나 그 후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경우 대체 지표 이자율은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하는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기업은 대체 지표 이자율이 지정된 날이나 24개월 동안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 IFRS 9에서 정한 다른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날부터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IASB는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경감규정을 제공하면 문단 BC5.290에서 기술한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시행일과 경과규정(제7장)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개정(2020년 8월)

의무적용

BC7.86 IASB는 2단계 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개정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도록 허용할 경우 특정 회계처리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 내용이 대체로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비록 자발적 적용이 금융상품의 일부 영역이나 유형에서만 가능할지라도,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또 IASB는 이 개정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재무제표 작성자의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에 이 개정의 의무적용이 재무제표 작성자와 그 밖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유의적인 추가 원가를 들게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며, 재무제표 작성자에게 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미 요구되는 것 이외에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적용 종료

- BC7.87 IASB는 2단계 개정의 적용이 개혁의 결과로 발생하는 금융상품이나 위험회피관계의 변경 시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2단계 개정의 적용 종료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에 따라 이 개정의 적용은 자연스럽게 종료된다.
- BC7.88 IASB는 간단한 시나리오에서 2단계 개정이 각 금융상품이나 위험회피관계의 요소에 한 번만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국가별로 적용되는 개혁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개혁을 이행하려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준이 여러 번 변경되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중앙 기관이 이자율지표의 관리자로서 이자율지표를 대체하는 다단계 프로세스에 착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기업은 이 개혁에 따라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기업은 이러한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2단계 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 BC7.89 IFRS 9의 문단 6.9.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기업이 서로 다른 시기에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인 지정을 여러 번 변경하여야 할 수 있다

고 보았다. 예를 들면, 기업은 먼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에 개혁 요구사항을 변경하고, 그 이후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개혁 요구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 개정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설명을 수정하기 위해 위험회피문서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후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회피문서는 IAS 39의 문단 102P에서 요구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또는) 회피대상위험에 대한 설명을 변경하기 위해 다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 BC7.90 IFRS 9 문단 6.9.11의 일부 위험 구성요소의 위험회피에 대한 개정은, 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에 따라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면, 특정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일부 위험 구성요소로 최초 지정한 날에만 적용한다. 그러므로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별도로 식별되는 일부 위험 구성요소라고 결론지을 수 없는 그 밖의 상황에서는 이 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 BC7.91 IASB는 개정의 긴급성을 인정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2단계 개정을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 BC7.92 IASB는 문단 BC7.94~BC7.98에서 논의된 내용은 제외하고, 이 개정 내용을 IAS 8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전진 적용하게 되면,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이 개정의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BC7.93 IASB는 기업이 2단계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기 이전 기간에 IFRS 9의 문단 6.9.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하였고, 2단계 개정이 없는 경우에는 IFRS 9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IASB는 IFRS 9

문단 6.9.1의 개정 사유(문단 BC6.608~BC6.609 참조)가 그러한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언제 변경되었든 간에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기업이 위험회피문서를 수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BC7.94 IASB는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회복이 IFRS 9의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IASB의 이전 결정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는 위험회피회계가 전진적으로 적용되고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후판단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개혁의 특정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중단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IASB는 이러한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회복이 단기간 동안 특정한 경우, 즉 위험회피회계 관련 2단계 개정이 중단된 시점에 적용되었다면 중단되지 않았을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기업이 제안된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기 전에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사항만으로 중단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BC7.95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으로 경과규정 제안을 지지하고 환영하였으나, 기업이 중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의 특정 측면을 재고할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특히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복원이 어렵거나 효익이 제한적일 수 있는 다음의 상황을 강조하였다.

- (1)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후속적으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되었다.
- (2)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은 개정의 최초 적용일에도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예: 종료되거나 매각된 경우).

- (3)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은 현재 다른 거래 포지션과 함께 거래의무 대상(trading mandate)으로 관리되며, 거래상품으로 보고된다.

BC7.96 IASB는 개정 내용을 IAS 8에 따라 소급적용하도록 제안한 2020년 공개초안의 경과규정(중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도록 한 요구사항 포함)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되는 IAS 8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그 밖의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고 효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제출자들의 우려에 동의하였다. 예를 들어,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되었다면 '구(원래의)'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고 '신(유효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거나 해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우려를 다루기 위해 IFRS 9에 문단 7.2.44(2)를 추가하였다.

BC7.97 또한 IASB는 IFRS 9의 문단 6.9.11~6.9.12를 적용하기 위해 IFRS 9의 문단 7.2.44를 적용하여 중단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는 경우,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24개월 기간은 2단계 개정의 최초 적용일부터 기산한다고 결론 내렸다(즉, 원래의 위험회피관계에서 최초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지정한 날부터 기산하지 않는다).

BC7.98 IASB는 1단계의 경과규정과 일관되게 비교 정보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BC7.99 IASB는 IFRS 1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IFRS 1에서 요구하는 대로 IFRS를 최초 채택하는 기업은 2단계 개정과 적용 가능한 IFRS 1의 경과규정을 포함하여 IFRS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Financial Instrument: Recognition and Measurement)’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IAS 39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289~BC371을 추가하였다. 문단 BC289 앞에 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위험회피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개정(2020년 8월)

배경

BC289 2014년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은행간 대출 금리(IBORs: Interbank offered rates)와 같은 주요 이자율지표의 개혁을 권고하였다. 그 이후, 많은 국가의 공적 기관에서는 이자율지표 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이자율지표를 대신 하여 많은 거래 데이터에 기반하고 위험이 거의 없는 대체 이자율(대체 지표 이자율)로 상당 부분 대체하는 등 이자율지표 개혁을 위하여 시기적절한 진전을 시장참여자에게 장려하였다. 이자율지표 개혁이 진전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2021년 말까지 일부 주요 이자율지표가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IAS 39 문단 102B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개혁’)을 말한다.

BC290 2019년 9월에 IASB는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자율지표의 개혁 이전 기간의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루기 위해 IFRS 9, IAS 39와 IFRS 7을 개정하였다(1단계 개정). 1단계 개정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한시적

예외규정을 제공한다. 문단 BC223~BC288에서 1단계 개정의 배경을 논의한다.

- BC291 1단계 개정을 공표한 후, IASB는 2단계 심의를 시작하였다. IASB는 개혁에 관한 2단계 과제에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이슈(‘대체 이슈’)에서 발생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이나 위험회피관계의 변경을 포함하여 이자율지표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를 다루었다.
- BC292 2단계의 목적은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됨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이나 위험회피관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IFRS를 적용하는 재무제표 작성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IASB는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것의 영향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해야 하며 그 전환이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목적은 IASB가 IFRS를 개정해야 하는지 또는 IFRS의 요구사항이 이미 그러한 영향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BC293 2020년 4월 IASB는 대체 이슈를 다루기 위해 IFRS 9, IAS 39, IFRS 7, IFRS 4와 IFRS 16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2020년 공개초안)’를 발표하였다.
- BC294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의 대부분은 대체 이슈를 다루기로 한 IASB의 결정을 환영하였고, 이 개정이 2단계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 개정이 긴급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이자율지표를 개혁하거나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데 진전이 있는 일부 국가의 의견제출자들이 그러하였다.

BC295 2020년 8월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단계 개정)를 발표하여 IFRS 9, IAS 39, IFRS 7, IFRS 4와 IFRS 16을 개정하였다. 2020년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확정된 2단계 개정에서 IAS 39에 문단 102O~102Z3과 108H~108K를 추가하고, 문단 102M을 개정하였다.

위험회피관계의 변경

BC296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과 관련된 2단계改정은,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IAS 39 문단 102D~102I의 요구사항 적용을 중단하는 대로,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한다(IAS 39 문단 102J~102O 참조). 그러므로 개혁으로 발생하는 회피대상위험과 관련된 불확실성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대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여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도 적용되는 별도의 식별 가능성에 대한 요구사항의 개정(IAS 39 문단 102Z3 참조)을 제외하고, 2단계改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의 범위는 1단계改정이 적용되는 범위와 동일하다.

BC297 1단계 계정의 일부로서, IASB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하여 개혁으로 발생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기초 금융상품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을 특정하도록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BC298 IASB는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IFRS 9 문단 5.4.6~5.4.9 참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변경되면, 이자율지표가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 BC299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여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하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의 일부로서, IAS 39에서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문서화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위험회피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의 식별과 위험회피의 효과성 평가방법을 포함한다.
- BC300 따라서 IASB는 일반적으로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IAS 39의 문단 102D~102I에 명시된 1단계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한 후에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험회피관계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충분히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IASB는 2단계의 목적(문단 BC292 참조) 및 1단계의 목적(문단 BC227 참조)과 일관되게, 단지 개혁의 영향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개혁이 위험회피관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항상 반영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따라서 항상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 BC301 따라서 IASB는 만약 개혁에 따라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변경(IFRS 9의 문단 5.4.6~5.4.8 참조)해야 한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을 요구하지 않고 이러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2단계에 대한 IASB의 목적과 일관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변경하기 위해 이미 문서화한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 (1) 대체 지표 이자율(계약상 특정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
 - (2)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을 수정
 - (3)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기술을 수정
 - (4) 위험회피 효과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을 수정

- BC302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개정안에 동의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개정안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견제출자들은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위험회피지정의 변경은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위험관리전략 또는 위험관리목적의 변경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이 있을 때 영향을 받은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2019년 9월에 공표된 1단계 개정에 대한 IASB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
- BC303 그러나,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일반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요구되는 변경의 범위와 시기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BC304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요구되는 변경의 범위와 관련하여,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부분은 변경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IASB는 IFRS 9의 문단 5.4.6~5.4.8에 기술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들은 2020년 공개초안으로 제안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요구된 개정사항에 암묵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았다. 기업이 영향을 받은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 하는 시점을 검토하면서, IASB는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운영노력과 위험회피관계의 변경에서 요구되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IASB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변경이 해당 보고기간에 회계처리 되도록 함과 동시에, (특히 기업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수많은 변경을 해야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 IAS 39의 문단 102P에 따라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만 하는 시점을 특정하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BC305 의견제출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IASB는 IAS 39 문단 102P의 제안된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 (1)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을 수정하는 것에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2) IFRS 9의 문단 5.4.6~5.4.8에 기술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들은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련성이 있다.
 - (3) 위험회피관계의 변경은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각각의 변경들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요구된다.
- BC306 IASB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1단계 개정의 적용이 서로 다른 시점에 중단될 수도 있고, 한 위험회피관계의 서로 다른 요소들에 대한 1단계 적용이 서로 다른 시점에 중단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시점에 IAS 39 문단 102P~102Z2의 적용 가능한 2단계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할 수 있고, 그 결과 여러 번 특정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2단계 개정은 이러한 문단에서 특정된 요구사항에만 적용한다. IAS 39 문단 88의 적용요건을 포함하여 IAS 39의 다른 모든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개혁에 직접 영향을 받은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한다. 더불어, 1단계 개정에 대한 IASB의 결정(문단 BC254 참조)과 일관되게, 2단계 개정 또한 위험회피관계의 측정 요구사항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의 변동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IAS 39 문단 89 또는 96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문단 BC315~BC320 참조).
- BC307 IFRS 9 결론도출근거 문단 BC5.318에 명시된 바와 같이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추가하여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 또는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에 변경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식적 위험회피지정

에 대한 추가적 변경의 효과는 이러한 변경들이 기초 금융자산의 제거를 야기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IFRS 9 문단 5.4.9 참조).

BC308 그러므로 IASB는 기업이 IAS 39의 적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먼저 적용하여 이러한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는지(예: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추가하여 이루어진 변경의 결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가 더 이상 적절한 위험회피 대상항목이 되기 위한 적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였다. 마찬가지로, 만약 기업이 IAS 39의 문단 102P에 명시된 변경이 아닌 변경을 위해 위험회피지정을 변경한다면(예: 위험회피관계의 기간을 연장), 기업은 이러한 위험회피지정의 추가적 변경이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먼저 결정할 것이다.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은 IAS 39의 문단 102P에서 요구한 것과 같이 변경될 것이다.

BC309 2020년 공개초안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개혁의 결과로 기업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경이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이러한 변경은 비파생상품과 파생상품에 대해 사용되는 대체 지표 이자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비효과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위험회피수단으로 베이스스 스왑을 지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이러한 변경을 IAS 39의 문단 102P에 규정하는 요구되는 변경의 범주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IASB는 개혁의 결과로 발생한 다른 변경에 대해 IAS 39 문단 102P의 범위를 확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2단계 개정의 목적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기간에 IFRS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기업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개혁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존재하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요구

되는 변경의 범위를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는 데 필요한 변경으로만 제한하였다(IFRS 9 문단 5.4.6~5.4.8에서 기술한 바와 같음).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의 대체

BC310 2020년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대신에, 계약상대방은 파생상품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야기하는 접근법을 사용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만약 이러한 접근법이 파생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유사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2단계 개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즉, IAS 39의 문단 102P(3)이 적용될 것인지)를 문의하였다.

BC311 IFRS 9 결론도출근거 문단 BC5.298의 논리와 일관되게, IASB는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계약의 실질이라고 확인하였다. IASB는 IFRS 9 문단 5.4.7의 조건(즉, 변경이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으로 이루어짐)이 문단 BC310에서 기술한 파생상품 계약 조건의 변경을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IASB는 다른 접근법으로 파생상품의 최초 계약조건과 상당히 다른 조건을 가진 파생상품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변경은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으로 이루지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IASB는 만약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된다면, 위험회피회계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위험회피회계가 지속되려면 최초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312 IASB는 의견제출자들이 명시한 다음의 접근법들을 고려하였다.

(1) ‘종결(close-out) 및 동일한 조건으로 대체(즉, 시장의 조건)’ - 이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새로운 두 가지 파생상품을 체결할 것이다. 이 두 파생상품 중 하나는 최

초 파생상품과 동일하고 최초 파생상품과 상쇄되는 새로운 파생상품(이 두 계약은 모두 대체될 지표 이자율에 근거함)이고, 다른 하나는 최초 파생상품과 조건이 동일하여 이것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가 최초 파생상품의 해당일의 공정가치이며(즉, 새로운 파생상품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상태(off-market)임) 새로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반한 파생상품일 것이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새로운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은 최초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과 동일하고, 최초 파생상품은 제거되지 않으며, 대체 지표 이자율 파생상품의 조건이 최초 파생상품의 조건과 상당히 다르지는 않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은 IAS 39의 문단 102P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된다고 여겨질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 (2) ‘종결(close-out) 및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대체(예, 시장 조건)’ - 이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존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현금결제로 종결할 것이다. 그런 다음 이 기업은 상당히 다른 조건이지만 시장 조건에 맞는 대체 지표 이자율 파생상품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새로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최초 인식시점에 영(0)이 되도록 할 것이다. 2020년 공개초안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교환이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최초 파생상품이 소멸되고, 상당히 다른 계약 조건의 대체 지표 이자율 파생상품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은 IAS 39의 문단 102P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 (3) ‘새로운 베이스스 스왑의 추가’ - 이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최초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보유하되, 기존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베이스스 스왑을 체결할 것이다. 이들 파생상품의 결합은 최초 파생상품 계약 조건을 이자율지표에서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도록 변경하는 것과 동등하다. IASB는 원칙적으로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

생상품'과 '이자율지표-대체 지표 이자율 스왑'의 조합은 최초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변경하는 것과 그 결과가 경제적으로 동등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실무에서 베이스 스왑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베이스 위험의 순노출을 경제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개별 파생상품 기준이 아니라 통합 기준으로 체결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이 IAS 39의 문단 102P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되려면, 반드시 베이스 스왑이 최초 파생상품과 결합되거나 연계되어야 한다고(즉, 개별 파생상품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베이스 변경은 개별 금융상품에 대해 이루어지고, 같은 결과를 얻으려면 베이스 스왑이 개별 파생상품과 결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4) '새로운 거래상대방과의 경개(novating)' - 이 접근법을 적용한 기업은 최초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새로운 거래상대방과 경개하고, 후속적으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기 위해 경개된 파생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변경할 것이다. IASB는 파생상품의 경개가 최초 파생상품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따라서 IAS 39의 문단 101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될 것이라고 보았다(추가적으로 문단 BC220E - BC220G 참조).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은 IAS 39의 문단 102P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되지 않는다.

BC313 따라서 IASB는 IAS 39의 문단 102Q를 추가하여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IAS 39의 문단 102P(3)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 (1) 기업은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IFRS 9의 문단 5.4.6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이 아닌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한다.
- (2) 최초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되지 않는다.

- (3) 선택된 접근법은 최초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등하다(IFRS 9의 문단 5.4.7과 5.4.8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

BC314 문단 BC312에서 기술된 접근법의 맥락에서, 개정된 IAS 39가 회계적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한 적합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IASB는 추가적인 개정이나 적용지침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

BC315 IASB는 문단 BC254에서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관한 측정 요구사항은 1단계에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IASB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측정의 요구사항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유용한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문단 BC253 참조). 이는 위험회피관계의 실제 결과에 기반한 비효과성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은 개혁의 경제적 영향을 충실하게 표현하며, 따라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BC316 IAS 39의 위험회피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재측정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에 따른 손익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을 측정하고 인식할 때 당기손익으로 반영된다.

BC317 2단계 개정사항을 심의할 때, IASB는 위험회피대상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이 변경될 때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BC318 IASB는 그러한 공정가치 변동이 발생할 때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그러한 공정가치 변동을 포함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예외규정을 둘지를 고려하였다. IASB가 고려하였지만 기각한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 (1) '측정 조정금액을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 -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걸쳐 측정 조정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즉, 상각)할 것이다. IASB는 이 접근법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재무상태표에서 상계 계정을 인식하거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의 조정으로 상계 계정을 인식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계 계정은 '개념체계'의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측정 조정금액의 순액이 영(0)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측정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IASB의 결정과도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IASB는 또한 이러한 접근법이 운영상 복잡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기업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조정금액을 상각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한 조정금액을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2) '측정 조정금액을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 -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측정 조정금액을 측정치의 차이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IASB는 이 접근법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회피대상위험의 변동은, 서로 다른 보고기간에 발생했을 수 있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조정에서 기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정금액을 기간에 걸쳐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하는 것은 IFRS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으로의 전환하는 경우에만 이익잉여금을 조정한다는 (IFRS 기준 전반에 걸친) IASB의 과거 결정들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또 IASB는 측정 조정금액이 '개념체계'의 수익과 비용(income or expense)의 정의를 충족할 것이고, 따라서 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IASB는 또한 측정 조정금액을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는 것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측정에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BC319 2020년 공개초안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근거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으로 발생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이 유의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이 개정이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에서 이루어진 변동을 요구하는 IFRS 9의 문단 5.4.7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IASB는 이러한 의견이 IAS 39의 문단 102P를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에서 생기는 공정가치의 변동이 유의적이라면 그 변동은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변동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또 IASB는 IAS 39 문단 102P(2)의 요구사항에서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어서 기업들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최소화하도록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할 것이라고 보았다.

BC320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대한 측정과 인식과 관련하여 IAS 39의 요구사항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과거의 결정을 확정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측정에 IAS 39의 문단 89(공정가치위험회피)와 문단 96(현금흐름위험회피)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것이다. IASB는 공정가치 변동을 그 밖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그러한 변경된 위험회피관계에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결정(IAS 39 문단 102P 참조)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비효과성의 인식과 측정에 IAS 3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에 대한 변경의 경제적 영향을 반영하고, 따라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

소급적 효과성 평가

BC321 IAS 39 문단 102G의 1단계 예외규정을 적용하면서,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IAS 39 문단 AG105(2)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

기 때문에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IAS 39의 문단 102M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관계가 이전에 중단되지 않았다면, 회피대상위험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자율지표에 기초하는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 기업은 다른 1단계 요구사항과 더불어, IAS 39 문단 102G의 예외규정 적용을 중단하는 날에 IAS 39의 요구사항(2단계 개정 포함)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그 시점에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80~125%의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IAS 39의 문단 AG105(2)를 적용할 것이고, 그 결과가 해당 범위 밖에 있을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할 것이다.

BC322 IASB는 기업이 IAS 39 문단 102G의 적용을 중단하고 위험회피관계의 소급적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IAS 39의 문단 AG105(2)의 요구사항을 최초로 적용할 때, 누적기준으로 위험회피 효과성을 평가한다면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소급적 평가에 실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IASB는 이러한 결과가 1단계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구체적으로 재무제표에 모든 비효과성을 인식하면서, 개혁에서 생긴 불확실성이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에 미치는 영향만을 이유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는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BC323 문단 BC322에서 기술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20년 공개초안은 소급적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할 때, 기업이 소급적 평가 적용의 목적으로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누계액을 영(0)으로 재설정하도록 하는 IAS 39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된 개정안은 누적기준으로 소급적 효과성을 평가할 때에만 적용될 것이다[누적기준에 따른 금액적 상계 방법(dollar offset method)]. 기업은 IAS 39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실제 손익을 위험회피수단의 실제 손익과 비교하여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속 측정하고 인식할 것이다.

BC324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이 제안된 개정안의 목적에는 동의하였으나, 일부 위험회피관계의 소급적 효과성 평가에서 실패하게 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특정 상황을 식별하였다. 예를 들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한 초기에 시장 변동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변동성에 따라 소급적 효과성 측정이 80~125%라는 임계치를 넘을 수 있다. 이는 재설정일 전의 자료가 더 긴 기간 동안 위험회피관계가 실제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더라도, 재설정일 전의 자료를 기초로 효과성을 평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IASB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여, IAS 39의 문단 102V를 수정하였다. 이 문단에서는 기업이 소급적 효과성을 측정할 목적으로 공정가치 변동누계액을 영(0)으로 재설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설정할 수 있도록(즉,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IASB는 이러한 개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위험회피관계별로 선택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전진적 평가

BC325 IAS 39 문단 102F의 1단계 예외규정은 기업이 IAS 39의 문단 88(2)와 문단 AG105(1)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전진적 효과성 평가의 목적으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과(또는)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되거나 특정되지 않음)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것을 요구한다. IAS 39의 문단 102L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예외규정은 회피대상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때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속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중 이른 시점에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적용하는 것을 각각 중단한다.

BC326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발생가능성의 요구사항에 대한 IASB의 검토결과와 일관되게(문단 BC327~BC328 참조),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이 변경될 때(IAS 39 문단 102P 참조), 전

진적 평가는 위험회피현금흐름과(또는)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할 대체 지표 이자율에 근거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IAS 39 문단 102F의 1단계 예외의 적용이 중단된 후의 기간에 전진적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

BC327 개혁에 따라 발생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IAS 39의 문단 102D는 예상거래(또는 그 구성요소)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결정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되거나 특정되지 않음)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도록 한다. 기업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때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속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중 이른 시점에 이러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

BC328 IASB는 개혁에 따라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변경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즉, 기업이 IAS 39의 문단 102P(2)를 적용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 포함)을 수정할 때, 불확실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IAS 39의 문단 88(3)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에 대한 평가는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여 결정된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할 것이다.

BC329 IASB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공식적 지정의 변경과 관련하여 IAS 39의 문단 102P(2)의 개정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변경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업이 가상의 파생상품(지정된 현금흐름의 주요한 조건과 회피대상위험이 일치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주로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예상거래에 대응하여 사용됨)을 사용한

다면,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을 측정할 목적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을 계산하기 위해 가상의 파생상품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BC330 결과적으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관계가 변경될 때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IAS 39의 문단 102P 참조), IASB는 그 시점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을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 39의 문단 97을 적용할 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것이다.

BC331 문단 BC330에서 기술된 접근법은 위험회피관계가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따라 변경될 때,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고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이유로만 금액이 당기손익으로 재조정되지 않는다면, 더 유용한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는 IASB의 관점과 일관된다. 이는 이러한 접근법이 보다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의 경제적 효과를 더 충실하게 반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BC332 IAS 39 문단 102E와 102K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IASB는 이전에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개혁의 대상이었으나 이미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유사한 경감규정을 들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비록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그 위험회피관계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여전히 적립금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심지어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은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BC333 그러므로 IASB는 IAS 39의 문단 101(3)을 적용할 때, 기업은 IAS 39 문단 102W의 개정과 유사하게,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결정하였다. 그 금액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BC334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게 IAS 39 문단 102W~102X의 요구사항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소급적 측정을 요구하는지(즉, 기업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개시 이후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였을 경우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재계산해야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BC335 IASB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IAS 39의 문단 96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조정된다고(즉,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별도의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위험회피대상항목(현재가치)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누계액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2단계 개정은 IFRS 9의 측정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즉, 위험회피대상 기대 미래현금흐름 변동누계액의 현재가치)는 기대 미래 현금흐름과 시장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일에 결정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공정가치는 소급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IASB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위험회피관계가 개시된 이후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해 왔던 것처럼 재측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BC336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이 되는 포트폴리오가 개방형인지 또는 폐쇄형인지에 관계없이, IAS 39의 문단 102W~102X의 개정이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확장된다고 확정하였다. 이 문단의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일반적인 참조는 그러한 범위를 반영하므로, IASB는 개방형 또는 폐쇄형 포트폴리오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항목 집합

BC337 IASB는 공정가치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이미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는 항목뿐만 아니라 이자율지표를 여전히 참조하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전체 집합에 대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만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회피대상위험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을 포함)에 대한 기술을 수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IASB는 또한 오직 개혁의 영향을 이유로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2단계 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다른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요구사항과 경감규정이, 동적위험회피관계(dynamic hedging relationships)를 포함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BC338 그러므로 IAS 39의 문단 102Y~102Z는 각 하부 집합에 대한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하부 집합에 개별 위험회피대상항목을 배분하고, IAS 39의 문단 78과 83의 요구사항을 각각의 하부 집합에 개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IAS 39의 문단 89와 96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그 밖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이 전체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되기 때문에,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이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IASB의 견해에 따르면, 하부 집합들 중 일부가 IAS 39 문단 78과 83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하므로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의 엄격성이 유지된다. IASB는 이러한 회계처리의 결과가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는 집합 기준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는 근거가 기업이 집합 전체에 대하여 지정된 위험회피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BC339 IASB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하나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각각의 하부 집합별로 개별적으로 측정하고, 하부 집합 간 이동하는 항목을 추적하는 데 원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

그러나 IASB는 IAS 39가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이미 충분히 세부적으로 식별하고 문서화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므로 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과 이에 따른 회계처리의 영향을 회피하는 효익이 이러한 예외의 관련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BC340 2020년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항목이 만기가 되고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항목으로 대체될 때 항목 집합의 요구사항을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항목의 동적위험회피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IASB는 비록 2단계 개정의 목적이 개별 항목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될 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지만, 만료된 항목을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는 항목으로 대체하는 것은 동적위험회피관계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항목이 만기가 되었고, 그 항목을 대체하기 위해 집합의 부분으로서 지정되는 새로운 항목은 위험회피되는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관련된 하부집합에 배분될 것으로 보았다.

BC341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IAS 39의 문단 102Y~102Z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가상의 파생상품에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실제 위험회피대상항목(예: 변동금리대출)이 아직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가상의 파생상품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변경(따라서 측정)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IASB는 IAS 39가 가상의 파생상품에 대해 비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분을 계산하는 가능한 하나의 방법이 기 때문에, 구체적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러므로 가상의 파생상품을 구조화하는 조건은 회피대상위험과 기업이 위험회피하려는 대상의 위험회피현금흐름을 복제하는 것이다. 가상의 파생상품은 위험회피수단에만 존재하는(그러나 위험회피대상항목에는 없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에 대한 특성을 포함할 수 없다. 그러므로 IASB는 적절한 가상의 파생상품에

대한 식별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요구사항에 기반하고, 문단 102Y~102Z의 요구사항을 가상의 파생상품에 적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1단계 예외규정의 적용 종료

- BC342 위험회피관계에서 항목 전체나 항목의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IAS 39의 문단 81과 AG99F는 특정 위험이나 복수의 위험(위험 부분)으로 생긴 항목의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변동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BC343 1단계 개정을 개발할 때, IASB는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의 적용 종료일을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IAS 39 문단 102H~102I 참조). IASB는 그 예외규정에 종료일을 포함하는 것은 기업에게 즉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개혁이 진전됨에 따라(예를 들어,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위험부분은 더 이상 별도로 식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단 BC28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IASB의 견해에 따르면, 이와 같이 위험회피회계를 즉시 중단하는 것은 1단계의 이 예외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IASB는 1단계 개정을 공표할 때, IAS 3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에만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1단계 예외규정을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BC344 IAS 39에서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1단계 예외규정과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2단계 개정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IASB는 기업이 1단계 예외규정을 야기했던 개혁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별도의 식별가능

성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BC345 IASB는 개혁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다음에도 1단계 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그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에서 위험회피관계의 구성요소에 대한 실제 특성과 개혁의 경제적 효과 모두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IAS 39에 문단 102O를 추가하여,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다음 중 더 이른 시점에 중단하도록 하였다.

- (1) IAS 39의 문단 102P에서 명시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이 개혁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때
- (2)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이 지정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의 적용

BC346 2단계 개정을 개발하면서, IASB는 문단 BC342~BC345에서 논의된 것과 유사한 고려사항이,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지정하는 것에 적용된다고 인지하였다. 이는 위험 부분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IAS 39의 문단 81과 AG99F의 요구사항을 대체 지표 이자율이 충족한다고 기업이 결론지을 수 있는지가 개혁의 초기 단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BC347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은 이미 IAS 39의 문단 81에서 제시되었다. 그러나 IASB는 비록 대체 지표 이자율이 위험 부분으로 지정될 때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합리적 기간 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이 IAS 39의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BC348 IAS 39의 문단 102Z1의 개정은 1단계 개혁의 예외규정과는 다른 금융상품의 집합(set)에 적용된다. IAS 39 문단 102Z1의 적용범위 내의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결코 충족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1단계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의 전체 집단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이미 충족하였다. 그러므로 IASB는 2단계 개혁에서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경감규정도 한시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 BC349 결과적으로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대체 지표 이자율이 위험 부분으로 지정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별도로 식별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만, 대체 지표 이자율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되는 날에 별도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였다.
- BC350 2020년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개정안에 동의하였으나, IASB에 24개월의 기간을 기산하는 날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IASB는 의견제출자들의 우려사항에 공감하였고, 24개월의 기간 적용에 대하여 다음의 대안들을 고려하였다.
- (1) 개별 위험회피 기준 - 즉, 대체 지표 이자율이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 부분으로 지정된 날부터 각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
 - (2) 개별 이자율 기준 - 즉, 대체 지표 이자율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최초로 지정한 날부터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해 별도로 적용
- BC351 IASB는 24개월의 기간을 각 위험회피관계에 개별적으로(즉, 개별 위험회피 기준으로) 적용(2020년 공개초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음)하는 것은 위험회피관계가 지정된 기준과 일관된다고 인정하였다. 기업은 새로운 위험회피지정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위험회피회계 적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IASB는 또한 서로 다른 위험회피관계(동일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위험 부분으로 지정한)에 24개월의

기간을 서로 다른 시점에 적용하는 것은, 그 기간이 서로 다른 시점에 종료할 것이고 그 결과 서로 다른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기간에 걸쳐 추적이 필요하여, 불필요한 운영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두 개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대체 지표 이자율을 위험 부분으로 지정한 경우(첫 번째는 20X1년 3월 31일에, 두 번째는 20X1년 6월 30일에 지정한 경우), 비록 지정된 위험이 두 위험회피관계에서 동일하더라도, 각 위험회피에 대한 24개월의 기간은 서로 다른 날에 기산되고 종료될 것이다.

BC352 그러므로 IASB는 문단 102Z1의 요구사항을 ‘개별 이자율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고, 24개월의 기간을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별도로 적용하여,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최초로 지정한 시점에 해당 기간이 기산되도록 결정하였다(다만, IAS 39 문단 108J 참조). IASB는 기업이 하나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이 24개월 이내에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특정 대체 지표 이자율이 이미 지정된 그 밖의 모든 위험회피관계에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351의 사례에 이 요구사항을 적용할 경우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24개월의 기간은 20X1년 3월 31일부터 기산될 것이다.

BC353 24개월의 기간을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별도로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이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요구사항은 각 위험회피관계에 별도로 계속 적용해야 한다. 즉, 기업은 각 위험회피지정에 대하여 24개월의 잔여기간에(즉, 문단 BC351의 사례에서 20X3년 3월 31일까지)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BC354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계속적으로 평가하는 IAS 39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대체 지표 이자율이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구성요소라고 결론 내리는 기업은 위험회피관계의 존속기간(문단 BC352에서 논의된 24개월의 기간 포함)에 걸쳐 별도의 식별가능성을 평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IASB는 24개월의 기간에 세부적 판단에 따른 복잡성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그 기간 내에 별도의 식별 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24개월의 기간에 해당 요구사항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최초 지정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기업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IAS 39 문단 102Z1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한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그 재평가일로부터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BC355 IASB는 24개월이 임의적으로 정한 기간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개정이 특성상 한시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된 종료시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IAS 39의 문단 102Z1~102Z3에 기술된 예외규정은 엄격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구성하는 요구사항 중 하나에 대한 유의적인 경감규정이고, 따라서 이 경감규정은 의도적으로 짧은 기간에 유효하다. IASB는 24개월의 기간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특히) 초기에, IAS 39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기업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처음으로 지정한 날부터 24개월의 기간은 합리적인 기간이고,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시장의 성장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단기적 혼란을 막고, 기업이 개혁을 이행하고 모든 규제 요구사항을 따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BC356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을 개발하는 동안 12개월의 기간 또는 24개월보다 긴 기간을 포함해 IAS 39의 문단 102Z1에 대한 대체 기간을 제시할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 또는 대체, 그리고 여러 국가에 걸쳐 예상되는 완료시점에 대한

접근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하였다. IASB는 12개월은 모든 국가에 충분한 시간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와 동시에, IASB는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24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걸쳐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았다.

BC357 IASB는 이 개정이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만 적용되고 신뢰성있는 측정가능성 요구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위험 부분이 지정된 시점이나 그 후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경우 대체 지표 이자율은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 부분으로 지정하는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기업은 대체 지표 이자율이 지정된 날이나 24개월 동안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 IAS 39에서 정한 다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날부터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IASB는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경감규정을 제공하면, 문단 BC292에서 기술한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의무적용

BC358 IASB는 2단계 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개정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도록 허용할 경우(즉, 허용되지만 요구되지 않는 IAS 39 문단 102V의 개정은 제외) 특정 회계처리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 내용이 대체로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비록 자발적 적용이 금융상품의 일부 영역이나 유형에서만 가능할지라도,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또 IASB는 이 개정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재무제표 작성자의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에 이 개정의 의무적용이 재무제표 작성자와 그 밖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유의적인 추가 원가를 들게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며, 재무제표

작성자에게 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미 요구되는 것 이외에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적용 종료

- BC359 IASB는 2단계 개정의 적용이 개혁의 결과로 발생하는 금융상품이나 위험회피관계의 변경 시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2단계 개정의 적용 종료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에 따라 이 개정의 적용은 자연스럽게 종료된다.
- BC360 IASB는 간단한 시나리오에서 2단계 개정이 각 금융상품이나 위험회피관계의 요소에 한 번만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국가별로 적용되는 개혁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개혁을 이행하려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준이 여러 번 변경되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BC361 IAS 39의 문단 102R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기업이 서로 다른 시기에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인 지정을 여러 번 변경하여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기업은 먼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에 개혁 요구사항을 변경하고, 그 이후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개혁 요구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 개정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설명을 수정하기 위해 위험회피문서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후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회피문서는 IAS 39의 문단 102P에서 요구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또는) 회피대상위험에 대한 설명을 변경하기 위해 다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 BC362 IAS 39 문단 102Z1의 일부 위험 부분의 위험회피에 대한 개정은, 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에 따라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면, 특정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최초 지정한 날에만 적용한다. 그러

므로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별도로 식별되는 위험 부분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는 그 밖의 상황에서는 이 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BC363 IASB는 IAS 39의 문단 102G의 소급적 평가에서 1단계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하는 날에 위험회피회계의 잠재적인 영향을 다루기 위하여 IAS 39의 문단 102V를 개정하였다. 따라서 IAS 39의 문단 102V는 IAS 39 문단 102G의 소급적 평가 예외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날에만 적용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 BC364 IASB는 개정의 긴급성을 인정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2단계 개정을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 BC365 IASB는 문단 BC367~BC370에서 논의된 내용은 제외하고, 이 개정 내용을 IAS 8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전진 적용하게 되면,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이 개정의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BC366 IASB는 기업이 2단계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기 이전 기간에 IAS 39의 문단 102P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하였고, 2단계 개정이 없는 경우에는 IAS 39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IASB는 IAS 39 문단 102P의 개정 사유(문단 BC300~BC301 참조)가 그러한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언제 변경되었든 간에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기업이 위험회피문서를 수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BC367 IASB는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회복이 IAS 39의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IASB의 이전 결정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는 위험회피회계가 전진적으로 적용되고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후판단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개혁의 특정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중단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IASB는 이러한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회복이 단기간 동안 특정한 경우, 즉 위험회피회계 관련 2단계 개정이 중단된 시점에 적용되었다면 중단되지 않았을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기업이 제안된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기 전에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사항만으로 중단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BC368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으로 경과규정 제안을 지지하고 환영하였으나, 기업이 중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의 특정 측면을 재고할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특히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복원이 어렵거나 효익이 제한적일 수 있는 다음의 상황을 강조하였다.

- (1)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후속적으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되었다.
- (2)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은 개정의 최초 적용일에도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예: 종료되거나 매각된 경우).
- (3)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은 현재 다른 거래 포지션과 함께 거래의무 대상(trading mandate)으로 관리되며, 거래상품으로 보고된다.

BC369 IASB는 개정 내용을 IAS 8에 따라 소급적용하도록 제안한 2020년 공개초안의 경과규정(중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도록 한 요구사항 포함)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되는 IAS 8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

은 그 밖의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고 효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제출자들의 우려에 동의하였다. 예를 들어,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되었다면 '구(원래의)'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고 '신(유효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거나 해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우려를 다루기 위해 IAS 39에 문단 108I(2)를 추가하였다.

BC370 또한 IASB는 IAS 39의 문단 102Z1~102Z2를 적용하기 위해 IAS 39의 문단 108I(2)를 적용하여 중단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는 경우,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24개월 기간은 2단계 개정의 최초 적용일부터 기산한다고 결론 내렸다(즉, 원래의 위험회피관계에서 최초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지정한 날부터 기산하지 않는다).

BC371 IASB는 1단계의 경과규정과 일관되게 비교 정보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IFRS 7 ‘금융상품: 공시(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S 7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문단 BC35DDD~BC35OOO를 추가하였고, 문단 BC35DDD 앞에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들 문단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그 밖의 공시 - 이자율지표 개혁에 관한 추가 공시

BC35DDD 2020년 4월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 기간 동안에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2020년 공개초안)’를 발표하였다.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IFRS 9의 문단 6.8.2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개혁’)을 말한다. IASB는 2020년 8월에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최종 개정을 공표하였다(2단계 개정). IFRS 9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5.287~BC5.320, BC6.604~BC6.660, BC7.86~BC7.99와 IAS 39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89~BC371에서는 이러한 개정의 배경을 논의한다.

BC35EEE 공시가 2단계 개정에 수반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때, IASB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익과 재무제표 작성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원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IASB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원가가 효익을 초과하는 공시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개혁이 기업의 금융상품과 위험관리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IASB는 2단계 개정이 없을 때를

가정한 개혁의 영향에 대한 양적공시를 요구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원가가 효익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같은 이유로 IASB는 IAS 8의 문단 28(6)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35FFF 2020년 공개초안에서 IASB는 제안된 공시 목적과 그러한 목적에 맞는 공시 요구사항을 정함으로써 제한된 추가 공시요구사항을 제안하였다.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공시 목적을 지지하였고 제안된 공시에 대체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IFRS 7 문단 24J(2)에서 요구하는 공시 사항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기업이 IFRS 9 문단 5.4.6~5.4.8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다시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다.

BC35GGG 2020년 공개초안의 IFRS 7 문단 24J(2)에서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자율지표를 계속 참조하는 비파생금융자산, 비파생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파생상품의 명목금액을 공시하도록 제안하였다.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해야 하는 나머지 금융상품의 규모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개혁 이행 진척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의견제출자들은 관련 비파생금융상품의 장부금액에 기초하여 양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보고시스템 개선에 비용이 들게 하고, 추가적인 통제와 조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제한된 기간에 재무제표 작성자, 특히 2단계 개정을 조기 적용할 계획인 재무제표 작성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대체 기준에 따른 양적 정보 공시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예를 들면, 관련 비파생금융상품의 장부금액에 대한 정보를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는 이용할 수 없다면, 기업은 개혁 이행의 일환으로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된 양적 정보에 기초하여 공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BC35HHH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2020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양적 정보는 기업의 개혁 이행 진척도에 대한 유용한 측정치이지만, 비파생금융자산과 비파생금융부채에 대한 양적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의 관련 항목에 이미 표시된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양적 정보는 (이미 표시된 그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기업이 양적 정보를 공시할 다른 기준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양적 정보는 여전히 유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BC35III IASB는 IFRS 7 문단 24J(2)에서 요구하는 공시의 기본적인 목적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 진척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고기간말 현재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자율지표를 참조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양적 정보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개혁 이행의 진척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IASB는 이러한 공시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자율지표를 계속 참조하는 비파생금융자산, 비파생금융부채, 파생상품에 대한 양적 정보는 보고기간말 현재 비파생금융자산, 비파생금융부채, 파생상품의 총액의 맥락에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BC35JJJ IASB는 기업이 관련 양적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 제공하여도 여전히 공시의 기본적인 목적을 충족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공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적적합한 양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이미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 정보 제공 원가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았다.

BC35KKK 따라서 IASB는 보고기간말 현재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지 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정도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게 양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IFRS 7 문단 24J(2)를 개정하였다. 이 정보는 유의적인 이자율지표별로 세분화될 것이다. 기업은 양적 정보를 공시하는 기준을 선택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설명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양적 정보는 다음을 기초로 할 수 있다.

- (1) 비파생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비파생금융부채의 장부금액, 파생상품의 명목금액
- (2) 인식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금액(예: 비파생금융자산과 비파생금융부채의 계약상 액면금액, 파생상품의 명목금액)
- (3)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해 기업의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과 같은 주요 경영진(IAS 24에서 정의함)에게 내부적으로 제공한 금액

BC35LLL 또한, IASB는 보고일에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자율지표를 참조하지만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기 전에 소멸할 금융상품에 대해 IFRS 7 문단 24J(2)의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이 공시 요구사항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문단 BC35III 참조), 기업은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해야 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즉, 만기 이전에)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BC35MMM 2020년 공개초안에서는 IFRS 9 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내린 유의적인 판단을 포함하여 기준금리와 그 금리의 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제안하였다.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개혁의 규제적 특성에 비추어 기업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하도록 충분히 상세하고 기업 특유의 방식으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의미있는 방식으로 공시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종종 서로 다른 대체 지표 이자율에 노출되어 있는 다국적기업을 참조하여 기술하였다. 이들은 제안된 공시가, 그러한 변경이 경제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의도라면 그러한 공시는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기업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했다는 사실은 기업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평가했다는 것을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자동적으로 알려준다. 또한 이러한 조건을 적용하기 위하여 유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IAS 1 문단 122에 따라 기업은 그러한 판단을 공시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BC35NNN 2020년 공개초안의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나타내었다. 일부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제안된 공시가 실무적 간편법이 적용된 금융상품의 변동 정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말했지만, 다른 이용자들은 기업이 의미있는 정보를 위해 충분히 상세하게 공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특히, 그들은 그러한 공시가 정보가 유용하지 않을 정도의 통합 수준에서 요약될 위험을 우려하였다. 또한 기업이 IFRS 9 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어떻게 충족하였는지 설명하는 요구사항을 재무제표에 공시하는 문제가 아니라 감사나 규제 집행에 해당하는 문제로 간주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을 IFRS 7의 최종 개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BC35OOO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비교표시되는 기간, 즉 이 개정의 최초 적용일보다 앞선 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IFRS 7 문단 24I와 24J를 적용해야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IASB는 IFRS 9, IAS 39, IFRS 4, IFRS 16의 2단계 개정의 경과규정에 따라 기업이 이 개정의 적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그러나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기업이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다면 IFRS 7 문단 24I와 24J를 과거 보고기간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

IFRS 4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s)’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S 4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문단 BC277D~BC277G를 추가하였다. 문단 BC277D 앞의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편하도록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개정(2020년 8월)

BC277D 2020년 4월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 기간 동안에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2020년 공개초안)’를 발표하였다.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IAS 39 문단 102B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개혁’)을 말한다. IASB는 2020년 8월에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최종 개정을 공표하였다(2단계 개정). IFRS 9 결론도출근거 문단 BC5.287~BC5.320에서는 이러한 개정의 배경을 논의한다.

BC277E IASB는 IFRS 4 문단 20A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자에 대해, IFRS 17의 시행일 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는 IFRS 9가 아닌 IAS 39를 적용하도록 허용(IFRS 9 적용에 대한 한시적 면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277F IASB가 IFRS 9 적용에 대한 한시적 면제(IFRS 4 문단 20A 참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을 때, 면제규정이 특성상 한시적이고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IASB는 IAS 39(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제외)가 다른 IFRS의 후속 개정으로 변경되거나 갱신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보험자는 개혁으로 인해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변경되는 것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IAS 39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러한 보험자는 IFRS 9 문단 5.4.5~5.4.9에 기술된 개정 내용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BC277G IASB는 그러한 보험자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와 같은 방식으로 개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IFRS 9 문단 5.4.5~5.4.9의 2단계(phase 2) 개정 내용이 IAS 3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보험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IAS 39의 대체된 문단을 개정하는 것은 IAS 39(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제외)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전의 결정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적용하는 보험자가, 개혁으로 인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하여 2단계(phase 2) 개정의 문단 5.4.5~5.4.9와 대응되는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IFRS 4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개혁이 보험자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보았고, IAS 39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갱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반적인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IFRS 16 ‘리스(Leases)’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S 16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문단 BC267A~BC267J를 추가하였고, 문단 BC267A 앞에 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한시적 예외규정

BC267A 2020년 4월 IASB는 이자율지표의 개혁(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 기간 동안에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2020년 공개초안)’를 발표하였다.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IFRS 9의 문단 6.8.2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개혁’)을 말한다. IASB는 2020년 8월에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최종 개정을 공표하였다(2단계 개정). IFRS 9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5.287~BC5.293과 IAS 39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89~BC295는 이러한 개정의 배경을 논의한다.

BC267B 2단계 개정을 개발하면서, IASB는 IFRS 9와 IAS 39 이외에 IFRS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개혁의 잠재적 영향도 고려하였다. IASB는 IFRS 16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였다.

BC267C 일부 리스에서 리스료는 IFRS 9 문단 6.8.2에 기술된 개혁의 대상인 이자율지표를 참조한다. IFRS 16에 따르면, 리스이용자는 리스 부채 측정치에 이자율지표를 참조하는 변동리스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BC267D IFRS 16을 적용하는 경우, 변동리스료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리스계약의 변경은 리스변경의 정의를 충족한다. 리스료 계산의 변경은 리스대가를 산정하는 변경 전 리스 조건을 변경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 BC267E IFRS 16은 수정 할인율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하여 리스변경을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한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남은 리스기간의 내재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하지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한다.
- BC267F 그러나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사항에 한정(IFRS 16 문단 105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되는 리스변경의 경우, 리스이용자의 전체 증분차입이자율을 재평가 하는 것은 변경된 리스의 경제적 효과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자의 원가가 추가될 수 있는데, 특히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자율지표를 참조하는 리스가 서로 다른 시기에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그러할 수 있다. 이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각각의 리스변경 유효일에 새로운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BC267G IASB는 IFRS 9 결론토출근거 문단 BC5.306에 제시된 이유로,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을 IFRS 16 문단 42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에 따르면, 개혁에서 요구된 변동리스료를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은 개혁의 결과로 미래 리스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변경하는 모든 리스변경에 적용될 것이다(IFRS 9 문단 5.4.6과 5.4.8 참조). 이 경우, IFRS 9의 개정과 일관되게,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은 두 가지 조건[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변경이 필요하고, 리스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해야 함]을 충족해야 한다.

- BC267H 리스변경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은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에만 적용된다.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에 추가하여 리스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시에 이루어진 모든 리스변경(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 포함)의 회계처리에 IFRS 16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 BC267I IFRS 9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개정 내용(IFRS 9 문단 5.4.9 참조)과는 달리,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과 그 밖의 리스변경을 회계처리하는 순서를 규정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과 그 밖의 리스변경을 회계처리하는 순서에 따라 회계처리 결과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 BC267J 또한 IASB는 리스제공자 관점에서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에 이자율지표를 참조하는 변동리스료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IASB는 리스제공자의 관점에서 리스계약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제공자는 리스변경에서 IFRS 9를 적용하여야 하고, IFRS 9의 문단 5.4.5~5.4.9의 개정 내용은 개혁에서 요구된 이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을 하지 않았다. 운용리스의 경우, IASB는 리스제공자에 대한 IFRS 16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운용리스 회계모형의 적용방식에 따라 개혁에서 요구된 조건의 변경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개정안 영·한 대비표

본문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영문	국문
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i>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p>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i></p> <p>Paragraphs 5.4.5 - 5.4.9, paragraphs 6.8.13, 6.9.1 - 6.9.13, paragraphs 7.1.10 and 7.2.43 - 7.2.46 are added. A heading is added before paragraph 6.9.1 and subheadings are added before paragraphs 5.4.5, 6.9.7, 6.9.9, 6.9.11 and 7.2.43. For ease of reading these paragraphs have not been underlined.</p> <p>5.4 Amortised cost measurement</p> <p>Changes in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as a result of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 <p>5.4.5 An entity shall apply paragraphs 5.4.6-5.4.9 to a financial asset or financial liability if, and only if,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that financial asset or financial liability changes as a result of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For this</p>	<p>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개정</p> <p>문단 5.4.5~5.4.9, 문단 6.8.13, 6.9.1~6.9.13, 문단 7.1.10과 7.2.43~7.2.46을 추가하였다. 문단 6.9.1 앞에 제목을 추가하였고 문단 5.4.5, 6.9.7, 6.9.9, 6.9.11과 7.2.43 앞에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이 문단들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p> <p>제5.4절 상각후원가 측정</p> <p>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p> <p>5.4.5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만 문단 5.4.6~5.4.9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문단 6.8.2에서 기술한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을 말한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i>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purpose, the ter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refers to the market-wide reform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as described in paragraph 6.8.2.	
<p>5.4.6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a financial asset or financial liability can change:</p> <p>(a) by amending the contractual terms specified at the initial recognition of the financial instrument (for example, the contractual terms are amended to replace the referenced interest rate benchmark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p> <p>(b) in a way that was not considered by—or contemplated in—the contractual terms at the initial recognition of the financial instrument, without amending the contractual terms (for example, the method for calculating the interest rate benchmark is altered without amending the contractual terms); and/or</p> <p>(c) because of the activation of an existing contractual term</p>	<p>5.4.6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 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p> <p>(1)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특정된 계약조건의 변경(예: 참조하는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도록 계약조건을 변경)</p> <p>(2)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의 계약 조건에 의해 고려되지 않았거나 예상되지 않은 방식으로 변경(예: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이자율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을 변경)</p> <p>(3) 기존 계약조건의 활성화(예: 기존 대체조항(fallback clause)의 유발)</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i>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for example, an existing fallback clause is triggered).	
<p>5.4.7 As a practical expedient, an entity shall apply paragraph B5.4.5 to account for a change in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a financial asset or financial liability that is requir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This practical expedient applies only to such changes and only to the extent the change is requir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see also paragraph 5.4.9). For this purpose, a change in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is requir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if, and only if, both these conditions are met:</p> <p>(a) the change is necessary as a direct consequence of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and</p> <p>(b) the new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is economically equivalent to the previous basis (ie the basis immediately preceding the change).</p>	<p>5.4.7 실무적 간편법으로,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문단 B5.4.5를 적용한다. 실무적 간편법은 이러한 변경에만 적용하고,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의 범위까지만 적용한다 (문단 5.4.9 참조). 이 경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기준의 변경으로 본다.</p> <p>(1)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 변경이 필요하다.</p> <p>(2)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은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하다.</p>
<p>5.4.8 Examples of changes that give rise to a new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that is economically equivalent to the previous basis (ie the basis immediately preceding the change) are:</p>	<p>5.4.8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변경의 예는 다음과 같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i>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p>(a) the replacement of an existing interest rate benchmark used to determine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a financial asset or financial liability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 or the implementation of such a reform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by altering the method used to calculate the interest rate benchmark – with the addition of a fixed spread necessary to compensate for the basis difference between the existing interest rate benchmark and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p> <p>(b) changes to the reset period, reset dates or the number of days between coupon payment dates in order to implement the reform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and</p> <p>(c) the addition of a fallback provision to the contractual terms of a financial asset or financial liability to enable any change described in (a) and (b) above to be implemented.</p>	<p>(1) 기존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간의 기준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고정 스프레드를 추가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할 때 사용한 기존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거나 이자율지표를 계산할 때 사용한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이자율지표의 개혁을 이행한다.</p> <p>(2) 이자율지표의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재설정 기간, 재설정일 또는 액면이자 지급일 사이의 일수를 변경한다.</p> <p>(3) 위 (1)과 (2)에서 기술된 변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에 대체조항을 추가한다.</p>
5.4.9 If changes are made to a financial asset or financial liability in addition to changes to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5.4.9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에 추가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변경이

영문	국문
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i>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flows requir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an entity shall first apply the practical expedient in paragraph 5.4.7 to the changes requir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The entity shall then apply the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Standard to any additional changes to which the practical expedient does not apply. If the additional change does not result in the derecognition of the financial asset or financial liability, the entity shall apply paragraph 5.4.3 or paragraph B5.4.6, as applicable, to account for that additional change. If the additional change results in the derecognition of the financial asset or financial liability, the entity shall apply the derecognition requirements.	이루어진 경우에는 먼저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다. 그 다음 실무적 간편법이 적용되지 않는 추가 변경에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추가 변경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추가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문단 5.4.3이나 문단 B5.4.6을 적용한다. 추가 변경으로 인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제거되는 경우에는 제거 규정을 적용한다.
6.8 Temporary exceptions from applying specific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hr/> End of application ...	제6.8절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적용에 대한 한시적 예외규정 적용 종료 ...
6.8.13 An entity shall prospectively cease applying paragraphs 6.8.7 and 6.8.8 at the earlier of: (a) when changes requir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are made to the non-contractually specified	6.8.13 다음 중 이른 시점에 문단 6.8.7과 6.8.8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1) 문단 6.9.1을 적용하여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가 이자율지표 개혁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때

영문	국문
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i>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p>risk component applying paragraph 6.9.1; or</p> <p>(b) when the hedging relationship in which the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component is designated is discontinued.</p>	<p>(2)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가 지정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p>
<p>6.9 Additional temporary exceptions arising fro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 <hr/> <p>6.9.1 As and when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6.8.4 - 6.8.8 cease to apply to a hedging relationship (see paragraphs 6.8.9 - 6.8.13), an entity shall amend the formal designation of that hedging relationship as previously documented to reflect the changes requir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ie the changes are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5.4.6 - 5.4.8. In this context, the hedge designation shall be amended only to make one or more of these changes:</p> <p>(a) designating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contractually or non-contractually specified) as a hedged</p>	<p>제6.9절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추가된 한시적 예외규정</p> <p>6.9.1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문단 6.8.4~6.8.8의 요구사항 적용을 중단하는 대로(문단 6.8.9~6.8.13 참조),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즉, 이 변경은 문단 5.4.6~5.4.8의 요구사항과 일관됨)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에 문서화된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험회피지정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다.</p> <p>(1) 대체 지표 이자율(계약상 특정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i>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p>risk;</p> <p>(b) amending the description of the hedged item, including the description of the designated portion of the cash flows or fair value being hedged; or</p> <p>(c) amending the description of the hedging instrument</p>	<p>(2)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 포함)을 수정</p> <p>(3)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기술을 수정</p>
<p>6.9.2 An entity also shall apply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6.9.1(c) if these three conditions are met:</p> <p>(a) the entity makes a change requir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using an approach other than changing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the hedging instrument (as described in paragraph 5.4.6);</p> <p>(b) the original hedging instrument is not derecognised; and</p> <p>(c) the chosen approach is economically equivalent to changing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the original hedging</p>	<p>6.9.2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문단 6.9.1(3)의 요구사항도 적용한다.</p> <p>(1)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문단 5.4.6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이 아닌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되는 변경을 한다.</p> <p>(2) 최초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되지 않는다.</p> <p>(3) 선택된 접근법은 최초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등하다(문단 5.4.7과 5.4.8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i>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instrument (as described in paragraphs 5.4.7 and 5.4.8).	
6.9.3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6.8.4 - 6.8.8 may cease to apply at different times. Therefore, in applying paragraph 6.9.1, an entity may be required to amend the formal designation of its hedging relationships at different times, or may be required to amend the formal designation of a hedging relationship more than once. When, and only when, such a change is made to the hedge designation, an entity shall apply paragraphs 6.9.7 - 6.9.12 as applicable. An entity also shall apply paragraph 6.5.8 (for a fair value hedge) or paragraph 6.5.11 (for a cash flow hedge) to account for any changes in the fair value of the hedged item or the hedging instrument.	6.9.3 문단 6.8.4~6.8.8의 요구사항은 서로 다른 시점에 적용이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문단 6.9.1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시점에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해야 하거나 여러 번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위험회피지정에 그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문단 6.9.7~6.9.12를 적용한다. 또한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문단 6.5.8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경우) 또는 문단 6.5.11(현금흐름 위험회피의 경우)도 적용한다.
6.9.4 An entity shall amend a hedging relationship as required in paragraph 6.9.1 by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during which a change requir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is made to the hedged risk, hedged item or hedging instrument. For the avoidance	6.9.4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변경이 이루어진 보고기간말까지 문단 6.9.1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한다. 의문의 여지 없이,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거나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문	국문
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i>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of doubt, such an amendment to the formal designation of a hedging relationship constitutes neither the discontinua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 nor the designation of a new hedging relationship.	
6.9.5 If changes are made in addition to those changes requir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to the financial asset or financial liability designated in a hedging relationship (as described in paragraphs 5.4.6 - 5.4.8) or to the designa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 (as required by paragraph 6.9.1), an entity shall first apply the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Standard to determine if those additional changes result in the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 If the additional changes do not result in the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 an entity shall amend the formal designa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 as specified in paragraph 6.9.1.	6.9.5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대한 변경(문단 5.4.6~5.4.8에서 기술한 바와 같음) 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대한 변경(문단 6.9.1에서 요구된 바와 같음)에 추가하여 이루어진 변경이 있는 경우, 이러한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 기준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먼저 적용한다.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문단 6.9.1에 명시된 것과 같이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한다.
6.9.6 Paragraphs 6.9.7 - 6.9.13 provide exceptions to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those paragraphs only. An entity shall apply all other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this Standard,	6.9.6 문단 6.9.7~6.9.13에서는 이들 문단에서만 명시된 요구사항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위험회피관계에 이 기준서의 다른 모든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문단 6.4.1의 위험회피

영문	국문
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i>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including the qualifying criteria in paragraph 6.4.1, to hedging relationships that were directly affect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관계에 대한 적용조건을 포함)을 적용한다.
Accounting for qualifying hedging relationships Cash flow hedges 6.9.7 For the purpose of applying paragraph 6.5.11, at the point when an entity amends the description of a hedged item as required in paragraph 6.9.1(b), the amount accumulated in the cash flow hedge reserve shall be deemed to be based o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on which the hedged future cash flows are determined.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 현금흐름위험회피 6.9.7 문단 6.5.11을 적용하기 위해, 문단 6.9.1(2)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을 수정할 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된다.
6.9.8 For a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 when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future cash flows had been based is changed as requir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for the purpose of applying paragraph 6.5.12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hedged future cash flows are expected to occur, the amount accumulated in the cash flow hedge reserve for that hedging relationship shall be	6.9.8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기초했던 이자율지표가 변경될 때,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문단 6.5.12를 적용하는 목적으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의 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의 기초가 될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된다.

영문	국문
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i>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deemed to be based o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on which the hedged future cash flows will be based.	
Groups of items	항목 집합
<p>6.9.9 When an entity applies paragraph 6.9.1 to groups of items designated as hedged items in a fair value or cash flow hedge, the entity shall allocate the hedged items to subgroups based on the benchmark rate being hedged and designate the benchmark rate as the hedged risk for each subgroup. For example, in a hedging relationship in which a group of items is hedged for changes in an interest rate benchmark subject to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the hedged cash flows or fair value of some items in the group could be changed to reference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before other items in the group are changed. In this example, in applying paragraph 6.9.1, the entity would designate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as the hedged risk for that</p>	<p>6.9.9 공정가치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에 문단 6.9.1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위험회피되는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하부 집합에 배분하고, 그 지표 이자율을 각 하부 집합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지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자율지표의 변동에 대해 항목 집합이 위험회피되는 위험회피관계에서, 집합 항목 중 일부의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는, 그 집합 내의 다른 항목이 변동하기 전에 대체 지표 이자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 사례에 문단 6.9.1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 중 관련되는 그 하부집합에 대한 회피대상위험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가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변경되거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만료되어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대체될 때까지, 기존 이자율지표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다른 하부 집합에 대한 회피대상위험으로 계속하여 지정할 것이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i>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relevant subgroup of hedged items. The entity would continue to designate the existing interest rate benchmark as the hedged risk for the other subgroup of hedged items until the hedged cash flows or fair value of those items are changed to reference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or the items expire and are replaced with hedged items that reference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6.9.10 An entity shall assess separately whether each subgroup meets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 6.6.1 to be an eligible hedged item. If any subgroup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 6.6.1, the entity shall discontinue hedge accounting prospectively for the hedging relationship in its entirety. An entity also shall apply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6.5.8 and 6.5.11 to account for ineffectiveness related to the hedging relationship in its entirety.	6.9.10 각 하부 집합이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되기 위한 문단 6.6.1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별도로 평가한다. 하부 집합들 중 일부가 문단 6.6.1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또한, 전체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비효과성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문단 6.5.8과 6.5.11의 요구사항도 적용한다.
Designation of risk components	위험 구성요소의 지정
6.9.11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designated as a	6.9.11 지정일 현재 별도로 식별할 수 없으나(문단 6.3.7(1)과 B6.3.8 참조) 계약

영문	국문
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i>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p>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component that is not separately identifiable (see paragraphs 6.3.7(a) and B6.3.8) at the date it is designated shall be deemed to have met that requirement at that date, if, and only if, the entity reasonably expects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will be separately identifiable within 24 months. The 24-month period applies to each alternative benchmark rate separately and starts from the date the entity designates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component for the first time (ie the 24-month period applies on a rate-by-rate basis).</p>	<p>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된 대체 지표 이자율은, 24개월 이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그 날에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4개월의 기간은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별도로(즉, 24개월의 기간은 각 각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처음 지정한 날부터 기산한다.</p>
<p>6.9.12 If subsequently an entity reasonably expects that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will not be separately identifiable within 24 months from the date the entity designated it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component for the first time, the entity shall cease applying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6.9.11 to that alternative benchmark rate and discontinue</p>	<p>6.9.12 후속적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처음 지정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그 대체 지표 이자율에 문단 6.9.11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한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를 그 재평가일부터 전진적으로 중단한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i>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p>hedge accounting prospectively from the date of that reassessment for all hedging relationships in which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was designated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component.</p>	
<p>6.9.13 In addition to those hedging relationships specified in paragraph 6.9.1, an entity shall apply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6.9.11 and 6.9.12 to new hedging relationships in whic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is designated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component (see paragraphs 6.3.7(a) and B6.3.8) when, because of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that risk component is not separately identifiable at the date it is designated.</p>	<p>6.9.13 문단 6.9.1에 명시된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에 추가하여, 지정일 현재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위험 구성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없을 때,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6.9.11과 6.9.12를 적용한다(문단 6.3.7(1)과 B6.3.8 참조).</p>
<p>7.1 Effective date</p> <hr/> <p>...</p> <p>7.1.10 <i>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i>, which amended IFRS 9, IAS 39, IFRS 7, IFRS 4 and IFRS 16, issued in August 2020, added paragraphs 5.4.5 – 5.4.9, 6.8.13, Section 6.9 and paragraphs 7.2.43 – 7.2.46. An entity shall apply these</p>	<p>제7.1절 시행일</p> <p>...</p> <p>7.1.10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제1107호, 제1104호, 제1116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02X년 X월 공포)에 따라 문단 5.4.5~5.4.9, 문단 6.8.13, 제6.9절, 문단 7.2.43~7.2.46이 추가되었다. 이 개</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i>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amendments for annual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1.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If an entity applies these amendments for an earlier period, it shall disclose that fact.	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7.2 Transition <hr/> <p>...</p> <p>Transition for <i>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i></p>	<p>제7.2절 경과규정</p> <p>...</p> <p>‘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에 대한 경과규정</p>
7.2.43 An entity shall apply <i>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i> retrospectively in accordance with IAS 8, except as specified in paragraphs 7.2.44 - 7.2.46.	7.2.43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 다만 문단 7.2.44~7.2.46에서 정한 규정은 제외한다.
7.2.44 An entity shall designate a new hedging relationship (for example, as described in paragraph 6.9.13) only prospectively (ie an entity is prohibited from designating a new hedge accounting relationship in prior periods). However, an entity shall reinstate a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 if, and only if, these conditions are met: (a) the entity had discontinued that hedging relationship solely due to changes requir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and the entity would not have been required to discontinue that hedging relationship if these amendments had been applied	7.2.44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예: 문단 6.9.13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음)는 전진적으로만 지정한다(즉, 과거 기간에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관계를 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단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한다. (1)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만므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였고, 이 개정 내용이 그 시점에 적용되었다면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영문	국문
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i>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p>at that time; and</p> <p>(b) at the beginning of the reporting period in which an entity first applies these amendments (date of initial application of these amendments), that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 meets the qualifying criteria for hedge accounting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se amendments).</p>	<p>(2) 이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시점(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에, (개정 내용을 고려한다면) 중단한 위험회피 관계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p>
<p>7.2.45 If, in applying paragraph 7.2.44, an entity reinstates a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 the entity shall read references in paragraphs 6.9.11 and 6.9.12 to the date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is designated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component for the first time as referring to the date of initial application of these amendments (ie the 24-month period for that alternative benchmark rate designated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component begins from the date of initial application of these amendments).</p>	<p>7.2.45 문단 7.2.44를 적용하여 중단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는 경우, 문단 6.9.11과 6.9.12에서 언급하는 대체 지표 이자율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최초 지정된 날을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즉,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24개월 기간은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 부터 기산한다).</p>
<p>7.2.46 An entity is not required to restate prior periods to reflect the application of these amendments. The entity may restate prior periods if, and only if, it is possible without the use of hindsight. If an entity does not restate prior periods, the entity shall recognise any difference</p>	<p>7.2.46 이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후 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종전 장부금액과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기간 시작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최</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i>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between the previous carrying amount and the carrying amount at the beginning of the annual reporting period that includes the date of initial application of these amendments in the opening retained earnings (or other component of equity, as appropriate) of the annual reporting period that includes the date of initial application of these amendments.	초 적용일이 포함된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으로 인식한다.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영문 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i>	국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p>Amendments to IAS 39 <i>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i></p> <p>Paragraph 102M is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p> <p>Paragraphs 102O - 102Z3 and 108H - 108K are added. A heading is added before paragraph 102P and subheadings are added before paragraphs 102P, 102V, 102Y and 102Z1. For ease of reading these paragraphs have not been underlined.</p> <p>Temporary exceptions from applying specific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p> <p>End of application</p> <p>102M An entity shall prospectively cease applying paragraph 102G to a hedging relationship at the earlier of:</p> <p>(a) when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is no longer present with respect</p>	<p>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개정</p> <p>문단 102M은 개정되었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문단 102O~102Z3, 108H~108K가 추가되었다. 문단 102P 앞에 제목이 추가되었고, 문단 102P, 102V, 102Y, 102Z1 앞에 소제목이 추가되었다. 읽기 쉽도록 이 문단들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p> <p>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적용에 대한 한시적 예외규정</p> <p>적용 종료</p> <p>102M 다음 중 이른 시점에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문단 102G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p> <p>(1)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회피대상위험과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i>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p>to the hedged risk and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of the hedged item <u>or</u> and of the hedging instrument; and</p> <p>(b) when the hedging relationship to which the exception is applied is discontinued</p>	<p>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p> <p>(2) 이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p>
<p>102O An entity shall prospectively cease applying paragraphs 102H and 102I at the earlier of:</p> <p>(a) when changes requir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are made to the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portion applying paragraph 102P; or</p> <p>(b) when the hedging relationship in which the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portion is designated is discontinued.</p>	<p>102O 다음 중 이른 시점에 문단 102H와 문단 102I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p> <p>(1) 문단 102P를 적용하여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이 이자율 지표 개혁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때</p> <p>(2)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이 지정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p>
<p>Additional temporary exceptions arising fro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 <p>Hedge accounting</p> <p>102P As and when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102D - 102I cease to apply to a hedging relationship (see paragraphs 102J - 102O), an entity shall amend the formal designation of that hedging</p>	<p>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추가된 한시적 예외규정</p> <p>위험회피회계</p> <p>102P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문단 102D~102I의 요구사항 적용을 중단하는 대로(문단 102J~102O 참조),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즉, 이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6~5.4.8의 요구사항과 일관됨)을 반영하</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i>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p>relationship as previously documented to reflect the changes requir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ie the changes are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5.4.6 - 5.4.8 of IFRS 9. In this context, the hedge designation shall be amended only to make one or more of these changes:</p> <p>(a) designating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contractually or non-contractually specified) as a hedged risk;</p> <p>(b) amending the description of the hedged item, including the description of the designated portion of the cash flows or fair value being hedged;</p> <p>(c) amending the description of the hedging instrument; or</p> <p>(d) amending the description of how the entity will assess hedge effectiveness.</p>	<p>기 위해 과거에 문서화된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험회피지정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다.</p> <p>(1) 대체 지표 이자율(계약상 특정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p> <p>(2)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 포함)을 수정</p> <p>(3)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기술을 수정</p> <p>(4) 위험회피 효과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을 수정</p>
<p>102Q An entity also shall apply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102P(c) if these three conditions are met:</p> <p>(a) the entity makes a change requir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using an approach other than changing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the hedging instrument (as described in paragraph 5.4.6 of IFRS 9);</p> <p>(b) the original hedging instrument is</p>	<p>102Q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문단 102P(3)의 요구사항도 적용한다.</p> <p>(1)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6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이 아닌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한다.</p> <p>(2) 최초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되지 않는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i>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p>not derecognised; and</p> <p>(c) the chosen approach is economically equivalent to changing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the original hedging instrument (as described in paragraphs 5.4.7 and 5.4.8 of IFRS 9).</p>	<p>(3) 선택된 접근법은 최초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등하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7과 5.4.8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p>
<p>102R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102D - 102I may cease to apply at different times. Therefore, applying paragraph 102P, an entity may be required to amend the formal designation of its hedging relationships at different times, or may be required to amend the formal designation of a hedging relationship more than once. When, and only when, such a change is made to the hedge designation, an entity shall apply paragraphs 102V - 102Z2 as applicable. An entity also shall apply paragraph 89 (for a fair value hedge) or paragraph 96 (for a cash flow hedge) to account for any changes in the fair value of the hedged item or the hedging instrument.</p>	<p>102R 문단 102D~102I의 요구사항은 서로 다른 시점에 적용이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문단 102P를 적용할 때, 기업은 서로 다른 시점에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해야 하거나 여러 번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위험회피지정에 그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문단 102V~102Z2를 적용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문단 89(공정가치 위험회피의 경우) 또는 문단 96(현금흐름 위험회피의 경우)도 적용한다.</p>
<p>102S An entity shall amend a hedging relationship as required in paragraph 102P by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during which a change requir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is made to the hedged risk, hedged item or hedging instru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t, such an</p>	<p>102S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변경이 이루어진 보고기간말까지 문단 102P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한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거나 새로운 위</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i>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p>amendment to the formal designation of a hedging relationship constitutes neither the discontinua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 nor the designation of a new hedging relationship.</p>	<p>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p>
<p>102T If changes are made in addition to those changes requir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to the financial asset or financial liability designated in a hedging relationship (as described in paragraphs 5.4.6 - 5.4.8 of IFRS 9) or to the designa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 (as required by paragraph 102P), an entity shall first apply the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Standard to determine if those additional changes result in the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 If the additional changes do not result in the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 an entity shall amend the formal designa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 as specified in paragraph 102P.</p>	<p>102T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대한 변경(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6~5.4.8에서 기술한 바와 같음) 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대한 변경(문단 102P에서 요구된 바와 같음)에 추가하여 이루어진 변경이 있는 경우, 이러한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 기준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먼저 적용한다.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문단 102P에 명시된 것과 같이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한다.</p>
<p>102U Paragraphs 102V - 102Z3 provide exceptions to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those paragraphs only. An entity shall apply all other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this Standard, including the qualifying criteria in paragraph 88, to hedging relationships that were directly affect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	<p>102U 문단 102V~102Z3에서는 이들 문단에서만 명시된 요구사항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위험회피관계에 이 기준서의 다른 모든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문단 88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적용조건을 포함)을 적용한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i>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p>Accounting for qualifying hedging relationships</p> <p><i>Retrospective effectiveness assessment</i></p> <p>102V For the purpose of assessing the retrospective effectiveness of a hedging relationship on a cumulative basis applying paragraph 88(e) and only for this purpose, an entity may elect to reset to zero the cumulative fair value changes of the hedged item and hedging instrument when ceasing to apply paragraph 102G as required by paragraph 102M. This election is made separately for each hedging relationship (ie on an individual hedging relationship basis).</p>	<p>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 처리</p> <p>소급적 효과성 평가</p> <p>102V 문단 88(5)를 적용하여 누적기준으로 위험회피관계의 소급적 효과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단 102M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문단 102G 적용을 중단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누적변동을 영(0)으로 재설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각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별도로(즉, 개별 위험회피관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p>
<p>Cash flow hedges</p> <p>102W For the purpose of applying paragraph 97, at the point when an entity amends the description of a hedged item as required in paragraph 102P(b), the cumulative gain or loss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shall be deemed to be based o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on which the hedged future cash flows are determined.</p>	<p>현금흐름위험회피</p> <p>102W 문단 97을 적용하기 위해, 문단 102P (2)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을 수정할 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된다.</p>
<p>102X For a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 when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future cash flows had been based</p>	<p>102X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경우, 이자율 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기초했던 이자율지표가 변경될 때, 위험회피대상</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i>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p>is changed as requir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for the purpose of applying paragraph 101(c)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hedged future cash flows are expected to occur, the amount accumulated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for that hedging relationship shall be deemed to be based o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on which the hedged future cash flows will be based</p>	<p>미래현금흐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문단 101(3)을 적용하는 목적으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의 기초가 될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된다.</p>
<p>Groups of items</p> <p>102Y When an entity applies paragraph 102P to groups of items designated as hedged items in a fair value or cash flow hedge, the entity shall allocate the hedged items to subgroups based on the benchmark rate being hedged and designate the benchmark rate as the hedged risk for each subgroup. For example, in a hedging relationship in which a group of items is hedged for changes in an interest rate benchmark subject to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the hedged cash flows or fair value of some items in the group could be changed to reference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before other items in the group are changed. In this</p>	<p>항목 집합</p> <p>102Y 공정가치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에 문단 102P를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위험회피되는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하부 집합에 배분하고, 그 지표 이자율을 각 하부 집합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지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자율지표의 변동에 대해 항목 집합이 위험회피되는 위험회피관계에서, 집합 항목 중 일부의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는, 그 집합 내의 다른 항목이 변동하기 전에 대체 지표 이자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 사례에 문단 102P를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 중 관련되는 그 하부 집합에 대한 회피대상위험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지정할 수 있을 것이</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i>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p>example, in applying paragraph 102P, the entity would designate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as the hedged risk for that relevant subgroup of hedged items. The entity would continue to designate the existing interest rate benchmark as the hedged risk for the other subgroup of hedged items until the hedged cash flows or fair value of those items are changed to reference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or the items expire and are replaced with hedged items that reference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p>	<p>다.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 또는 공정 가치가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변경되거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만료되어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대체될 때까지, 기존 이자율지표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다른 하부 집합에 대한 회피대상위험으로 계속하여 지정할 것이다.</p>
<p>102Z An entity shall assess separately whether each subgroup meets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78 and 83 to be an eligible hedged item. If any subgroup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78 and 83, the entity shall discontinue hedge accounting prospectively for the hedging relationship in its entirety. An entity also shall apply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89 or 96 to account for ineffectiveness related to the hedging relationship in its entirety.</p>	<p>102Z 각 하부 집합이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되기 위한 문단 78과 83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별도로 평가한다. 하부 집합들 중 일부가 문단 78과 83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또한, 전체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비효과성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문단 89와 96의 요구사항도 적용한다.</p>
<p>Designating financial items as hedged items</p> <p>102Z1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designated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portion that is not separately identifiable (see</p>	<p>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p> <p>102Z1 지정일 현재 별도로 식별할 수 없으나(문단 81과 AG99F 참조)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된 대체 지표 이자율은, 24개월 이내에</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i>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p>paragraphs 81 and AG99F) at the date it is designated shall be deemed to have met that requirement at that date, if, and only if, the entity reasonably expects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will be separately identifiable within 24 months. The 24-month period applies to each alternative benchmark rate separately and starts from the date the entity designates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portion for the first time (ie the 24-month period applies on a rate-by-rate basis).</p>	<p>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그 날에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4개월의 기간은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별도로(즉, 24개월의 기간은 각각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처음 지정한 날부터 기산한다.</p>
<p>102Z2 If subsequently an entity reasonably expects that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will not be separately identifiable within 24 months from the date the entity designated it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portion for the first time, the entity shall cease applying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102Z1 to that alternative benchmark rate and discontinue hedge accounting prospectively from the date of that reassessment for all hedging relationships in which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was designated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portion.</p>	<p>102Z2 후속적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처음 지정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그 대체 지표 이자율에 문단 102Z1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한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를 그 재평가일부터 전진적으로 중단한다.</p>
<p>102Z3 In addition to those hedging relationships specified in paragraph 102P, an entity shall</p>	<p>102Z3 문단 102P에 명시된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에 추가하여, 지정일 현재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위험 부분을</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i>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p>apply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102Z1 and 102Z2 to new hedging relationships in whic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is designated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portion (see paragraphs 81 and AG99F) when, because of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that risk portion is not separately identifiable at the date it is designated.</p>	<p>별도로 식별할 수 없을 때,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102Z1과 102Z2를 적용한다(문단 81과 AG99F 참조).</p>
<p>Effective date and transition</p> <hr/> <p>...</p> <p>108H <i>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i>, which amended IFRS 9, IAS 39, IFRS 7, IFRS 4 and IFRS 16, issued in August 2020, added paragraphs 102O - 102Z3 and 108I - 108K, and amended paragraph 102M. An entity shall apply these amendments for annual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1.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If an entity applies these amendments for an earlier period, it shall disclose that fact. An entity shall apply these amendments retrospectively in accordance with IAS 8, except as specified in paragraphs 108I - 108K.</p>	<p>시행일과 경과규정</p> <hr/> <p>...</p> <p>108H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107호, 제1104호, 제1116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020년 12월 공표)에 따라 문단 102O~102Z3, 108I~108K가 추가되었고, 문단 102M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 다만 문단 108I~108K에서 정한 규정은 제외한다.</p>
<p>108I An entity shall designate a new hedging relationship (for example, as described in paragraph 102Z3)</p>	<p>108I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예: 문단 102Z3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음)는 전진적으로만 지정한다(즉, 과거 기간에 새로운</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i>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p>only prospectively (ie an entity is prohibited from designating a new hedge accounting relationship in prior periods). However, an entity shall reinstate a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 if, and only if, these conditions are met:</p> <p>(a) the entity had discontinued that hedging relationship solely due to changes requir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and the entity would not have been required to discontinue that hedging relationship if these amendments had been applied at that time; and</p> <p>(b) at the beginning of the reporting period in which an entity first applies these amendments (date of initial application of these amendments), that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 meets the qualifying criteria for hedge accounting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se amendments).</p>	<p>위험회피회계 관계를 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단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한다.</p> <p>(1)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만으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였고, 이 개정 내용이 그 시점에 적용되었다면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p> <p>(2) 이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시점(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에, (개정 내용을 고려한다면) 중단한 위험회피관계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p>
<p>108J If, in applying paragraph 108I, an entity reinstates a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 the entity shall read references in paragraphs 102Z1 and 102Z2 to the date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is designated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portion for the first</p>	<p>108J 문단 108I를 적용하여 중단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는 경우, 문단 102Z1과 102Z2에서 언급하는 대체 지표 이자율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최초 지정된 날을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즉, 계약상 특정되</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IFRS 9 <i>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i>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p>time as referring to the date of initial application of these amendments (ie the 24-month period for that alternative benchmark rate designated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portion begins from the date of initial application of these amendments).</p>	<p>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24개월 기간은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부터 기산한다).</p>
<p>108K An entity is not required to restate prior periods to reflect the application of these amendments. The entity may restate prior periods if, and only if, it is possible without the use of hindsight. If an entity does not restate prior periods, the entity shall recognise any difference between the previous carrying amount and the carrying amount at the beginning of the annual reporting period that includes the date of initial application of these amendments in the opening retained earnings (or other component of equity, as appropriate) of the annual reporting period that includes the date of initial application of these amendments.</p>	<p>108K 이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후 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종전 장부금액과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기간 시작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최초 적용일이 포함된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으로 인식한다.</p>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영문 Amendments to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개정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p>Amendments to IFRS 7 <i>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i></p> <p>Paragraphs 24I - 24J and 44GG - 44HH are added and a subheading is added before paragraph 24I. For ease of reading these paragraphs have not been underlined.</p> <p>Other disclosures</p> <p>...</p> <p>Additional disclosures related to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 <p>24I To enable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o understand the effect of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on an entity's financial instruments and risk management strategy, an entity shall disclose information about:</p> <p>(a) the nature and extent of risks to which the entity is exposed arising from financial instruments subject to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and how the entity manages these risks; and</p> <p>(b) the entity's progress in completing the transition to alternative benchmark</p>	<p>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p> <p>문단 24I~24J와 44GG~44HH를 추가하였고, 문단 24I 앞에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들 문단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p> <p>그 밖의 공시</p> <p>...</p> <p>이자율지표 개혁에 관한 추가 공시</p> <p>24I 이자율지표 개혁이 기업의 금융상품과 위험관리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p> <p>(1) 이자율지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에 기업이 노출된 경우 그 위험의 특성과 범위, 그리고 기업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p> <p>(2)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 진척도, 그리고 이러한 전환을 관리하는 방법</p>

영문	개정안
Amendments to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p>rates, and how the entity is managing the transition.</p>	
<p>24J To meet the objectives in paragraph 24I, an entity shall disclose:</p> <p>(a) how the entity is managing the transition to alternative benchmark rates, its progress at the reporting date and the risks to which it is exposed arising from financial instruments because of the transition;</p> <p>(b) disaggregated by significant interest rate benchmark subject to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quantitative information about financial instruments that have yet to transition to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as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showing separately:</p> <p>(i) non-derivative financial assets;</p> <p>(ii) non-derivative financial liabilities; and</p> <p>(iii) derivatives; and</p> <p>(c) if the risks identified in paragraph 24J(a) have resulted in changes to an entity's risk management strategy (see paragraph 22A), a description of these changes.</p>	<p>24J 문단 24I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p> <p>(1)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을 관리하는 방법과 보고일 현재 그 진척도, 그리고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금융상품에 노출된 위험</p> <p>(2) 이자율지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유의적인 이자율지표별로 세분화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한 양적 정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한다.</p> <p>(가) 비파생금융자산</p> <p>(나) 비파생금융부채</p> <p>(다) 파생상품</p> <p>(3) 문단 24J(1)에서 식별된 위험으로 기업의 위험관리전략(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22A 참조)이 변동되었다면, 이러한 변동에 대한 설명</p>

영문	개정안
Amendments to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시행일과 경과규정
<p>...</p> <p>44GG <i>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i>, which amended IFRS 9, IAS 39, IFRS 7, IFRS 4 and IFRS 16, issued in August 2020, added paragraphs 24I - 24J and 44HH. An entity shall apply these amendments when it applies the amendments to IFRS 9, IAS 39, IFRS 4 or IFRS 16.</p>	<p>...</p> <p>44GG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4호, 제1116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020년 12월 공표)에 따라 문단 24I~24J와 문단 44HH가 추가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4호, 제1116호의 개정내용을 적용할 때 이 기준서의 개정내용을 적용한다.</p>
<p>44HH In the reporting period in which an entity first applies <i>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i>, an entity is not required to disclose the information that would otherwise be required by paragraph 28(f) of IAS 8.</p>	<p>44HH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를 기업이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6)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p>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

영문	개정안
Amendments to IFRS IFRS 4 Insurance Contrac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개정
<p>Amendments to IFRS 4 Insurance Contracts</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Paragraphs 20R - 20S and paragraphs 50 - 51 are added. A subheading is added before paragraph 20R. For ease of reading these paragraphs have not been underlined.</p> </div>	<p>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의 개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문단 20R~20S와 문단 50~51을 추가하였다. 문단 20R 앞의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편하도록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p> </div>
Recognition and measurement	인식과 측정
<p>...</p> <p>Changes in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as a result of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 <p>20R An insurer applying the temporary exemption from IFRS 9 shall apply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5.4.6-5.4.9 of IFRS 9 to a financial asset or financial liability if, and only if,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that financial asset or financial liability changes as a result of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For this purpose, the ter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refers to the market-wide reform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as described in paragraph 102B of IAS 39.</p>	<p>...</p> <p>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p> <p>20R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보험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6~5.4.9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102B에 기술된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을 말한다.</p>

영문	개정안
Amendments to IFRS IFRS 4 Insurance Contrac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개정
<p>20S For the purpose of applying paragraphs 5.4.6 - 5.4.9 of the amendments to IFRS 9, the references to paragraph B5.4.5 of IFRS 9 shall be read as referring to paragraph AG7 of IAS 39. References to paragraphs 5.4.3 and B5.4.6 of IFRS 9 shall be read as referring to paragraph AG8 of IAS 39.</p> <p>...</p>	<p>20S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5.4.6~5.4.9를 적용할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4.5의 언급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AG7의 언급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3과 B5.4.6의 언급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AG8의 언급으로 본다.</p> <p>...</p>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시행일과 경과규정
<p>...</p> <p>50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 Phase 2, which amended IFRS 9, IAS 39, IFRS 7, IFRS 4 and IFRS 16, issued in August 2020, added paragraphs 20R - 20S and paragraph 51. An entity shall apply these amendments for annual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1.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If an entity applies these amendments for an earlier period, it shall disclose that fact. An entity shall apply these amendments retrospectively in accordance with IAS 8, except as specified in paragraph 51.</p>	<p>...</p> <p>50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제1116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020년 12월 공표)에 따라 문단 20R~20S와 문단 51이 추가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 개정내용은 문단 51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p>
<p>51 An entity is not required to restate prior periods to reflect the application of these amendments.</p>	<p>51 이 개정 내용의 적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p>

영문	개정안
Amendments to IFRS IFRS 4 Insurance Contrac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개정
<p>The entity may restate prior periods if, and only if, it is possible without the use of hindsight. If an entity does not restate prior periods, the entity shall recognise any difference between the previous carrying amount and the carrying amount at the beginning of the annual reporting period that includes the date of initial application of these amendments in the opening retained earnings (or other component of equity, as appropriate) of the annual reporting period that includes the date of initial application of these amendments.</p>	<p>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종전 장부금액과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기간 시작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이 포함된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인식한다.</p>

K-IFRS 제1116호 '리스'

영문	개정안
Amendments to IFRS 16 Leas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p>Amendments to IFRS 16 <i>Leases</i></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Paragraphs 104 - 106 and paragraphs C1B and C20C - C20D are added. A heading is added before paragraph 104 and a subheading is added before paragraph C20C. For ease of reading these paragraphs have not been underlined.</p> </div> <p>Temporary exception arising fro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 <hr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104 A lessee shall apply paragraphs 105 - 106 to all lease modifications that change the basis for determining future lease payments as a result of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see paragraphs 5.4.6 and 5.4.8 of IFRS 9). These paragraphs apply only to such lease modifications. For this purpose, the ter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refers to the market-wide reform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as described in paragraph 6.8.2 of IFRS 9.</p>	<p>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개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문단 104~106, C1B와 C20C~C20D를 추가하였다. 문단 104 앞에 제목을 추가하였고 문단 C20C 앞에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이 문단들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p> </div> <p>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한시적 예외규정</p> <p>104 리스이용자는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미래 리스료의 산정 기준을 바꾸는 모든 리스변경에 문단 105~106을 적용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6과 5.4.8 참조). 해당 문단은 그러한 리스변경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8.2에 기술된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을 말한다.</p>

영문	개정안
Amendments to IFRS IFRS 16 Leas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p>105 As a practical expedient, a lessee shall apply paragraph 42 to account for a lease modification requir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This practical expedient applies only to such modifications. For this purpose, a lease modification is requir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if, and only if, both of these conditions are met:</p> <p>(a) the modification is necessary as a direct consequence of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and</p> <p>(b) the new basis for determining the lease payments is economically equivalent to the previous basis (ie the basis immediately preceding the modification).</p>	<p>105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문단 42를 적용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을 회계처리한다. 실무적 간편법은 이러한 리스변경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리스변경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것으로 본다.</p> <p>(1)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러한 리스변경이 필요하다.</p> <p>(2) 리스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은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하다.</p>
<p>106 However, if lease modifications are made in addition to those lease modifications requir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a lessee shall apply the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Standard to account for all lease modifications made at the same time, including those requir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 <p>...</p>	<p>106 그러나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에 추가하여 리스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리스이용자는 동시에 이루어진 모든 리스변경(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하는 것을 포함)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적용가능한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p>

영문	개정안
Amendments to IFRS IFRS 16 Leas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Effective date	시행일
...	...
<p>C1B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 which amended IFRS 9, IAS 39, IFRS 7, IFRS 4 and IFRS 16, issued in August 2020, added paragraphs 104–106 and C20C–C20D. An entity shall apply these amendments for annual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1.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If an entity applies these amendments for an earlier period, it shall disclose that fact.</p>	<p>C1B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제1104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020년 12월 공표)에 따라 문단 104~106과 문단 C20C~C20D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p>
Transition	경과 규정
...	...
<p>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p> <p>C20C An entity shall apply these amendments retrospectively in accordance with IAS 8, except as specified in paragraph C20D.</p> <p>C20D An entity is not required to restate prior periods to reflect the application of these amendments. The entity may restate prior periods if, and only if, it is possible without the use of hindsight. If an entity does not restate prior periods, the entity shall recognise any difference between the previous carrying</p>	<p>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p> <p>C20C 이 개정 내용은 문단 C20D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p> <p>C20D 이 개정 내용의 적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종전 장부금액과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기간 시작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개정 내용의 최초 적</p>

영문	개정안
Amendments to IFRS IFRS 16 Leas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amount and the carrying amount at the beginning of the annual reporting period that includes the date of initial application of these amendments in the opening retained earnings (or other component of equity, as appropriate) of the annual reporting period that includes the date of initial application of these amendments.	용일이 포함된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인식한다.

<p>Approval by the Board of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 Phase 2 issued in August 2020</p> <hr/>	<p>‘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제1104호, 제1116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2020년)</p> <hr/>																										
<p><i>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i>, which amended IFRS 9, IAS 39, IFRS 7, IFRS 4 and IFRS 16, was approved for issue by 12 of 13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Board). Mr Gast abstained in view of his recent appointment to the Board.</p> <table border="0"> <tr> <td>Hans Hoogervorst</td><td>Chairman</td></tr> <tr> <td>Suzanne Lloyd</td><td>Vice-Chair</td></tr> <tr> <td>Nick Anderson</td><td></td></tr> <tr> <td>Tadeu Cendon</td><td></td></tr> <tr> <td>Martin Edelmann</td><td></td></tr> <tr> <td>Françoise Flores</td><td></td></tr> <tr> <td>Zach Gast</td><td></td></tr> <tr> <td>Jianqiao Lu</td><td></td></tr> <tr> <td>Darrel Scott</td><td></td></tr> <tr> <td>Thomas Scott</td><td></td></tr> <tr> <td>Rika Suzuki</td><td></td></tr> <tr> <td>Ann Tarca</td><td></td></tr> <tr> <td>Mary Tokar</td><td></td></tr> </table>	Hans Hoogervorst	Chairman	Suzanne Lloyd	Vice-Chair	Nick Anderson		Tadeu Cendon		Martin Edelmann		Françoise Flores		Zach Gast		Jianqiao Lu		Darrel Scott		Thomas Scott		Rika Suzuki		Ann Tarca		Mary Tokar		<p>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제1104호, 제1116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0년)</p> <p>‘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4호 ‘보험계약’, 제1116호 ‘리스’의 개정(2020.12.18.)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p> <p>회계기준위원회 위원:</p> <p>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기화, 이경호, 이명곤</p>
Hans Hoogervorst	Chairman																										
Suzanne Lloyd	Vice-Chair																										
Nick Anderson																											
Tadeu Cendon																											
Martin Edelmann																											
Françoise Flores																											
Zach Gast																											
Jianqiao Lu																											
Darrel Scott																											
Thomas Scott																											
Rika Suzuki																											
Ann Tarca																											
Mary Tokar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제1104호, 제1116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2020년)**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 which amended IFRS 9, IAS 39, IFRS 7, IFRS 4 and IFRS 16, was approved for issue by 12 of 13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Board). Mr Gast abstained in view of his recent appointment to the Board.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제1104호, 제1116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0년)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기업회계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
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
시’, 제1104호 ‘보험계약’, 제1116호 ‘리스’의
개정(2020.12.18.)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기화, 이경호,
이명곤

결론도출근거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This Basis for Conclusions accompanies, but is not part of, IFRS 9.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div>Paragraphs BC5.287 - BC5.320, BC6.604 - BC6.660 and BC7.86 - BC7.99 are added. Headings are added before paragraphs BC5.287, BC6.604 and BC7.86. For ease of reading new text is not underlined</div>	<div>문단 BC5.287~BC5.320, BC6.604~BC6.660, BC7.86~BC7.99를 추가하였다. 문단 BC5.287, BC6.604 및 BC7.86 앞에 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div>
Measurement (Chapter 5)	측정(5장)
...	...
Amendments for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 (August 2020)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개정(2020년 8월)
Background	배경
BC5.287 In 2014,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recommended the reform of specified major interest rate benchmarks such as interbank offered rates (IBORs). Since then, public authorities in many jurisdictions have taken steps to	BC5.287 2014년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은행간 대출금리(IBORs: Interbank offered rates)와 같은 주요 이자율지표의 개혁을 권고하였다. 그 이후, 많은 국가의 공적 기관에서는 이자율지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implement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and have increasingly encouraged market participants to ensure timely progress towards the reform of interest rate benchmarks, including the replacement of interest rate benchmarks with alternative, nearly risk-free interest rates that are based, to a greater extent, on transaction data (alternative benchmark rates). The progress towards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follows the general expectation that some major interest rate benchmarks will cease to be published by the end of 2021. The ter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refers to the market-wide reform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as described in paragraph 6.8.2 of IFRS 9 (the reform).</p>	<p>표 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이자율지표를 대신하여 많은 거래 데이터에 기반하고 위험이 거의 없는 대체 이자율(대체 지표 이자율)로 상당 부분 대체하는 등 이자율지표 개혁을 위하여 시기적절한 진전을 시장참여자에게 장려하였다. 이자율지표 개혁이 진전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2021년 말까지 일부 주요 이자율 지표가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IFRS 9 문단 6.8.2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개혁')을 말한다.</p>
<p>BC5.288 In September 2019 the IASB amended IFRS 9, IAS 39 and IFRS 7, to address as a priority issues affecting financial reporting in the period before the reform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including the replacement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Phase 1 amendments). The Phase 1 amendments provide temporary exceptions to specific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due to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p>	<p>BC5.288 2019년 9월 IASB는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자율지표의 개혁 이전 기간의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루기 위해 IFRS 9, IAS 39와 IFRS 7을 개정하였다(1단계 개정). 1단계 개정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한시적 예외규정을 제공한다. 문단 BC6.546~BC6.603에서 1단계 개정의 배경을 논의한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reform. Paragraphs BC6.546 - BC6.603 discuss the background to the Phase 1 amendments.	
BC5.289 After the issuance of the Phase 1 amendments, the IASB commenced its Phase 2 deliberations. In Phase 2 of its project on the reform, the IASB addressed issues that might affect financial reporting during the reform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including changes to contractual cash flows or hedging relationships arising from the replacement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replacement issues).	BC5.289 1단계 개정을 공표한 후, IASB는 2단계 심의를 시작하였다. IASB는 개혁에 관한 2단계 과제에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이슈(‘대체 이슈’)에서 발생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이나 위험회피관계의 변경을 포함하여 이자율지표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를 다루었다.
BC5.290 The objective of Phase 2 is to assist entities in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and to support preparers in applying IFRS Standards when changes are made to contractual cash flows or hedging relationships because of the transition to alternative benchmark rates. The IASB observed that for information about the effects of the transition to alternative benchmark rates to be useful, the information has to be relevant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and faithfully	BC5.290 2단계의 목적은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됨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이나 위험회피관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IFRS를 적용하는 재무제표 작성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IASB는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것의 영향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해야 하며 그 전환이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목적은 IASB가 IFRS를 개정해야 하는지 또는 IFRS의 요구사항이 이미 그러한 영향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근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represent the economic effects of that transition on the entity. This objective assisted the IASB in assessing whether it should amend IFRS Standards or whether the requirements in IFRS Standards already provided an adequate basis to account for such effects.	거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BC5.291 In April 2020 the IASB published the Exposure Draft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 (2020 Exposure Draft), which proposed amendments to specific requirements in IFRS 9, IAS 39, IFRS 7, IFRS 4 and IFRS 16 Leases to address replacement issues.	BC5.291 2020년 4월 IASB는 대체 이슈를 다루기 위해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2020년 공개초안)’를 발표하였다.
BC5.292 Almost all respondents to the 2020 Exposure Draft welcomed the IASB’s decision to address replacement issues and agreed that the proposed amendments would achieve the objective of Phase 2. Many respondents highlighted the urgency of these amendments, especially in some jurisdictions that have progressed towards the reform or the replacement of interest rate benchmarks with alternative benchmark rates.	BC5.292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의 대부분은 대체 이슈를 다루기로 한 IASB의 결정을 환영하였고, 이 개정이 2단계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 개정이 긴급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이자율지표를 개혁하거나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데 진전이 있는 일부 국가의 의견제출자들이 그러하였다.
BC5.293 In August 2020 the IASB amended IFRS 9, IAS 39, IFRS 7, IFRS 4 and IFRS 16 by issuing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 (Phase 2 amendments).	BC5.293 2020년 8월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단계 개정)를 발표하여 IFRS 9, IAS 39, IFRS 7, IFRS 4와 IFRS 16을 개정하였다. 2020년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일부 변경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The Phase 2 amendments, which confirmed with modifications the proposals in the 2020 Exposure Draft, added paragraphs 5.4.5 - 5.4.9, 6.8.13, Section 6.9 and paragraphs 7.1.10 and 7.2.43 - 7.2.46 to IFRS 9.</p>	<p>하여 확정된 2단계 개정에서 IFRS 9에 문단 5.4.5~5.4.9, 6.8.13, 6.9절, 문단 7.1.10, 7.2.43~7.2.46을 추가하였다.</p>
<p>Changes in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 arising from the reform</p> <p>BC5.294 The IASB was informed that changes to financial assets or financial liabilities arising from the reform could be made in different ways. Specifically, entities may change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a financial instrument b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amending the contractual terms of a financial asset or a financial liability to replace the referenced interest rate benchmark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b) altering the method for calculating the interest rate benchmark without amending the contractual terms of the financial instrument; and/or (c) triggering the activation of an existing contractual term such as a fallback clause. 	<p>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p> <p>BC5.294 IASB는 개혁으로 인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변경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조하는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기 위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을 변경한다. (2)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이자율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을 변경한다. (3) 대체조항(fallback clause)과 같은 기존 계약 조건의 활성화를 유발한다.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BC5.295 To meet the objective described in paragraph BC5.290, the IASB concluded that the scope of the Phase 2 amendments in paragraphs 5.4.5 - 5.4.9 of IFRS 9 should include all changes to a financial asset or financial liability as a result of the reform, regardless of the legal form triggering those changes. In each situation outlined in paragraph BC5.294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a financial instrument changes as a result of the reform. Therefore, for the purpose of the Phase 2 amendments, the IASB collectively refers to these changes as ‘changes in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a financial asset or a financial liability’</p>	<p>BC5.295 IASB는 문단 BC5.290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IFRS 9 문단 5.4.5 ~5.4.9의 2단계 개정의 적용범위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변경을 유발하는 법적 형식에 관계없이, 개혁의 결과로 인한 모든 변경을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5.294에 설명된 각 상황에서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된다. 따라서 IASB는 2단계 개정의 목적상 이러한 변경을 총칭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이라고 말한다.</p>
<p><i>What constitutes ‘a change in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a financial asset or a financial liability’</i></p>	<p>무엇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을 구성하는가?</p>
<p>BC5.296 In the IASB’s view, determining whether a change in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a financial instrument has occurred will be straightforward in most cases, for example, when the contractual terms of a financial instrument</p>	<p>BC5.296 IASB는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도록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간단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금융상품을 최</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are amended to replace the interest rate benchmark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However, it may be less straightforward if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changes after the initial recognition of the financial instrument, without an amendment to the contractual terms of that financial instrument – for example, when, to effect the reform, the method for calculating the interest rate benchmark is altered. Although the contractual terms of the financial instrument may not be amended, such a change in the method for calculating the interest rate benchmark may change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that financial instrument compared to the prior basis (ie the basis immediately preceding the change).</p>	<p>초 인식한 이후 금융상품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예: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이자율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을 변경)된다면 이는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비록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은 변경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자율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p>
<p>BC5.297 The IASB noted that paragraph 5.4.3 of IFRS 9 refers to the ‘modification or renegotiation of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a financial asset, while paragraph 3.3.2 of IFRS 9 refers to the ‘modification of the terms’ of an existing financial liability. The IASB noted that although these paragraphs use different words, both refer to a change in the contractual cash flows or</p>	<p>BC5.297 IASB는 IFRS 9의 문단 5.4.3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이나 재협상’을 언급하는 반면, IFRS 9의 문단 3.3.2는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의 변경’을 언급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들 문단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만, 둘 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계약상 현금흐름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언급한다. 두 경우 모두 최초</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contractual terms after the initial recognition of the financial instrument. In both cases, such a change was not specified or considered in the contract at initial recognition.	인식시점에 계약에서 이러한 변경을 특정하거나 고려하지 않았다.
BC5.298 The IASB considered that if the amendments in paragraphs 5.4.6 - 5.4.9 of IFRS 9 applied only to cases in which the contractual terms are amended as a result of the reform, the form rather than the substance of the change would determine the appropriate accounting treatment. This could cause the economic effects of a change in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arising as a result of the reform to be obscured by the form of the change and not reflect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result in changes with equivalent economic effects being accounted for differently.	BC5.298 IASB는 IFRS 9 문단 5.4.6~5.4.9의 개정 내용이 개혁의 결과로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면, 변경의 실질보다는 형식이 적절한 회계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개혁의 결과로 인한 계약상 현금흐름의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변경의 형식에 의해 가려지고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변경을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BC5.299 Consequently, the IASB highlighted that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a financial asset or a financial liability can change even if the contractual terms of the financial instrument are not amended. In the IASB's view, accounting consistently for a change in the basis for	BC5.299 결과적으로, IASB는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IASB는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개혁의 결과로 인한 계약상 현금흐름의 산정 기준의 변경을 일관되게 회계처리하는 것은 이러한 변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arising as a result of the reform, even if the contractual terms of the financial instrument are not amended, would reflect the economic substance of such a change and would therefore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p>	<p>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것이며, 따라서 금융자산의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다.</p>
<p>BC5.300 In addition, as noted in paragraph BC5.294(c), the IASB also learned that some entities may implement the reform through the activation of existing contractual terms, such as fallback provisions. For example, a fallback provision could specify the hierarchy of rates to which an interest rate benchmark would revert in case the existing benchmark rate ceases to exist. The IASB decided these situations—ie revisions to an entity’s estimates of future cash payments or receipts arising from the activation of existing contractual terms that are required by the reform—should also be within the scope of the Phase 2 amendments. Doing so, avoids differences in accounting outcomes simply because the changes in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p>	<p>BC5.300 문단 BC5.294(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일부 기업은 대체조항과 같은 기존 계약조건의 활성화를 통해 개혁을 이행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대체조항에서 기존 기준금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이자율지표로 삼을 이자율의 서열체계(hierarchy)를 정할 수 있다. IASB는 이러한 상황(즉, 개혁에서 요구된 기존 계약조건의 활성화로 인한 미래 현금 지급이나 수취에 대한 기업의 추정치에 대한 변경)도 2단계 개정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렇게 하면,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이 단지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계약조건이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이 아닌 기존 계약조건의 활성화로 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계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 결과의 다양성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을 감소시키고 재무제표 작성자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flows were triggered by an existing contractual term instead of by a change in the contractual cash flows or contractual terms after the initial recognition of the financial instrument. Such diversity in accounting outcomes would reduce the usefulness of information provided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and would be burdensome to preparers.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
BC5.301 As set out in paragraph 5.4.7 of IFRS 9, the Phase 2 amendments provide a practical expedient that requires entities to apply paragraph B5.4.5 of IFRS 9 to account for changes in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a financial asset or a financial liability that are required by the reform. In reaching that decision, the IASB considered the usefulness of the information that would result from applying the requirements in IFRS 9 that would otherwise apply to these changes.	BC5.301 IFRS 9 문단 5.4.7에서 정한 바와 같이, 2단계 개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IFRS 9 문단 B5.4.5를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한다. IASB는 이 결론을 도출할 때, 실무적 간편법이 없을 경우 이러한 변경에 적용하게 될 IFRS 9의 요구 사항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였다.
BC5.302 In the absence of the practical expedient in paragraph 5.4.7 of IFRS 9, when a financial asset or financial liability is modified, an entity applying IFRS 9 is required to determine whether the modification results in the	BC5.302 IFRS 9 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이 없다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변경할 때, IFRS 9를 적용하는 기업은 그 변경으로 금융상품이 제거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제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변경에 대한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derecognition of the financial instrument. Different accounting for the modification is specified depending on whether derecognition is required. IFRS 9 sets out separate requirements for derecognition of financial assets and derecognition of financial liabilities.</p>	<p>회계처리가 달라진다. IFRS 9는 금융자산의 제거와 금융부채의 제거에 대한 별도의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p>
<p>BC5.303 The IASB noted that, because alternative benchmark rates are intended to be nearly risk-free while many existing interest rate benchmarks are not, it is likely that a fixed spread will be added to compensate for a basis difference between an existing interest rate benchmark and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to avoid a transfer of economic value between the parties to a financial instrument. If these are the only changes made, the IASB considers that it would be unlikely that the transition to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alone would result in the derecognition of that financial instrument.</p>	<p>BC5.303 IASB는 대체 이자율지표는 위험이 거의 없는 반면 기존의 많은 이자율지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의 이전을 피하기 위해 기존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간의 기준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고정 스프레드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변경만 있는 경우, IASB는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것만으로 해당 금융상품이 제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p>
<p>BC5.304 Paragraph 5.4.3 of IFRS 9 applies to modifications of financial assets that do not result in derecognition of those assets. Applying that paragraph, a modification gain or loss is determined by recalculating the gross carrying amount of the financial asset as the present value of the renegotiated or</p>	<p>BC5.304 IFRS 9 문단 5.4.3은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않는 금융자산의 변경에 적용한다. 이 문단을 적용하면, 변경에 따른 손익은 재협상되거나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재계산하여 산정된다. 이에 따른 변경 손익은 변경일에 당기손익</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modified contractual cash flows that are discounted at the financial asset's original effective interest rate. Any resulting modification gain or loss is recognised in profit or loss at the date of the modification. The accounting for other revisions in estimated future contractual cash flows, including modifications of financial liabilities that do not result in the derecognition of those liabilities (see paragraph B5.4.6 of IFRS 9), is consistent with the accounting for modified financial assets that do not result in derecognition¹).</p> <p>1) Paragraph B5.4.6 does not apply to changes in estimates of expected credit losses.</p>	<p>으로 인식한다. 제거가 되지 아니하는 금융부채의 변경을 포함하여, 그 밖의 계약상 현금흐름 추정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는 제거되지 않는 금융자산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관된다(IFRS 9 문단 1) 문단 B5.4.6은 기대신용손실의 추정 변경에 적용하지 않는다. B5.4.6 참조)¹⁾.</p>
<p>BC5.305 Thus, in the absence of the practical expedient in paragraph 5.4.7 of IFRS 9, an entity would generally apply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5.4.3 or B5.4.6 of IFRS 9 to a change required by the reform, by recalculating the carrying amount of a financial instrument with any difference recognised in profit or loss. In addition, an entity would be required to use the original effective interest rate (ie the interest rate benchmark preceding the transition to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to recognise interest revenue or interest</p>	<p>BC5.305 따라서 IFRS 9 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IFRS 9 문단 5.4.3이나 B5.4.6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을 재계산하고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또 금융상품의 남은 기간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인식하기 위하여 최초 유효이자율(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기 이전의 이자율지표)을 사용할 것이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expense over the remaining life of the financial instrument.	
BC5.306 In the IASB's view, in the context of the reform, such an outcome would not necessarily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In reaching this view, the IASB considered a situation in which a financial instrument was amended only to replace an interest rate benchmark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Using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effective interest rate to calculate interest revenue or interest expense over the remaining life in this situation would not reflec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modified financial instrument. Maintaining the original effective interest rate could also be difficult, and perhaps impossible, if that rate is no longer available.	BC5.306 IASB의 견해에 따르면, 개혁의 맥락에서 이러한 결과가 반드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과정에서, IASB는 오로지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기 위해 금융상품이 변경된 상황을 고려하였다. 이 상황에서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변경된 금융상품의 경제적 효과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더 이상 그 유효이자율을 사용할 수 없다면, 최초 유효이자율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아마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BC5.307 The IASB therefore decided that applying the practical expedient, which requires an entity to apply paragraph B5.4.5 of IFRS 9 to account for changes in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 as a result of the reform, would provide more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in circumstances when the changes are limited to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and would be less	BC5.307 따라서 IASB는 변경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으로 제한되는 경우, 개혁의 결과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IFRS 9 문단 B5.4.5를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게 되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단 BC5.306에서 언급한 이유로 재무제표 작성자에게 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burdensome for preparers for the reasons noted in paragraph BC5.306.	
<p>BC5.308 Applying the practical expedient in paragraph 5.4.7 of IFRS 9, an entity would account for a change in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a financial asset or a financial liability required by the reform as being akin to a 'movement in the market rates of interest' applying paragraph B5.4.5 of IFRS 9. As a result, an entity applying the practical expedient to account for a change in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a financial asset or a financial liability that is required by the reform would not apply the derecognition requirements to that financial instrument, and would not apply paragraphs 5.4.3 or B5.4.6 of IFRS 9 to account for the change in contractual cash flows. In other words, changes in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a financial asset or a financial liability that are required by the reform would not result in an adjustment to the carrying amount of the financial instrument or immediate recognition of a gain or loss. The IASB conclud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practical</p>	<p>BC5.308 IFRS 9 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면, 개혁에서 요구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을 IFRS 9 문단 B5.4.5를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의 변동'과 유사하게 회계처리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혁에서 요구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그 금융상품에 제거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IFRS 9 문단 5.4.3이나 B5.4.6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즉, 개혁에서 요구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조정되거나 손익을 즉시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IASB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면 개혁이 기업의 금융상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expedient w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about the effect of the reform on an entity's financial instruments in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applies.	
BC5.309 The IASB considered the risk that the practical expedient could be applied too broadly, which could result in unintended consequences. The IASB decided to limit the scope of the practical expedient so that it applies only to changes in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a financial asset or a financial liability that are required by the reform. For this purpose, applying paragraph 5.4.7 of IFRS 9, a change is required by the reform if, and only if, the change is necessary as a direct consequence of the reform and the new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is economically equivalent to the previous basis (ie the basis immediately preceding the change). This is consistent with the conditions proposed in the 2020 Exposure Draft.	BC5.309 IASB는 실무적 간편법이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되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고려하였다. IASB는 개혁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실무적 간편법의 범위를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IFRS 9 문단 5.4.7을 적용하여,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변경이 필요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이전 기준(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경우에만 그러한 변경을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으로 본다. 이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조건과 일관된다.
BC5.310 In the 2020 Exposure Draft, the IASB considered only changes in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a financial asset or a financial liability that are required as a	BC5.310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요구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만을 고려하였다. 이 조건은 개혁을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direct consequence of the reform. This condition was designed to capture changes in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that are necessary – or in other words, changes that are required – to implement the reform.</p>	<p>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의 변경(즉, 필요한 변동)을 포착하기 위해 고려되었다.</p>
<p>BC5.311 Furthermore, because the objective of the reform is limited to the transition to alternative benchmark rates – ie it does not encompass other changes that would lead to value transfer between the parties to a financial instrument – in the 2020 Exposure Draft, the IASB proposed economic equivalence as the second condition for applying the practical expedient. That is, to be within the scope of the practical expedient, at the date the basis is changed, the new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would be required to be economically equivalent to the previous basis.</p>	<p>BC5.311 또한 2020년 공개초안에서 개혁의 목적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으로 제한(즉, 금융상품 당사자들 사이의 가치 이전으로 이어지는 그 밖의 변동은 포함하지 않음)되기 때문에 IASB는 실무적 간편법 적용을 위한 두 번째 조건으로 경제적 동등성을 제안하였다. 즉,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려면 기준이 변경된 날에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이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해야 할 것이다.</p>
<p>BC5.312 In discussing the concept of economic equivalence, the IASB considered circumstances in which an entity makes changes necessary as a direct consequence of the reform in a way so that the overall contractual cash flows (including amounts relating to interest) of the financial instrument are substantially similar before and</p>	<p>BC5.312 IASB는 경제적 동등성의 개념을 논의하면서 금융상품의 전체 계약상 현금흐름(이자 관련 금액 포함)이 변경 전과 변경 후에 실질적으로 비슷하도록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필요한 변경을 하는 상황을 고려하였다. 예를 들면, 오로지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간의 기준 차이를 보상하는 고정 스프레드를 더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로</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after the changes. For example, a change would be economically equivalent if it involved only replacing an interest rate benchmark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plus a fixed spread that compensated for the basis difference between the interest rate benchmark and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The IASB observed that, in this situation, applying paragraph B5.4.5 of IFRS 9 (that is, revising the effective interest rate when cash flows are re-estimated) would have an accounting outcome similar to applying paragraph 5.4.3 or B5.4.6 of IFRS 9 (that is, recognising a modification gain or loss) because it is unlikely that the resulting modification gain or loss would be significant.</p>	<p>대체한다면, 이러한 변경은 경제적으로 동등할 것이다.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IFRS 9 문단 B5.4.5 (즉, 현금흐름이 재추정될 때 유효이자율을 수정하는 것)를 적용하면 발생하는 변동에 따른 손익이 유의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IFRS 9 문단 5.4.3이나 B5.4.6을 적용하는 것(즉, 변동에 따른 손익의 인식)과 결과적으로 비슷한 회계처리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p>
<p>BC5.313 With respect to the proposed condition described in paragraph BC5.310, some respondents to the 2020 Exposure Draft asked whether the practical expedient would apply even if the transition to alternative benchmark rates is not required by law or regulation, or if the existing interest rate benchmark is not being discontinued. For example, these respondents said that some existing interest rate benchmarks prevalent in their jurisdictions are not—at least in</p>	<p>BC5.313 문단 BC5.310에 제안된 조건과 관련하여,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대체 지표이자율로의 전환이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요구되지 않더라도, 또는 기존 이자율지표가 중단되지 않더라도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것인지 질문하였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그들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부 기존 이자율지표가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대체 지표 이</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the near future – being discontinued. Nonetheless, entities are expected to transition to alternative benchmark rates because, for example, they anticipate reduced liquidity for the existing benchmark or want to align with global market developments. In response, the IASB noted that the practical expedient is not limited to only particular ways of effecting the reform, provided the reform is consistent with the description in paragraph 6.8.2 of IFRS 9. The IASB also noted that the Phase 2 amendments encompass changes that are required to implement the reform – or, in other words, changes that are necessary as a direct consequence of the reform – even if the reform itself is not mandatory.</p>	<p>자율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기존 이자율지표의 유동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세계 시장의 발전과 일관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IASB는 개혁이 IFRS 9 문단 6.8.2의 설명과 일관된다면, 실무적 간편법이 개혁을 실현하는 특정 방법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IASB는 2단계 개정은 개혁 자체가 의무적이지 않더라도 개혁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변경(즉,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필요한 변경)을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p>
<p>BC5.314 With respect to the proposed condition described in paragraph BC5.311, some respondents to the 2020 Exposure Draft asked the IASB to specify whether an entity would need to perform detailed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cash flows of a financial instrument to demonstrate that a particular change meets the economic equivalence condition. For example, some respondents asked whether an entity would need to determine that the</p>	<p>BC5.314 문단 BC5.311에 제안된 조건과 관련하여,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특정 변경이 경제적 동등성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상세한 양적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명시할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예를 들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영향을 받는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나 공정가치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되기 전과</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discounted present value of the cash flows of the affected financial instrument or its fair value are substantially similar before and after the transition to alternative benchmark rates.</p>	<p>후에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p>
<p>BC5.315 The IASB intended ‘economic equivalence’ to be principle-based and therefore decided not to include detailed application guidance related to the assessment of that condition. Acknowledging that different entities in different jurisdictions would implement the reform differently, the IASB did not require a particular approach for assessing this condition. The IASB noted that because it set no ‘bright lines’, an entity is required to apply judgement to assess whether circumstances meet the economic equivalence condition. For example, assuming that the entity determines that replacing an interest rate benchmark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is necessary for the affected financial instrument as a direct consequence of the reform (ie the condition in paragraph 5.4.7(a) of IFRS 9 is met), the entity determines:</p> <p>(a) what alternative benchmark rate will replace the interest rate benchmark and whether a fixed spread adjustment is</p>	<p>BC5.315 IASB는 ‘경제적 동등성’이 원칙중심적이기를 의도했기 때문에 그 조건의 평가와 관련된 세부 적용지침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서로 다른 국가의 서로 다른 기업이 개혁을 다르게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 조건을 평가하기 위해 특정 접근법을 요구하지 않았다. IASB는 ‘명확한 구분선(bright line)’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경제적 동등성 조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판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영향을 받는 금융상품에 대해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IFRS 9 문단 5.4.7(1)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업은 다음을 결정한다.</p> <p>(1) 어떤 대체 지표 이자율이 이자율지표를 대체하는지 그리고 대체 직전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기준 차이</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necessary to compensate for a basis difference betwee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and the interest rate benchmark preceding replacement. The entity would assess the overall resulting cash flows, including amounts relating to interest (ie alternative benchmark rate plus any fixed spread adjustment), to determine whether the economic equivalence condition is met. In other words, in this example, the entity would assess whether the interest rate remained substantially similar before and after the replacement—specifically, whether the interest rate after replacement (eg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plus the fixed spread) was substantially similar to the interest rate benchmark immediately preceding the replacement; and</p> <p>(b) whether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plus the necessary fixed spread described in paragraph BC5.315(a)) was applied to the relevant affected financial instrument(s).</p>	<p>를 보상하기 위해 고정 스프레드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이자와 관련된 금액(대체 지표 이자율에 고정 스프레드 조정을 가산)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현금흐름 결과를 평가하여 경제적 동등성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즉, 대체 전 후의 이자율이 서로 실질적으로 비슷한지, 특히 대체 후의 이자율(예: 대체 지표 이자율에 고정 스프레드를 가산한 이자율)이 대체 전 이자율지표와 실질적으로 비슷한지를 평가한다.</p> <p>(2) 대체 지표 이자율(문단 BC5.315 (1)의 필요한 고정 스프레드를 가산)이 영향을 받는 관련 금융상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BC5.316 The IASB noted that for a scenario such as the one described in the example in paragraph BC5.315, that assessment would be sufficient to determine that the economic equivalence condition had been met for those changes. As described in paragraph 5.4.8(a) of IFRS 9, an entity in such circumstances would not be required to do further analysis in order to determine that the economic equivalence condition has been satisfied (eg the entity would not be required to analyse whether the discounted present value of the cash flows of that financial instrument are substantially similar before and after the replacement).</p>	<p>BC5.316 IASB는 문단 BC5.315에서 설명한 상황의 경우 이러한 평가가 변경에 따른 경제적 동등성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결정하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FRS 9 문단 5.4.8(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제적 동등성 조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로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 해당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가 대체 전후에 서로 실질적으로 비슷한지를 분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p>
<p>BC5.317 The IASB acknowledged that changes in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a financial asset or a financial liability are likely to vary significantly across jurisdictions, product types and contracts. Developing a comprehensive list of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and, hence, that qualify for the practical expedient—would not be feasible. Nonetheless, the IASB decided to include in paragraph 5.4.8 of IFRS 9 some examples of changes that give rise to a new basis for</p>	<p>BC5.317 IASB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이 국가, 상품 형태 및 계약에 따라 유의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의(따라서, 실무적 간편법에 적합한) 포괄적인 목록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이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창출하는 변경의 예를 IFRS 9 문단 5.4.8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IFRS 9 문단 5.4.8에 명시된 변경만 있는 경우, 이러한 변경이</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that is economically equivalent to the previous basis. If an entity makes only the changes specified in paragraph 5.4.8 of IFRS 9, the entity would not be required to analyse these changes further to conclude that the changes meet the condition in paragraph 5.4.7(b) of IFRS 9 – ie the changes in paragraph 5.4.8 of IFRS 9 are examples of changes that satisfy that condition. The IASB concluded that adding such examples would assist entities in understanding and applying the amendments. These examples are not exhaustive.</p>	<p>IFRS 9 문단 5.4.7(2)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결론 내리기 위해 더 이상의 분석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IASB는 이러한 예를 추가하는 것이 개정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예들이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p>
<p><i>Changes that are not required by the reform</i></p> <p>BC5.318 The IASB noted that during negotiations with counterparties to agree on changes to the contractual cash flows required by the reform, entities could simultaneously agree to make changes to the contractual terms that are not necessary as a direct consequence of the reform or are not economically equivalent to the previous terms (eg to reflect a change in the counterparty's credit worthiness). If there are changes in addition to those required by the reform, an entity would first apply the practical</p>	<p><i>개혁에서 요구되지 않은 변경</i></p> <p>BC5.318 IASB는 거래상대방과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협상할 때,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거나 변경 전 조건과 경제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동시에 합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예: 상대방의 신용도 변동을 반영).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 외에 그 밖의 변경이 있다면, 기업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유효이자율을 갱신함으로써 개혁에서 요구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expedient in paragraph 5.4.7 of IFRS 9 to account for the changes to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a financial asset or financial liability determined to be required by the reform (ie changes that meet the conditions in paragraph 5.4.7 of IFRS 9) by updating the effective interest rate based o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Then the entity would apply the relevant requirements in IFRS 9 to determine if the additional changes to that financial instrument (ie any changes to which the practical expedient does not apply) result in the derecognition of the financial instrument. If the entity determines that the additional changes do not result in derecognition of that financial asset or financial liability, the entity would account for the additional changes (ie changes not required by the reform) by applying paragraph 5.4.3 or paragraph B5.4.6 of IFRS 9. In the IASB's view, this approach w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about the economic effects of any changes to financial instruments not required by the reform while consistently accounting for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p>	<p>(IFRS 9 문단 5.4.7의 조건에 맞는 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IFRS 9 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을 먼저 적용할 것이다. 그 다음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추가 변경(실무적 간편법이 적용되지 않는 변경)으로 인해 금융상품이 제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IFRS 9의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할 것이다. 추가 변경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제거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추가 변경(즉, 개혁에서 요구되지 않은 변경)을 IFRS 9 문단 5.4.3이나 문단 B5.4.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것이다.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일관되게 회계처리하면서, 개혁에서 요구되지 않은 금융상품의 변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았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i>Other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issues</i>	<i>기타 분류 및 측정 문제</i>
<p>BC5.319 In anticipation of the potential financial reporting implications of changes to financial instruments as a result of the reform, including the potential derecognition of existing financial instruments and the recognition of new financial instruments, some stakeholders asked the IASB to consider additional matters related to applying the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requirements in IFRS 9 to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 These matters included:</p> <p>(a) whether IFRS 9 provides an adequate basis to account for the derecognition of a financial instrument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nd the recognition of any resulting gain or loss in the statement of profit or loss when an entity determines that it is required to derecognise a financial asset or financial liability because of the reform.</p> <p>(b) determining whether derecognition of a financial asset following changes in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resulting from the reform</p>	<p>BC5.319 기존 금융상품의 잠재적 제거와 새로운 금융상품의 인식 등 개혁의 결과로 금융상품 변경의 잠재적 재무보고 영향을 예상하여, 일부 이해관계자는 IASB에 금융상품과 금융부채에 대한 IFRS 9의 요구사항에 따른 분류와 측정에 대한 추가사항을 고려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추가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p> <p>(1) 개혁으로 인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제거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IFRS 9가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상품을 제거하고 손익계산서에서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에 적절한 기준을 제공하는지의 결정</p> <p>(2)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에 따른 금융자산의 제거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결정</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affects an entity's business model for managing its financial assets.</p> <p>(c) assessing the contractual cash flow characteristics of a financial asset that refers to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Specifically, assessing whether some alternative benchmark rates are consistent with the description of 'interest' in paragraph 4.1.3(b) of IFRS 9 including if the time value of money element of that rate is modified (ie imperfect).</p> <p>(d) assessing the effect on expected credit losses of derecognising an existing financial asset and recognising a new financial asset as a result of the reform.</p> <p>(e) determining potential effects on the accounting for embedded derivatives in the context of the reform. Specifically, following the transition to alternative benchmark rates, whether entities reassess whether an embedded derivative is required to be separated from the host contract.</p>	<p>(3)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의 평가. 특히, 해당 이자율의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가 수정되는지(불완전한 경우)를 포함하여 일부 대체 지표 이자율이 IFRS 9 문단 4.1.3(2)에서 설명한 '이자'와 일관되는지에 대한 평가</p> <p>(4) 개혁의 결과로 기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기대신용손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p> <p>(5) 개혁의 맥락에서 내재파생상품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의 판단. 특히,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한 후,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해야 하는지를 재평가하는지 여부</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f) determining whether the practical expedient in paragraph 5.4.7 of IFRS 9 applies to a hybrid financial liability that has been separated into a host contract (measured at amortised cost) and an embedded derivative (measured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Specifically, determining whether the practical expedient applies when the interest rate benchmark is not a contractual term of the host contract but instead is imputed at initial recognition.</p>	<p>(6) 주계약(상각후원가로 측정)과 내재파생상품(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으로 분리된 복합금융부채에 IFRS 9 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지의 결정. 특히, 이자율지표가 주계약의 계약조건이 아니라 최초 인식시점에 암묵적으로 포함된 경우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지의 결정</p>
<p>BC5.320 The IASB discussed these matters and concluded that IFRS 9 provides an adequate basis to determine the required accounting for each of these matters. Therefore, considering the objective of Phase 2, the IASB made no amendments for these matters. Specific to paragraph BC5.319(f), the IASB observed that the practical expedient in paragraph 5.4.7 of IFRS 9 would apply to such a host contract if the conditions set out in paragraph 5.4.7 of IFRS 9 are met.</p>	<p>BC5.320 IASB는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였고, IFRS 9가 각각의 문제에 필요한 회계처리를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2단계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항에 대해 어떠한 개정도 하지 않았다. IASB는 문단 BC5.319(6)과 관련하여 IFRS 9 문단 5.4.7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IFRS 9 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을 이러한 주계약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Hedge accounting (Chapter 6)	위험회피회계(제6장)
Amendments for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 (August 2020)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개정(2020년 8월)
Amendments to hedging relationships	위험회피관계의 변경
BC6.604 The Phase 2 amendments relating to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IFRS 9 apply to hedging relationships directly affected by the reform as and when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6.8.4 - 6.8.8 of IFRS 9 cease to apply to a hedging relationship (see paragraphs 6.8.9 - 6.8.13 of IFRS 9). Therefore, an entity is required to amend the hedging relationship to reflect th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as and when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is no longer present with respect to the hedged risk or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of the hedged item or of the hedging instrument. The scope of the hedging relationships to which the Phase 2 amendments apply is therefore the same as the scope to which the Phase 1 amendments apply, except for the amendment to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which	BC6.604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과 관련된 2단계 개정은,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IFRS 9 문단 6.8.4~6.8.8의 요구사항 적용을 중단하는 대로,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한다 (IFRS 9 문단 6.8.9~6.8.13 참조). 그러므로 개혁으로 발생하는 회피대상위험과 관련된 불확실성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대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여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도 적용되는 별도의 식별 가능성에 대한 요구사항의 개정(IFRS 9 문단 6.9.13 참조)을 제외하고, 2단계 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의 범위는 1단계 개정이 적용되는 범위와 동일하다.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also applies to the designation of new hedging relationships (see paragraph 6.9.13 of IFRS 9).	
BC6.605 As part of the Phase 1 amendments, the IASB acknowledged that, in most cases, for uncertainty regarding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arising from the reform to be resolved, the underlying financial instruments designated in the hedging relationship would have to be changed to specify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alternative benchmark rate-based cash flows.	BC6.605 1단계 개정의 일부로서, IASB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하여 개혁으로 발생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기초 금융상품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을 특정하도록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BC6.606 The IASB that, applying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IFRS 9, changes to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a financial asset or a financial liability (see paragraphs 5.4.6 - 5.4.9 of IFRS 9) that are designated in a hedging relationship would affect the designation of such a hedging relationship in which an interest rate benchmark was designated as a hedged risk.	BC6.606 IASB는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IFRS 9 문단 5.4.6~5.4.9 참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변경되면, 이자율지표가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BC6.607 The IASB observed that amending the formal designation of a hedging relationship to reflect th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would result in the discontinua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 This is because, as part of the qualifying criteria for	BC6.607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여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하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의 일부로서, IFRS 9에서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문서화하도록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hedge accounting to be applied, IFRS 9 requires the formal designation of a hedging relationship to be documented at inception. The hedge documentation includes identification of the hedging instrument, the hedged item, the nature of the risk being hedged and how the entity will assess hedge effectiveness. IFRS 9 permits the hedge designation and documentation to be amended without causing the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 only in limited circumstances. In all other circumstances, amendments to the hedge designation as documented at incep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 result in the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p>	<p>요구하기 때문이다. 위험회피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의 식별과 위험회피의 효과성 평가 방법을 포함한다. IFRS 9에서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고 위험회피의 지정과 문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 밖의 모든 상황에서,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문서화된 위험회피의 지정이 변경되면 위험회피회계는 중단된다.</p>
<p>BC6.608 The IASB therefore concluded that, in general,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IFRS 9 are sufficiently clear about how to account for hedging relationships directly affected by the reform after the Phase 1 exceptions set out in paragraphs 6.8.4 - 6.8.8 of IFRS 9 cease to apply. However, consistent with the IASB's objective for Phase 2 (see paragraph BC5.290) and its objective for Phase 1 (see paragraph BC6.550), the IASB considered that discontinuing</p>	<p>BC6.608 따라서 IASB는 일반적으로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IFRS 9의 문단 6.8.4~6.8.8에 명시된 1단계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한 후에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험회피관계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충분히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IASB는 2단계의 목적(문단 BC5.290 참조) 및 1단계의 목적(문단 BC6.550 참조)과 일관되게, 단지 개혁의 영향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개혁이 위험회피관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항상 반영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따라서 항상 재무제</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hedge accounting solely due to the effects of the reform would not always reflec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on a hedging relationship and therefore would not always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p>	<p>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p>
<p>BC6.609 Accordingly, the IASB decided that if the reform requires a change to a financial asset or a financial liability designated in a hedging relationship (see paragraphs 5.4.6 - 5.4.8 of IFRS 9), it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IASB's objective for Phase 2 to require the hedging relationship to be amended to reflect such a change without requiring discontinuation of that hedging relationship. For these reasons, in the 2020 Exposure Draft, the IASB proposed that an entity would be required to amend the formal designa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 as previously documented to make one or more of these changes:</p> <p>(a) designating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contractually or non-contractually specified) as a hedged risk;</p> <p>(b) amending the description of the hedged item so it refers to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or</p>	<p>BC6.609 따라서 IASB는 만약 개혁에 따라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변경(IFRS 9의 문단 5.4.6~5.4.8 참조)해야 한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을 요구하지 않고 이러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2단계에 대한 IASB의 목적과 일관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변경하기 위해 이미 문서화한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p> <p>(1) 대체 지표 이자율(계약상 특정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p> <p>(2)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을 수정</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c) amending the description of the hedging instrument so it refers to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3)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기술을 수정
BC6.610 Respondents to the 2020 Exposure Draft agreed with the proposed amendments because those proposals would generally result in an entity continuing to apply hedge accounting to hedging relationships directly affected by the reform. Respondents also said that changes to the hedge designation necessary to reflect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are not expected to represent a change in an entity's risk management strategy or risk management objective for hedging their exposure to interest rate risk. Therefore, the IASB concluded that continuing to apply hedge accounting to the affected hedging relationships when making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would correspond with the IASB's objective for issuing the Phase 1 amendments in September 2019.	BC6.610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개정안에 동의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개정안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견제출자들은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위험회피지정의 변경은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위험관리전략 또는 위험관리목적의 변경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IASB는 개혁에 따라 요구된 변경이 있을 때 영향을 받은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2019년 9월에 공표된 1단계 개정에 대한 IASB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
BC6.611 However, notwithstanding their general agreement with the proposed amendments, some respondents asked the IASB to clarify the scope and timing of the required changes to the affected hedging relationships.	BC6.611 그러나,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일반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요구되는 변경의 범위와 시기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BC6.612 Regarding the scope of the required changes to the affected	BC6.612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요구되는 변경의 범위와 관련하여,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hedging relationships, the IASB acknowledged it may be necessary to amend the designated hedged portion of the cash flows or fair value being hedged when the hedging relationship is amended to reflect th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The IASB also noted that th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described in paragraphs 5.4.6 - 5.4.8 of IFRS 9 were implicit in the required amendments to the hedging relationships as proposed in the 2020 Exposure Draft. In considering the timing of when entities are required to amend an affected hedging relationship, the IASB sought to balance the operational effort needed to amend the hedging relationships with maintaining the required discipline in the amendments to hedging relationships. Specifically, it sought to address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specifying the timing of when entities have to amend hedging relationships as required in paragraph 6.9.1 of IFRS 9—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the large volume of changes that entities may need to make in a relatively short time—while also ensuring that the amendments to hedging relationships are accounted for in the applicable reporting period.</p>	<p>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부분은 변경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IASB는 IFRS 9의 문단 5.4.6~5.4.8에 기술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들은 2020년 공개초안으로 제안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요구된 개정사항에 암묵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았다. 기업이 영향을 받은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 하는 시점을 검토하면서, IASB는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운영노력과 위험회피관계의 변경에서 요구되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IASB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변경이 해당 보고기간에 회계처리 되도록 함과 동시에, (특히 기업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수많은 변경을 해야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 IAS 39의 문단 102P에 따라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만 하는 시점을 특정하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BC6.613 In response to respondents' requests, the IASB revised the proposed wording in paragraph 6.9.1 of IFRS 9 so that:</p> <p>(a) amending the description of the hedged item includes amending the description of the designated portion of the cash flows or fair value being hedged;</p> <p>(b) th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described in paragraphs 5.4.6 - 5.4.8 of IFRS 9 are relevant when amending the formal designation of a hedging relationship; and</p> <p>(c) amendments to hedging relationships are required to be made by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during which the respective changes to the hedged item, hedged risk or hedging instrument are made.</p>	<p>BC6.613 의견제출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IASB는 IFRS 9 문단 6.9.1의 제안된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p> <p>(1)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을 수정하는 것에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한다.</p> <p>(2) IFRS 9의 문단 5.4.6~5.4.8에 기술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들은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련성이 있다.</p> <p>(3) 위험회피관계의 변경은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각각의 변경들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요구된다.</p>
<p>BC6.614 The IASB noted that the Phase 1 amendments may cease to apply at different times to directly affected hedging relationships and to the different elements within a hedging relationship. Therefore, an entity may be required to apply the applicable Phase 2 exceptions</p>	<p>BC6.614 IASB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1단계 개정의 적용이 서로 다른 시점에 중단될 수도 있고, 한 위험회피관계의 서로 다른 요소들에 대한 1단계 적용이 서로 다른 시점에 중단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시점에 IFRS 9 문단 6.9.1~6.9.12의 적용 가능한 2단계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할 수 있고, 그 결</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in paragraphs 6.9.1 - 6.9.12 of IFRS 9 at different times, which may result in the designation of a particular hedging relationship being amended more than once. The Phase 2 amendments to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IFRS 9 apply only to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se paragraphs. All other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IFRS 9, including the qualifying criteria in paragraph 6.4.1 of IFRS 9, apply to hedging relationships directly affected by the reform. In addition, consistent with the IASB's decision for the Phase 1 amendments (see paragraph BC6.568), the Phase 2 amendments also do not provide an exception from the measurement requirements for a hedging relationship. Therefore, entities apply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6.5.8 or 6.5.11 of IFRS 9 to account for any changes in the fair value of the hedged items or hedging instruments (also see paragraphs BC6.623 - BC6.627).</p>	<p>과 여러 번 특정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2단계 개정은 이러한 문단에서 특정된 요구사항에만 적용한다. IFRS 9 문단 6.4.1의 적용요건을 포함하여 IFRS 9의 다른 모든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개혁에 직접 영향을 받은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한다. 더불어, 1단계 개정에 대한 IASB의 결정(문단 BC6.568 참조)과 일관되게, 2단계 개정 또한 위험회피관계의 측정 요구사항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의 변동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IFRS 9 문단 6.5.8 또는 6.5.11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문단 BC6.623~BC6.627 참조).</p>
<p>BC6.615 As set out in paragraph BC5.318, the IASB considered that changes might be made to a financial asset or a financial liability, or to the formal designation of a</p>	<p>BC6.615 문단 BC5.318에 명시된 바와 같이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추가하여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 또는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에 변경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았</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hedging relationship, in addition to thos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The effect of such additional changes to the formal hedge designation on the application of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would depend on whether those changes result in the derecognition of the underlying financial instrument (see paragraph 5.4.9 of IFRS 9).</p>	<p>다.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식적 위험회피지정에 대한 추가적 변경의 효과는 이러한 변경들이 기초 금융자산의 제거를 야기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IFRS 9 문단 5.4.9 참조).</p>
<p>BC6.616 The IASB therefore required an entity first to apply the applicable requirements in IFRS 9 to determine if those additional changes result in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 for example, if the financial asset or financial liability designated as a hedged item no longer meets the qualifying criteria to be an eligible hedged item as a result of changes in addition to those required by the reform. Similarly, if an entity amends the hedge designation to make a change other than the changes described in paragraph 6.9.1 of IFRS 9 (for example, if it extends the term of the hedging relationship), the entity would first determine if those additional changes to the hedge designation result in the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 If the additional changes do not result in the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 the designation of the</p>	<p>BC6.616 그러므로 IASB는 기업이 IAS 39의 적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먼저 적용하여 이러한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는지(예: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추가하여 이루어진 변경의 결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가 더 이상 적절한 위험회피 대상항목이 되기 위한 적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였다. 마찬가지로, 만약 기업이 IAS 39의 문단 102P에 명시된 변경이 아닌 변경을 위해 위험회피지정을 변경한다면(예: 위험회피관계의 기간을 연장), 기업은 이러한 위험회피지정의 추가적 변경이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먼저 결정할 것이다.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은 IAS 39의 문단 102P에서 요구한 것과 같이 변경될 것이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hedging relationship would be amended as required by paragraph 6.9.1 of IFRS 9.</p>	
<p>BC6.617 Some respondents to the 2020 Exposure Draft said that entities may change a hedging relationship as a result of the reform, but such a change is not necessary as a direct consequence of the reform. This could include, for example, designating a basis swap as a new hedging instrument to mitigate ineffectiveness arising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mpounding of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s used for cash products and derivatives. These respondents asked the IASB to permit such changes to be in the scope of the required changes to the hedging relationship set out in paragraph 6.9.1 of IFRS 9. The IASB however decided not to extend the scope of paragraph 6.9.1 of IFRS 9 to other changes an entity makes as a result of the reform. The IASB considered that its objective for the Phase 2 amendments is not only to support entities in applying the IFRS requirements during the transition to alternative benchmark rates, but also to provide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with useful information about the effect of the reform on an entity's</p>	<p>BC6.617 2020년 공개초안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개혁의 결과로 기업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경이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이러한 변경은 비파생상품과 파생상품에 대해 사용되는 대체 지표 이자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비효과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위험회피수단으로 베이스스 스왑을 지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이러한 변경을 IAS 39의 문단 102P에 규정하는 요구되는 변경의 범주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IASB는 개혁의 결과로 발생한 다른 변경에 대해 IAS 39 문단 102P의 범위를 확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2단계 개정의 목적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기간에 IFRS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기업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개혁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존재하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요구되는 변경의 범위를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는데 필요한 변경으로만 제한하였다 (IFRS 9 문단 5.4.6~5.4.8에서 기술한 바와 같음).</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financial statements. To balance achieving this objective with maintaining the discipline that exists in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IFRS 9, the IASB limited the scope of the changes required to the designation of hedging relationships to only those changes that are necessary to reflect th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as described in paragraphs 5.4.6 - 5.4.8 of IFRS 9).</p>	
<p><i>Replacement of hedging instruments in hedging relationships</i></p> <p>BC6.618 Respondents to the 2020 Exposure Draft said that, instead of changing the contractual terms of a derivative designated as a hedging instrument, counterparties may facilitate the transition to alternative benchmark rates using approaches that result in outcomes equivalent to changing the contractual terms of the derivative. These respondents asked whether using such an approach would be within the scope of the Phase 2 amendments—ie whether paragraph 6.9.1(c) of IFRS 9 would apply—if the approach results in an economic outcome that is similar to changing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the derivative.</p>	<p><i>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의 대체</i></p> <p>BC6.618 2020년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대신에, 계약상대방은 파생상품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야기하는 접근법을 사용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만약 이러한 접근법이 파생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유사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2단계 개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즉, IFRS 9의 문단 6.9.1(3)이 적용될 것인지를) 문의하였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BC6.619 The IASB confirmed that consistent with the rationale in paragraph BC5.298, it is the substance of an arrangement, rather than its form, that determines the appropriate accounting treatment. The IASB considered that the conditions in paragraph 5.4.7 of IFRS 9—ie the change is necessary as a direct consequence of the reform and is done on economically equivalent basis—are helpful in analysing the amendments to the contractual terms of derivatives described in paragraph BC6.618. In this context, the IASB noted that if these other approaches result in derivatives with substantially different terms from those of the original derivative, the change may not have been made on an economically equivalent basis. The IASB also noted that if a hedging instrument is derecognised, hedge accounting is required to be discontinued. Therefore, the IASB decided that for hedge accounting to continue it is also necessary that the original hedging instrument would not be derecognised.</p>	<p>BC6.619 문단 BC5.298의 논리와 일관되게, IASB는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계약의 실질이라고 확인하였다. IASB는 IFRS 9 문단 5.4.7의 조건(즉, 변경이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으로 이루어짐)이 문단 BC6.618에서 기술한 파생상품 계약 조건의 변경을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IASB는 다른 접근법으로 파생상품의 최초 계약조건과 상당히 다른 조건을 가진 파생상품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변경은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으로 이루지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IASB는 만약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된다면, 위험회피회계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위험회피회계가 지속되려면 최초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p>
<p>BC6.620 The IASB considered these approaches described by respondents:</p> <p>(a) close-out and replace on the same terms (ie</p>	<p>BC6.620 IASB는 의견제출자들이 명시한 다음의 접근법들을 고려하였다.</p> <p>(1) ‘종결(close-out) 및 동일한 조건으로 대체(즉, 시장외 조건)’ -</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off-market terms) – An entity applying this approach would enter into two new derivatives with the same counterparty. These two would be, a new derivative that is equal and offsetting to the original derivative (so both contracts are based on the interest rate benchmark to be replaced), and a new alternative benchmark-based derivative with the same terms as the original derivative so its fair value at initial recognition is equivalent to the fair value – on that date – of the original derivative (ie the new derivative is off-market). Under this approach, the counterparty to the new derivatives is the same as to the original derivative, the original derivative has not been derecognised and the terms of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derivative are not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original derivative. The IASB therefore concluded that such an approach could be regarded as consistent with th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as</p>	<p>이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새로운 두 가지 파생상품을 체결할 것이다. 이 두 파생상품 중 하나는 최초 파생상품과 동일하고 최초 파생상품과 상쇄되는 새로운 파생상품(이 두 계약은 모두 대체될 지표 이자율에 근거함)이고, 다른 하나는 최초 파생상품과 조건이 동일하여 이것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 가치가 최초 파생상품의 해당 일의 공정가치이며(즉, 새로운 파생상품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상태(off-market)임) 새로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반한 파생상품일 것이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새로운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은 최초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과 동일하고, 최초 파생상품은 제거되지 않으며, 대체 지표 이자율 파생상품의 조건이 최초 파생상품의 조건과 상당히 다르지는 않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은 IFRS 9의 문단 6.9.1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된다고 여겨질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required in paragraph 6.9.1 of IFRS 9.</p> <p>(b) close-out and replace on substantially different terms (eg on-market terms) – An entity applying this approach would terminate (close-out) the existing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derivative with a cash settlement. The entity then enters into a new on-market alternative benchmark rate derivative with substantially different terms, so that the new derivative has a fair value of zero at initial recognition. Some respondents to the 2020 Exposure Draft were of the view that since this approach does not result in any gain or loss recognised in profit or loss, it suggests the exchange was done on an economically equivalent basis. The IASB disagreed with this view because the original derivative is extinguished and replaced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derivative with substantially different contractual terms. Therefore, this approach is</p>	<p>(2) ‘종결(close-out) 및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대체(예, 시장 조건)’ - 이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존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현금결제 종결할 것이다. 그런 다음 이 기업은 상당히 다른 조건이지만 시장 조건에 맞는 대체 지표 이자율 파생상품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새로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최초 인식시점에 영(0)이 되도록 할 것이다. 2020년 공개초안의 일부 의견 제출자들은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교환이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최초 파생상품이 소멸되고, 상당히 다른 계약 조건의 대체 지표 이자율 파생상품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은 IFRS 9의 문단 6.9.1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not considered consistent with th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as required in paragraph 6.9.1 of IFRS 9.</p> <p>(c) add a new basis swap – An entity applying this approach would retain the original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derivative but enter into a basis swap that swaps the existing interest rate benchmark for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The combination of the two derivatives is equivalent to modifying the contractual terms of the original derivative to replace the interest rate benchmark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The IASB noted that, in principle, the combination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derivative and an interest rate benchmark-alternative benchmark rate swap could achieve an outcome economically equivalent to amending the original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derivative. However, the IASB observed that, in practice, basis swaps are generally entered into on an aggregated basis to economically hedge an entity's net exposure to basis</p>	<p>(3) '새로운 베이스스 스왑의 추가'</p> <p>- 이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최초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보유하되, 기존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베이스스 스왑을 체결할 것이다. 이들 파생상품의 결합은 최초 파생상품 계약 조건을 이자율지표에서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도록 변경하는 것과 동등하다. IASB는 원칙적으로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과 '이자율지표-대체 지표 이자율 스왑'의 조합은 최초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변경하는 것과 그 결과가 경제적으로 동등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실무에서 베이스스 스왑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베이스스 위험의 순 노출을 경제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개별 파생상품 기준이 아니라 통합 기준으로 체결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이 IFRS 9의 문단 6.9.1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되려면, 반드시 베이스스 스왑이 최초 파생상품과 결합되거나 연계되어야 한다고(즉, 개별 파생상품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위험회피 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risk, rather than on an individual derivative basis. The IASB, therefore, noted that for this approach to be consistent with th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as described in paragraph 6.9.1 of IFRS 9, the basis swap must be coupled or linked with the original derivative, ie done on an individual derivative basis. This is because a change to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a hedging instrument is made to an individual instrument and, to achieve the same outcome, the basis swap would need to be coupled with an individual derivative.</p> <p>(d) novating to a new counterparty – An entity applying this approach would novate the original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derivative to a new counterparty and subsequently change the contractual cash flows on the novated derivative to replace the interest rate benchmark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The IASB noted that novation of a derivative would result in the</p>	<p>정하기 위한 베이스 변경은 개별 금융상품에 대해 이루어지고, 같은 결과를 얻으려면 베이스 스왑이 개별 파생상품과 결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p> <p>(4) ‘새로운 거래상대방과의 경계 (novating)’ - 이 접근법을 적용한 기업은 최초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새로운 거래상대방과 경계하고, 후속적으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기 위해 경계된 파생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변경할 것이다. IASB는 파생상품의 경계가 최초 파생상품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따라서 IFRS 9의 문단 6.5.6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될 것이라고 보았다(추가적으로 문단 BC6.336~BC6.338</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derecognition of the original derivative and thus would require hedge accounting to be discontinu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5.6 of IFRS 9 (see further paragraphs BC6.336 - BC6.338). Therefore, this approach is not consistent with th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as set out in paragraph 6.9.1 of IFRS 9.</p>	<p>참조).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은 IFRS 9의 문단 6.9.1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되지 않는다.</p>
<p>BC6.621 The IASB therefore added paragraph 6.9.2 of IFRS 9 so that, an entity also applies paragraph 6.9.1(c) of IFRS 9 if these three conditions are me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the entity makes a change required by the reform using an approach other than changing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the hedging instrument (as described in paragraph 5.4.6 of IFRS 9); (b) the original hedging instrument is not derecognised; and (c) the chosen approach is economically equivalent to changing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the original hedging instrument (as described 	<p>BC6.621 따라서 IASB는 IFRS 9의 문단 6.9.2를 추가하여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IFRS 9의 문단 6.9.1(3)도 적용하도록 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은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IFRS 9의 문단 5.4.6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이 아닌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한다. (2) 최초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되지 않는다. (3) 선택된 접근법은 최초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등하다 (IFRS 9의 문단 5.4.7과 5.4.8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in paragraphs 5.4.7 and 5.4.8 of IFRS 9).	
BC6.622 The IASB decided not to add further amendments or provide application guidance because IFRS 9 as amended provides an adequate basis for analysing the accounting requirements in context of the approaches described in paragraph BC6.620.	BC6.622 문단 BC6.620에서 기술된 접근법의 맥락에서, 개정된 IFRS 9가 회계적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한 적합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IASB는 추가적인 개정이나 적용지침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Remeasurement of the hedged item and hedging instrument</i>	<i>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i>
BC6.623 In paragraph BC6.568, the IASB explained that no exceptions were made in Phase 1 to the measurement requirements for hedged items or hedging instruments. The IASB concluded that the most useful information would be provided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if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and measurement of hedge ineffectiveness remain unchanged (see paragraph BC6.567). This is because recognising ineffectivenes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based on the actual results of a hedging relationship faithfully represent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reform, thereby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BC6.623 IASB는 문단 BC6.568에서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관한 측정 요구사항은 1단계에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IASB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측정의 요구사항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유용한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문단 BC6.567 참조). 이는 위험회피관계의 실제 결과에 기반한 비효과성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은 개혁의 경제적 영향을 충실하게 표현하며, 따라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BC6.624 Applying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IFRS 9, a gain or loss arising from the	BC6.624 IFRS 9의 위험회피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재측정 또는 위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remeasurement of the hedged item attributable to the hedged risk or from remeasuring the hedging instrument is reflected in profit or loss when measuring and recognising hedge ineffectiveness.	험회피수단의 재측정에 따른 손익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을 측정하고 인식할 때 당기손익으로 반영된다.
<p>BC6.625 When deliberating the Phase 2 amendments, the IASB considered that changes in the fair value of the hedged item or hedging instrument could arise when the formal designation of a hedging relationship is amended. The IASB considered whether to provide an exception from the requirement to include in hedge ineffectiveness such fair value changes when they arise. The IASB considered, but rejected, these approaches:</p> <p>(a) recognising the measurement adjustment in profit or loss over time – An entity applying this approach would recognise the measurement adjustment in profit or loss over time (ie amortised) as the hedged item affects profit or loss. The IASB rejected this approach because it would require an offsetting entry to be recognised either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or as an</p>	<p>BC6.625 2단계 개정을 심의할 때,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이 변경될 때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그러한 공정가치 변동이 발생할 때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그러한 공정가치 변동을 포함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예외규정을 둘지를 고려하였다. IASB가 고려하였지만 기각한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p> <p>(1) ‘측정 조정금액을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 -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걸쳐 측정 조정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즉, 상각)할 것이다. IASB는 이 접근법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재무상태표에서 상계 계정을 인식하거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의 조정으로 상계 계정을 인식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계 계정은 ‘개념체계’의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위험회피</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adjustment to the carrying amount of the hedged item or hedging instrument. Such an offsetting entry would fail to meet the definition of an asset or a liability in the Conceptual Framework. Adjusting the carrying amount of the hedged item or hedging instrument would result in the recognition of a net measurement adjustment of zero and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IASB's decision that no exceptions would be made to the measurement of hedged items or hedging instruments. The IASB also noted that such an approach would likely result in increased operational complexity because an entity would need to track adjustments that occur at different times for the purpose of amortising the adjustments in the period(s) in which the hedged item affects profit or loss.</p> <p>(b) recognising the measurement adjustment as an adjustment to retained earnings – An entity applying this approach would recognise</p>	<p>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측정 조정금액의 순액이 영(0)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측정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IASB의 결정과도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IASB는 또한 이러한 접근법이 운영상 복잡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기업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조정금액을 상각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한 조정금액을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p> <p>(2) '측정 조정금액을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 -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측정 조정금액을 측정치의 차이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익잉여금의</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the measurement adjustment as an adjustment to retained earnings during the period in which the measurement difference arises. However, the IASB rejected this approach because the changes to the hedged risk might be driven by amendments to hedging relationships that may occur in different reporting periods. Therefore, recognising adjustments to retained earnings over time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IASB's previous decisions (throughout IFRS Standards) that an adjustment to retained earnings only applies on transition to new requirements in IFRS Standards. Furthermore, the IASB noted that the measurement adjustment would meet the definition of income or expense in the Conceptual Framework and therefore should be recognised in the statement of profit or loss. The IASB also noted that recognising measurement adjustments directly in retained earnings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decision that no exceptions should be made</p>	<p>조정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IASB는 이 접근법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회피대상위험의 변동은, 서로 다른 보고기간에 발생했을 수 있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조정에서 기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정금액을 기간에 걸쳐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하는 것은 IFRS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이익잉여금을 조정한다는 (IFRS 기준 전반에 걸친) IASB의 과거 결정들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또 IASB는 측정 조정금액이 '개념체계'의 수익과 비용(income or expense)의 정의를 충족할 것이고, 따라서 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IASB는 또한 측정 조정금액을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는 것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측정에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to the measurement of hedged items or hedging instruments.	
<p>BC6.626 Some respondents to the 2020 Exposure Draft said they would not expect any significant changes in fair value to arise from the remeasurement of a hedged item or hedging instrument based o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That is because these amendments would apply only when the conditions in paragraph 5.4.7 of IFRS 9 are met, which require that changes are made on an economically equivalent basis. The IASB acknowledged these comments noting that, applying paragraph 6.9.1 of IFRS 9, a significant change in fair value arising from the remeasurement of the hedged item or the hedging instrument indicates that the changes were not made on an economically equivalent basis. Furthermore, the IASB observed that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6.9.1(b) of IFRS 9, which requires the description of the designated portion for the cash flows or fair value being hedged enables entities to amend a hedging relationship to minimise fair value changes on the remeasurement of the hedged item or the hedging instrument.</p>	<p>BC6.626 2020년 공개초안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근거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으로 발생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이 유의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이 개정이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에서 이루어진 변동을 요구하는 IFRS 9의 문단 5.4.7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IASB는 이러한 의견이 IFRS 9의 문단 6.9.1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에서 생기는 공정가치의 변동이 유의적이라면 그 변동은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변동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또 IASB는 IFRS 9 문단 6.9.1(2)의 요구사항에서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어서 기업들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최소화하도록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할 것이라고 보았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BC6.627 The IASB therefore confirmed its previous decision not to provide an exception from the requirements in IFRS 9 regarding the measurement and recognition of hedge ineffectiveness. Therefore, an entity would apply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6.5.8 (for a fair value hedge) and 6.5.11 (for a cash flow hedge) of IFRS 9 for the measurement and recognition of hedge ineffectiveness. The IASB considered that accounting for such fair value changes in any other way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decision to continue applying hedge accounting for such amended hedging relationships (see paragraph 6.9.1 of IFRS 9). In the IASB's view, applying the requirements in IFRS 9 for the recognition and measurement of ineffectiveness reflect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amendments to the formal designation of a hedging relationship and therefore,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p>	<p>BC6.627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대한 측정과 인식과 관련하여 IFRS 9의 요구사항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과거의 결정을 확정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측정에 IFRS 9의 문단 6.5.8(공정가치위험회피)과 문단 6.5.11(현금흐름위험회피)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것이다. IASB는 공정가치 변동을 그 밖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그러한 변경된 위험회피관계에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결정(IFRS 9 문단 6.9.1 참조)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비효과성의 인식과 측정에 IFRS 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에 대한 변경의 경제적 영향을 반영하고, 따라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p>
<p>Accounting for qualifying hedging relationships</p> <p><i>Assessment of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hedged item and the hedging instrument</i></p>	<p>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p> <p>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 평가</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BC6.628 The Phase 1 exception in paragraph 6.8.6 of IFRS 9 requires an entity to assume that, for the purpose of assessing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hedged item and the hedging instrument as required by paragraphs 6.4.1(c)(i) and B6.4.4 - B6.4.6 of IFRS 9,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cash flows and/or the hedged risk (contractually or non-contractually specified) are based, is not altered as a result of the reform. As noted in paragraph 6.8.11 of IFRS 9, this exception ceases to apply to the hedged item and the hedging instrument, respectively, at the earlier of, when there is no longer uncertainty about the hedged risk or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and when the hedging relationship that the hedged item and the hedging instrument are a part of is discontinued.</p>	<p>BC6.628 IFRS 9 문단 6.8.6의 1단계 예외규정은 기업이 IFRS 9의 문단 6.4.1(3)(가)와 문단 B6.4.4~B6.4.6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과(또는)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되거나 계약상 특정되지 않음)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것을 요구한다. IFRS 9의 문단 6.8.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예외규정은 다음 중 이른 시점에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적용하는 것을 각각 중단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피대상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때 (2)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속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p>BC6.629 Consistent with the IASB's considerations on the highly probable requirement (see paragraphs BC6.630 - BC6.631), the IASB considered that, when the formal designation of a</p>	<p>BC6.629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발생가능성의 요구사항에 대한 IASB의 검토결과와 일관되게(문단 BC6.630~BC6.631 참조),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이 변경될 때</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hedging relationship has been amended (see paragraph 6.9.1 of IFRS 9), the assessment of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hedged item and the hedging instrument should be performed based o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on which the hedged cash flows and/or the hedged risk will be based. The IASB therefore provided no exceptions from the assessment of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hedged item and the hedging instrument for the period after the Phase 1 exception in paragraph 6.8.6 of IFRS 9 ceases to apply.</p>	<p>(IFRS 9 문단 6.9.1 참조), 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는 위험회피현금흐름과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할 대체 지표 이자율에 근거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IFRS 9 문단 6.8.6의 1단계 예외의 적용이 중단된 후의 기간에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의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p>
<p><i>Amounts accumulated in the cash flow hedge reserve</i></p> <p>BC6.630 During the period in which a hedging relationship is affected by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paragraph 6.8.4 of IFRS 9 requires an entity to assume that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cash flows (contractually or non-contractually specified) are based is not altered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a forecast transaction (or a component thereof) is highly probable. An entity is required to cease applying this exception at the earlier of the date the</p>	<p><i>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i></p> <p>BC6.630 개혁에 따라 발생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IFRS 9의 문단 6.8.4는 예상거래(또는 그 구성요소)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지를 결정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되거나 계약상 특정되지 않음)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도록 한다. 기업은 다음 중 이른 시점에 이러한 예외 규정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p> <p>(1)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is no longer present with respect to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of the hedged item; and the date the hedging relationship of which the hedged item is a part of is discontinued.</p>	<p>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때</p> <p>(2)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속한 위험 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p>
<p>BC6.631 The IASB considered that uncertainty about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the hedged cash flows would no longer be present when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cash flows are based is altered as required by the reform. In other words, uncertainty would no longer be present when an entity amends the description of the hedged item, including the description of the designated portion of the cash flows or fair value being hedged, applying paragraph 6.9.1(b) of IFRS 9. Thereafter, applying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6.3.3 of IFRS 9, the assessment of whether the hedged cash flows are still highly probable to occur would be based on the contractual cash flows determined by reference to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p>	<p>BC6.631 IASB는 개혁에 따라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 지표가 변경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즉, 기업이 IFRS 9의 문단 6.9.1(2)를 적용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 포함)을 수정할 때, 불확실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IFRS 9의 문단 6.3.3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지에 대한 평가는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여 결정된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할 것이다.</p>
<p>BC6.632 The IASB noted that the amendment in paragraph 6.9.1(b) of IFRS 9 for amending the</p>	<p>BC6.632 IASB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공식적 지정의 변경과 관련하여 IAS 39의 문단 102P(2)의 개정이</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formal designation of a hedging relationship could lead to changes in the hedged item. Therefore, if an entity uses a hypothetical derivative—that is, a derivative that would have terms matching the critical terms of the designated cash flows and the hedged risk, commonly used in cash flow hedges to represent the forecast transaction—the entity may need to change the hypothetical derivative to calculate the change in the value of the hedged item to measure hedge ineffectiveness.</p>	<p>위험회피대상항목의 변경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업이 가상의 파생상품(지정된 현금흐름의 주요한 조건과 회피대상위험이 일치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주로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예상거래에 대응하여 사용됨)을 사용한다면,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을 측정할 목적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을 계산하기 위해 가상의 파생상품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p>
<p>BC6.633 Consequently, as hedge accounting would not be discontinued when a hedging relationship is amended for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see paragraph 6.9.1 of IFRS 9), the IASB decided that an entity would deem the amount accumulated in the cash flow hedge reserve at that point to be based o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on which the hedged future cash flows are determined. Therefore, in applying paragraph 6.5.11(d) of IFRS 9, the amount accumulated in the cash flow hedge reserve would be reclassified to profit or loss in the same period(s) during which the hedged cash flows based o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affect profit or loss.</p>	<p>BC6.633 결과적으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관계가 변경될 때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IFRS 9의 문단 6.9.1 참조), IASB는 그 시점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을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FRS 9의 문단 6.5.11(4)를 적용할 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것이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BC6.634 The approach described in paragraph BC6.633 is consistent with the IASB's view that, when a hedging relationship is amended for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more useful information is provided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if hedge accounting is not discontinued and amounts are not reclassified to profit or loss solely due to th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This is because such an approach will more faithfully reflect the economic effects of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p>	<p>BC6.634 문단 BC330에서 기술된 접근법은 위험회피관계가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따라 변경될 때,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고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이유로만 금액이 당기손익으로 재조정되지 않는다면, 더 유용한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는 IASB의 관점과 일관된다. 이는 이러한 접근법이 보다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의 경제적 효과를 더 충실하게 반영할 것이기 때문이다.</p>
<p>BC6.635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6.8.5 and 6.8.10 of IFRS 9, the IASB considered whether to provide similar relief for any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s in which the previously designated hedged item is subject to the reform. The IASB observed that although a hedging relationship may have been discontinued, the amount accumulated in the cash flow hedge reserve arising from that hedging relationship remains in the reserve if the hedged future cash flows are still expected to occur. The IASB noted that if the hedged future cash flows are still expected to occur, the previously designated hedged item will be subject to a change</p>	<p>BC6.635 IFRS 9 문단 6.8.5와 6.8.10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IASB는 이전에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개혁의 대상이었으나 이미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유사한 경감규정을 들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비록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그 위험회피관계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여전히 적립금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심지어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은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required by the reform, even if the hedging relationship has been discontinued.	
BC6.636 The IASB therefore decided that, for the purpose of applying paragraph 6.5.12 of IFRS 9, an entity deems the amount accumulated in the cash flow hedge reserve for a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 to be based o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on which the contractual cash flows will be based, which is similar to the amendment in paragraph 6.9.7 of IFRS 9. That amount is reclassified to profit or loss in the same period(s) in which the hedged future cash flows based o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affect profit or loss.	BC6.636 그러므로 IASB는 IFRS 9의 문단 6.5.12를 적용할 때, 기업은 IFRS 9 문단 6.9.7의 개정과 유사하게,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결정하였다. 그 금액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BC6.637 Some respondents to the 2020 Exposure Draft asked the IASB to clarify whether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6.9.7 - 6.9.8 of IFRS 9 require the retrospective measurement of the hedged item based o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based cash flows—in other words, whether an entity would be required to recalculate what the amount accumulated in the cash flow hedge reserve would have been if the hedged item was based o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since inception.	BC6.637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 제출자들은 IASB에게 IFRS 9 문단 6.9.7~6.9.8의 요구사항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소급적 측정을 요구하는지(즉, 기업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개시 이후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였을 경우의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으로 재계산해야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BC6.638 The IASB considered that the cash flow hedge reserve is adjusted as required by paragraph 6.5.11(a) of IFRS 9 (ie the cash flow hedge reserve is not subject to separate measurement requirements, but instead is derived from the cumulative changes in the fair value of the hedged item (present value) and hedging instrument). The Phase 2 amendments do not include an exception from the measurement requirements in IFRS 9. Accordingly, the fair value of the hedging instrument or of the hedged item (ie the present value of the cumulative changes in the hedged expected future cash flows) is determined at the measurement date based on the expected future cash flows and assumptions that market participants would use. In other words, the fair values are not determined retrospectively. The IASB therefore considered that the cash flow hedge reserve is not remeasured as if it had been based o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since incep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p>	<p>BC6.638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IFRS 9의 문단 6.5.11(1)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조정된다고(즉,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별도의 측정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위험회피대상항목(현재가치)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누계액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2단계 개정은 IFRS 9의 측정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즉, 위험회피대상 기대 미래현금흐름 변동누계액의 현재가치)는 기대 미래 현금흐름과 시장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일에 결정된다. 즉, 공정가치는 소급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위험회피관계가 개시된 이후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해 왔던 것처럼 재측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p>
<p>BC6.639 The IASB confirmed that the amendments in paragraphs 6.9.7 and 6.9.8 of IFRS 9 extend to cash flow hedges, regardless of whether the cash flow hedge is</p>	<p>BC6.639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이 되는 포트폴리오가 개방형인지 또는 폐쇄형인지에 관계없이, IFRS 9의 문단 6.9.7과 6.9.8의 개정이 현</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for an open or closed hedged portfolio. The general reference to cash flow hedges in these paragraphs reflects such scope, therefore the IASB considered that explicitly addressing open or closed hedged portfolios was unnecessary.</p>	<p>금흐름위험회피로 확장된다고 확정하였다. 이 문단의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일반적인 참조는 그러한 범위를 반영하므로, IASB는 개방형 또는 폐쇄형 포트폴리오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p>
<p>Groups of items</p> <p>BC6.640 The IASB considered that for groups of items designated as hedged items in a fair value or cash flow hedge, the hedged items could consist of items still referenced to the interest rate benchmark as well as items already referenced to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Therefore, an entity could not amend the description of the hedged risk or the hedged item, including the designated portion of the cash flows or fair value being hedged, with reference only to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for the whole group. The IASB also considered that it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the Phase 2 amendments to require the discontinuation of such a hedging relationship solely because of the effects of the reform. In the IASB's view, the same requirements and relief that apply to other hedging</p>	<p>항목 집합</p> <p>BC6.640 IASB는 공정가치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이미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는 항목뿐만 아니라 이자율지표를 여전히 참조하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전체 집합에 대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만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회피대상위험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을 포함)에 대한 기술을 수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IASB는 또한 오직 개혁의 영향을 이유로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의 종단을 요구하는 것은 2단계 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다른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요구사항과 경감규정이, 동적위험회피관계(dynamic hedging relationships)를 포함하여, 위험회</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relationships should apply to groups of items designated as hedged items, including dynamic hedging relationships.	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p>BC6.641 Paragraphs 6.9.9 - 6.9.10 of IFRS 9 therefore require an entity to allocate the individual hedged items to subgroups based on the benchmark rate designated as the hedged risk for each subgroup and to apply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 6.6.1 of IFRS 9 to each subgroup separately. The IASB acknowledged this approach is an exception to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IFRS 9 because other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cluding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6.5.8 and 6.5.11 of IFRS 9, are applied to the hedging relationship in its entirety. However, in the IASB's view, the robustness of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s maintained because if any subgroup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 6.6.1 of IFRS 9, the entity is required to discontinue hedge accounting for that entire hedging relationship. The IASB concluded this accounting outcome is appropriate because the basis for designating the hedged item on a group basis is that the entity is managing the designated hedge for the group as a whole.</p>	<p>BC6.641 그러므로 IFRS 9의 문단 6.9.9~6.9.10은 각 하부 집합에 대한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하부 집합에 개별 위험회피대상항목을 배분하고, IFRS 9의 문단 6.6.1의 요구사항을 각각의 하부 집합에 개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IFRS 9의 문단 6.5.8과 6.5.11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그 밖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이 전체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되기 때문에,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이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IASB의 견해에 따르면, 하부 집합들 중 일부가 IFRS 9 문단 6.6.1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하므로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의 엄격성이 유지된다. IASB는 이러한 회계처리의 결과가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는 집합 기준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는 근거가 기업이 집합 전체에 대하여 지정된 위험회피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BC6.642 The IASB acknowledged that preparers may incur additional costs to assess each subgroup in a hedging relationship separately, and to track items moving from one subgroup to another. However, the IASB concluded that an entity is likely to have such information available because IFRS 9 already requires it to identify and document hedged items designated within a hedging relationship with sufficient specificity. Therefore, the IASB concluded that the benefits of avoiding the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 and the resulting accounting impacts outweigh the associated costs of this exception.</p>	<p>BC6.642 IASB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하나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각각의 하부 집합별로 개별적으로 측정하고, 하부 집합 간 이동하는 항목을 추적하는 데 원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IFRS 9가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이미 충분히 세부적으로 식별하고 문서화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므로 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과 이에 따른 회계처리의 영향을 회피하는 효익이 이러한 예외의 관련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p>
<p>BC6.643 Respondents to the 2020 Exposure Draft asked the IASB whether the requirement for groups of items applies to dynamic hedges of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items when the items mature and are replaced with alternative benchmark-based items. The IASB considered that although the objective of the Phase 2 amendments is to provide relief when individual items transition to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the replacement of items that have expired with items that reference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is a natural consequence of a dynamic</p>	<p>BC6.643 2020년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항목이 만기가 되고 대체 지표에 기초한 항목으로 대체될 때 항목 집합의 요구사항을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항목의 동적위험회피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IASB는 비록 2단계 개정의 목적이 개별 항목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될 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지만, 만료된 항목을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는 항목으로 대체하는 것은 동적위험회피관계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항목이 만기가 되었고, 그 항목을 대체</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hedging relationship. Therefore, the IASB observed that new items designated as part of the group to replac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items that have matured would be allocated to the relevant subgroup based on the benchmark rate being hedged.</p>	<p>하기 위해 집합의 부분으로서 지정되는 새로운 항목은 위험회피되는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관련된 하부집합에 배분될 것으로 보았다.</p>
<p>BC6.644 Respondents also asked the IASB to clarify how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6.9.9 - 6.9.10 of IFRS 9 apply to the hypothetical derivative in a cash flow hedge, specifically, whether the hypothetical derivative could be amended (and therefore measured) based o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if the actual hedged item (such as a floating rate loan) has not yet transitioned to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The IASB considered that IFRS 9 does not include specific requirements for the hypothetical derivative but mentions it as one possible way of calculating the change in the value of the hedged item to measure ineffectiveness (see paragraph B6.5.5 of IFRS 9). Therefore, the terms on which the hypothetical derivative is constructed replicate the hedged risk and the hedged cash flows of the hedged item an entity is hedging. The hypothetical derivative cannot include features</p>	<p>BC6.644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현금흐름 위험회피에서 IFRS 9의 문단 6.9.9 ~ 6.9.10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가상의 파생상품에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실제 위험회피대상항목(예: 변동금리대출)이 아직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가상의 파생상품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변경(따라서 측정)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IASB는 IFRS 9가 가상의 파생상품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지만, 가상의 파생상품을 비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분을 계산하는 가능한 하나의 방법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다(IFRS 9 문단 B6.5.5 참조). 그러므로 가상의 파생상품을 구조화하는 조건은 회피대상위험과 기업이 위험회피하려는 대상의 위험회피현금흐름을 복제하는 것이다. 가상의 파생상품은 위험회피수단에만 존재하는(그러나 위험회피대상항목에는</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in the value of the hedged item that exist only in the hedging instrument (but not in the hedged item). The IASB therefore decided that the identification of an appropriate hypothetical derivative is based on the requirements to measure hedge ineffectiveness and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include specific amendments for applying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6.9.9 - 6.9.10 to the hypothetical derivative.	없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에 대한 특성을 포함할 수 없다. 그러므로 IASB는 적절한 가상의 파생상품에 대한 식별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요구사항에 기반하고, 문단 6.9.9~6.9.10의 요구사항을 가상의 파생상품에 적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Designation of risk components <i>End of application of the Phase 1 exception</i> BC6.645 An entity may designate an item in its entirety or a component of an item as the hedged item in a hedging relationship. Paragraphs 6.3.7(a) and B6.3.8 of IFRS 9 allow entities to designate only changes in the cash flows or fair value of an item attributable to a specific risk or risks (risk component).	위험 구성요소의 지정 <i>1단계 예외사항의 적용 종료</i> BC6.645 위험회피관계에서 항목 전체나 항목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IFRS 9의 문단 6.3.7(1)과 B6.3.8은 특정 위험이나 복수의 위험(위험 구성요소)으로 생긴 항목의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변동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BC6.646 When developing the Phase 1 amendments, the IASB decided not to set an end date for applying the exception for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see paragraphs 6.8.7 - 6.8.8 of IFRS 9). The IASB considered that including an end date for that exception	BC6.646 1단계 개정을 개발할 때, IASB는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의 적용 종료일을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IFRS 9 문단 6.8.7~6.8.8 참조). IASB는 그 예외규정에 종료일을 포함하는 것은 기업에게 즉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could require an entity to immediately discontinue hedge accounting at a point in time because, as the reform progresses, a risk component based on the interest rate benchmark may no longer be separately identifiable (for example, as the market for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is established). As noted in paragraph BC6.597, in the IASB's view, such an immediate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of this exception in Phase 1. Therefore, when issuing the Phase 1 amendments, the IASB decided that an entity should cease applying the Phase 1 exception from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to a hedging relationship only when that hedging relationship is discontinued applying the requirements in IFRS 9.</p>	<p>다. 이는 개혁이 진전됨에 따라(예를 들어,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위험 구성요소는 더 이상 별도로 식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단 BC6.597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IASB의 견해에 따르면, 이와 같이 위험회피회계를 즉시 중단하는 것은 1단계의 이 예외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IASB는 1단계 개정을 공표할 때, IFRS 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에만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1단계 예외규정을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p>
<p>BC6.647 Having considere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hase 1 exception from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and the Phase 2 amendments to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IFRS 9, the IASB decided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at an entity is required to cease applying the Phase 1 exception from the separately identifiable</p>	<p>BC6.647 IFRS 9에서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1단계 예외규정과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2단계 개정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IASB는 기업이 1단계 예외규정을 야기했던 개혁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하는</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requirement when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which led to that exception, is no longer present.</p>	<p>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p>
<p>BC6.648 The IASB considered that continuing to apply the Phase 1 amendments after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is no longer present would not faithfully represent the actual characteristics of the elements of the hedging relationship in which the uncertainty has been eliminated nor the economic effects of the reform. The IASB therefore added paragraph 6.8.13 to IFRS 9 so the Phase 1 exception from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ceases to apply at the earlier of:</p> <p>(a) when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are made to the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component as set out in paragraph 6.9.1 of IFRS 9; or</p> <p>(b) when the hedging relationship in which the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component was designated is discontinued.</p>	<p>BC6.648 IASB는 개혁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다음에도 1단계 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그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에서 위험회피관계의 구성요소에 대한 실제 특성과 개혁의 경제적 효과 모두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IFRS 9에 문단 6.8.13을 추가하여,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다음 중 더 이른 시점에 중단하도록 하였다.</p> <p>(1) IFRS 9의 문단 6.9.1에서 명시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가 개혁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때</p> <p>(2)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가 지정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p>
<p><i>Application of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to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i></p> <p>BC6.649 In developing the Phase 2 amendments, the IASB was</p>	<p><i>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의 적용</i></p> <p>BC6.649 2단계 개정을 개발하면서, IASB는 문단 BC6.645~BC6.648에서 논의된 것과 유사한 고려사항이, 현금</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aware that considerations similar to those discussed in paragraphs BC6.645 - BC6.648 apply to designating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component in either a cash flow hedge or a fair value hedge. This is because an entity's ability to conclude that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meets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6.3.7(a) and B6.3.8 of IFRS 9 that a risk component must be separately identifiable and reliably measurable could be affected in the early stages of the reform.</p>	<p>흐름위험회피 또는 공정가치위험 회피에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지정하는 것에 적용된다고 인지하였다. 이는 위험 구성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IFRS 9의 문단 6.3.7(1)과 B6.3.8의 요구사항을 대체 지표 이자율이 충족한다고 기업이 결론지을 수 있는지가 개혁의 초기 단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p>
<p>BC6.650 Specific application guidance and examples on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are already set out in paragraphs B6.3.9 - B6.3.10 of IFRS 9. However, the IASB considered that an entity might expect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to meet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in IFRS 9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even though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 when designated as a risk component.</p>	<p>BC6.650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 적용 지침과 사례는 이미 IFRS 9의 문단 B6.3.9~B6.3.10에서 제시되었다. 그러나 IASB는 비록 대체 지표 이자율이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될 때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합리적 기간 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이 IFRS 9의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p>
<p>BC6.651 The amendment in paragraph 6.9.11 of IFRS 9 applies to a different set of instruments from</p>	<p>BC6.651 IFRS 9의 문단 6.9.11의 개정은 1단계 개혁의 예외규정과는 다른</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the Phase 1 exception. For items within the scope of paragraph 6.9.11 of IFRS 9,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has never been satisfied. In contrast, the population of hedging relationships to which the Phase 1 relief applied had already satisfied the qualifying criteria for hedge accounting to be applied. The IASB therefore considered that any relief from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in Phase 2 should be temporary.</p>	<p>금융상품의 집합(set)에 적용된다. IFRS 9 문단 6.9.11의 적용범위 내의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결코 충족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1단계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위험 회피관계의 전체 집단은 위험회피 회계의 적용조건을 이미 충족하였다. 그러므로 IASB는 2단계 개혁에서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경감규정도 한시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p>
<p>BC6.652 Consequently, in the 2020 Exposure Draft, the IASB proposed that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tha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 to be separately identifiable at the date it is designated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component would be deemed to have met the requirement at that date if, and only if, an entity reasonably expects that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will be separately identifiable within 24 months from the date it is designated as a risk component.</p>	<p>BC6.652 결과적으로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대체 지표 이자율이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별도로 식별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만, 대체 지표 이자율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되는 날에 별도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였다.</p>
<p>BC6.653 Respondents to the 2020 Exposure Draft agreed with this proposed amendment but asked the IASB to clarify the date from which the 24-month period applies. The IASB acknowledged respondents' concerns, and considered whether</p>	<p>BC6.653 2020년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개정안에 동의하였으나, IASB에 24개월의 기간을 기산하는 날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IASB는 의견제출자들의 우려사항에 공감하였고, 24개월의 기간</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the 24-month period applies:</p> <p>(a) on a hedge-by-hedge basis –that is, to each hedging relationship individually, beginning from the date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is designated as a risk component in that relationship; or</p> <p>(b) on a rate-by-rate basis – that is, to each alternative benchmark rate separately, beginning from the date when an entity first designates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as a hedged risk for the first time.</p>	<p>적용에 대하여 다음의 대안들을 고려하였다.</p> <p>(1) 개별 위험회피 기준 - 즉, 대체 지표 이자율이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된 날부터 각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p> <p>(2) 개별 이자율 기준 - 즉, 대체 지표 이자율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최초로 지정한 날부터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해 별도로 적용</p>
<p>BC6.654 The IASB acknowledged that applying the 24-month period to each hedging relationship individually (as proposed in the 2020 Exposure Draft) –that is, on a hedge-by-hedge basis –is consistent with the basis on which hedging relationships are designated. For each new hedge designation, an entity is required to assess whether the qualifying criteria to apply hedge accounting, including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have been met. However, the IASB also considered that applying the 24-month period to different</p>	<p>BC6.654 IASB는 24개월의 기간을 각 위험회피관계에 개별적으로(즉, 개별 위험회피 기준으로) 적용(2020년 공개초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음)하는 것은 위험회피관계가 지정된 기준과 일관된다고 인정하였다. 기업은 새로운 위험회피지정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위험회피회계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IASB는 또한 서로 다른 위험회피관계(동일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한)에 24개월의 기간을 서로 다른 시점에 적용하는 것은, 그 기</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hedging relationships (with the same alternative benchmark rate designated as a risk component) at different times could add an unnecessary operational burden as the period would end at different times and thus would need to be monitored over different periods, for different hedging relationships. For example, if an entity designates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as the risk component in two hedging relationships – the first designated on 31 March 20X1 and the second on 30 June 20X1 – the 24-month period for each hedge would begin and end at different dates, although the designated risk is the same in both hedging relationships.</p>	<p>간이 서로 다른 시점에 종료할 것이고 그 결과 서로 다른 위험회피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기간에 걸쳐 추적이 필요하여, 불필요한 운영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두 개의 위험회피관계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한 경우(첫 번째는 20X1년 3월 31일에, 두 번째는 20X1년 6월 30일에 지정한 경우), 비록 지정된 위험이 두 위험회피관계에서 동일하더라도, 각 위험회피에 대한 24개월의 기간은 서로 다른 날에 기산되고 종료될 것이다.</p>
<p>BC6.655 Therefore, the IASB decided that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6.9.11 would apply on a rate-by-rate basis so the 24-month period applies to each alternative benchmark rate separately and hence, starts from the date that an entity designates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component for the first time (but see also paragraph 7.2.45 of IFRS 9). The IASB considered that if an entity concludes for one hedging relationship that it no longer</p>	<p>BC6.655 그러므로 IASB는 문단 6.9.11의 요구사항을 ‘개별 이자율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고, 24개월의 기간을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별도로 적용하여,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최초로 지정한 시점에 해당 기간이 기산되도록 결정하였다(다만, IFRS 9 문단 7.2.45 참조). IASB는 기업이 하나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이 24개월 이내에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특정 대체 지표 이자율</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has a reasonable expectation that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would meet the requirements within the 24-month period, it is likely that the entity would reach the same conclusion for all other hedging relationships in which that particular alternative benchmark rate has been designated. Applying this requirement to the example in paragraph BC6.654, the 24-month period will begin on 31 March 20X1 for that alternative benchmark rate.</p>	<p>이 이미 지정된 그 밖의 모든 위험회피관계에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6.654의 사례에 이 요구사항을 적용할 경우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24개월의 기간은 20X1년 3월 31일부터 기산될 것이다.</p>
<p>BC6.656 Despite the requirement to apply the 24-month period to each alternative benchmark rate separately, the requirement to assess whether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is separately identifiable continues to separately apply to each hedging relationship. In other words, an entity is required to assess, for each hedge designation, whether the qualifying criteria to apply hedge accounting, including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are met for the remainder of the 24-month period (ie until 31 March 20X3 following from the example in paragraph BC6.654).</p>	<p>BC6.656 24개월의 기간을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별도로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이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요구사항은 각 위험회피관계에 별도로 계속 적용해야 한다. 즉, 기업은 각 위험회피 지정에 대하여 24개월의 잔여기간에(즉, 문단 BC6.654의 사례에서 20X3년 3월 31일까지)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p>
<p>BC6.657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 in IFRS 9 to continuously assess the separately identifiable</p>	<p>BC6.657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계속적으로 평가하는 IFRS 9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대체 지표 이자</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requirement, an entity's ability to conclude that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is a separately identifiable component requires assessment over the life of the hedging relationship including during the 24-month period discussed in paragraph BC6.655. However, the IASB decided that to avoid the complexity of detailed judgements during the 24-month period, an entity is required to cease applying the requirement during the 24-month period if, and only if, the entity reasonably expects that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will not meet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within that period. If an entity reasonably expects that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will not be separately identifiable within 24 months from the date the entity designates it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component for the first time, the entity is required to cease applying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6.9.11 of IFRS 9 to that alternative benchmark rate and discontinue applying hedge accounting prospectively from the date of that reassessment to all hedging relationships in which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was designated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component.</p>	<p>율이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구성 요소라고 결론 내리는 기업은 위험회피관계의 존속기간(문단 BC6.655에서 논의된 24개월의 기간 포함)에 걸쳐 별도의 식별가능성을 평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IASB는 24개월의 기간에 세부적 판단에 따른 복잡성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그 기간 내에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24개월의 기간에 해당 요구사항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최초 지정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기업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IFRS 9 문단 6.9.11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한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그 재평가일로부터 전진적으로 중단한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BC6.658 The IASB acknowledged that 24 months is an arbitrary period. However, in the IASB's view, a clearly defined end point is necessary because of the temporary nature of the amendment. The exception described in paragraphs 6.9.11 - 6.9.13 is a significant relief from one of the requirements that is a basis for the robustness of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therefore the relief is intentionally short-lived. The IASB considered that a period of 24 months will assist entities in applying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IFRS 9 particularly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transition to alternative benchmark rates. Therefore, the IASB decided that a period of 24 months from the date an entity first designates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component is a reasonable period and would enable entities to implement the reform and comply with any regulatory requirements, while avoiding potential short-term disruption as the market for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develops.</p>	<p>BC6.658 IASB는 24개월이 임의적으로 정한 기간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개정이 특성상 한시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된 종료시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단 6.9.11 ~ 6.9.13에 기술된 예외규정은 엄격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구성하는 요구사항 중 하나에 대한 유의적인 경감규정이고, 따라서 이 경감규정은 의도적으로 짧은 기간에 유효하다. IASB는 24개월의 기간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특히) 초기에, IFRS 9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기업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구성요소로 처음으로 지정한 날부터 24개월의 기간은 합리적인 기간이고,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시장의 성장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단기적 혼란을 막고, 기업이 개혁을 이행하고 모든 규제 요구사항을 따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p>
<p>BC6.659 While developing the proposals in the 2020 Exposure Draft, the IASB considered proposing alternative periods for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6.9.11</p>	<p>BC6.659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을 개발하는 동안 12개월의 기간 또는 24개월보다 긴 기간을 포함해 IFRS 9의 문단 6.9.11에 대한 대체 기간</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of IFRS 9, including a period of 12 months or a period longer than 24 months. However, the IASB acknowledged the diversity in the approaches to the reform or replacement of interest rate benchmarks and the timing of the expected completion across various jurisdictions. The IASB was concerned that 12 months would not provide sufficient time across all jurisdictions. At the same time, the IASB considered that entities may not be able to have a reasonable expectation that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would satisfy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over a period longer than 24 months.</p>	<p>을 제시할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 또는 대체, 그리고 여러 국가에 걸쳐 예상되는 완료시점에 대한 접근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하였다. IASB는 12개월은 모든 국가에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하였다. 이와 동시에, IASB는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24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걸쳐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았다.</p>
<p>BC6.660 The IASB emphasised that the amendments apply only for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and not the reliably measurable requirement. Therefore, if the risk component is not reliably measurable, either when it is designated or thereafter,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would not meet the qualifying criteria to be designated as a risk component in a hedging relationship. Similarly, if the hedging relationship fails to meet any other qualifying criteria set out in IFRS 9 to apply hedge accounting, either at the date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is</p>	<p>BC6.660 IASB는 이 개정이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만 적용되고 신뢰성 있는 측정가능성 요구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위험 구성요소가 지정된 시점이나 그 후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경우 대체 지표 이자율은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하는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기업은 대체 지표 이자율이 지정된 날이나 24개월 동안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 IFRS 9에서 정한 다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날부터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designated or during the 24-month period, the entity is required to discontinue hedge accounting prospectively from that date. The IASB decided that providing relief only for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would achieve the objective described in paragraph BC5.290.	로 중단해야 한다. IASB는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경감규정을 제공하면 문단 BC5.290에서 기술한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Chapter 2)	시행일과 경과규정(제7장)
<p>...</p> <p>Amendments for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 (August 2020)</p> <p>Mandatory application</p> <p>BC7.86 The IASB decided to require application of the Phase 2 amendments. The IASB considered that allowing voluntary application of these amendments could lead to selective application to achieve specific accounting results. The IASB also noted that the amendments are, to a large extent, interlinked and need to be applied consistently. Voluntary application, even if only possible by area or type of financial instruments, would reduce comparability of information provid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between</p>	<p>...</p> <p>‘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개정(2020년 8월)</p> <p>의무적용</p> <p>BC7.86 IASB는 2단계 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개정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도록 허용할 경우 특정 회계처리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 내용이 대체로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비록 자발적 적용이 금융상품의 일부 영역이나 유형에서만 가능할지라도,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또 IASB는 이 개정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재무제표 작성자의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에</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entities. The IASB also does not expect that mandatory application of these amendments would result in significant additional costs for preparers and other affected parties because these amendments are designed to ease the operational burden on preparers, while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and would not require significantly more effort by preparers in addition to what is already required to implement th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p>	<p>이 개정의 의무적용이 재무제표 작성자와 그 밖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유의적인 추가 원가를 들게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며, 재무제표 작성자에게 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미 요구되는 것 이외에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p>
End of application	적용 종료
<p>BC7.87 The IASB did not add specific end of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the Phase 2 amendments because the application of these amendments is associated with the point at which changes to financial instruments or hedging relationships occur as a result of the reform. Therefore, by design, the application of these amendments has a natural end.</p>	<p>BC7.87 IASB는 2단계 개정의 적용이 개혁의 결과로 발생하는 금융상품이나 위험회피관계의 변경 시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2단계 개정의 적용 종료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에 따라 이 개정의 적용은 자연스럽게 종료된다.</p>
<p>BC7.88 The IASB noted that, in a simple scenario, the Phase 2 amendments will be applied only once to each financial instrument or element of a hedging relationship. However, the IASB acknowledged that because of differences in the approach to the reform applied in</p>	<p>BC7.88 IASB는 간단한 시나리오에서 2단계 개정이 각 금융상품이나 위험회피관계의 요소에 한 번만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국가별로 적용되는 개혁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개혁을 이행하려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different jurisdictions, and differences in timing, implementing the reform could require more than one change to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a financial asset or a financial liability. This could be the case, for example, when a central authority, as the administrator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undertakes a multi-step process to replace an interest rate benchmark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As each change to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the instrument is made as required by the reform, an entity would be required to apply the Phase 2 amendments to account for that change.</p>	<p>결정하는 기준이 여러 번 변경되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중앙 기관이 이자율지표의 관리자로서 이자율지표를 대체하는 다단계 프로세스에 착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기업은 이 개혁에 따라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기업은 이러한 변경을 회계 처리하기 위해 2단계 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p>
<p>BC7.89 As noted in paragraph 6.9.3 of IFRS 9, the IASB considered that an entity may be required to amend the formal designation of its hedging relationships at different times, or to amend the formal designation of a hedging relationship more than once. For example, an entity may first mak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to a derivative designated as a hedging instrument, while only making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to the financial instrument</p>	<p>BC7.89 IFRS 9의 문단 6.9.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기업이 서로 다른 시기에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인 지정을 여러 번 변경하여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기업은 먼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에 개혁 요구사항을 변경하고, 그 이후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개혁 요구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 개정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설명을 수정하기 위</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designated as the hedged item later. In applying the amendments, the entity would be required to amend the hedge documentation to amend the description of the hedging instrument. The hedge documenta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 would then have to be amended again to change the description of the hedged item and/or hedged risk as required in paragraph 6.9.1 of IFRS 9.</p>	<p>해 위험회피문서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후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회피문서는 IAS 39의 문단 102P에서 요구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또는) 회피대상위험에 대한 설명을 변경하기 위해 다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p>
<p>BC7.90 The amendment for hedges of risk components in paragraph 6.9.11 of IFRS 9 applies only at the date an entity first designates a particular alternative benchmark rate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component for the first time if an entity's ability to conclude that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is separately identifiable is directly affected by the reform. Thus, an entity could not apply this amendment in other circumstances in which the entity is not able to conclude that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is a separately identifiable risk component.</p>	<p>BC7.90 IFRS 9 문단 6.9.11의 일부 위험 구성요소의 위험회피에 대한 개정은, 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에 따라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면, 특정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일부 위험 구성요소로 최초 지정한 날에만 적용한다. 그러므로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별도로 식별되는 일부 위험 구성요소라고 결론지을 수 없는 그 밖의 상황에서는 이 개정을 적용할 수 없다.</p>
<p>Effective date and transition</p> <p>BC7.91 Acknowledging the urgency of the amendments, the IASB decided that entities must apply the Phase 2 amendments for annual periods</p>	<p>시행일과 경과규정</p> <p>BC7.91 IASB는 개혁의 긴급성을 인정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2단계 개정을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1, with earlier application permitted.	
BC7.92 The IASB decided that the amendments apply retrospectively in accordance with IAS 8 (except as discussed in paragraphs BC7.94 - BC7.98) because prospective application would have resulted in entities applying the amendments only if the transition to alternative benchmark rates occurred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amendments.	BC7.92 IASB는 문단 BC7.94~BC7.98에서 논의된 내용은 제외하고, 이 개정 내용을 IAS 8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전진 적용하게 되면,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이 개정의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BC7.93 The IASB acknowledged that there could be situations in which an entity amended a hedging relationship as specified in paragraph 6.9.1 of IFRS 9 in a period before the entity first applied the Phase 2 amendments; and in the absence of the Phase 2 amendments, IFRS 9 would require the entity to discontinue hedge accounting. The IASB noted that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in paragraph 6.9.1 of IFRS 9 (see paragraphs BC6.608 - BC6.609), apply equally in such situations. The IASB therefore considered that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 solely because of amendments an entity made in hedge documentation to reflect appropriately the changes required	BC7.93 IASB는 기업이 2단계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기 이전 기간에 IFRS 9의 문단 6.9.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하였고, 2단계 개정이 없는 경우에는 IFRS 9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IASB는 IFRS 9 문단 6.9.1의 개정 사유(문단 BC6.608~BC6.609 참조)가 그러한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언제 변경되었든 간에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기업이 위험회피문서를 수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by the reform, regardless of when those changes occurred, would not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p>	
<p>BC7.94 The IASB acknowledged that the reinstatement of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s is inconsistent with the IASB's previous decisions about hedge accounting in IFRS 9. This is because hedge accounting is applied prospectively and applying it retrospectively to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s usually requires the use of hindsight. However, the IASB considered that in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reform, an entity would typically be able to reinstate a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 without the use of hindsight. The IASB noted that this reinstatement of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s would apply to a very targeted population for a short period—that is, for hedging relationships which would not have been discontinued if the Phase 2 amendments relating to hedge accounting had been applied at the point of discontinuation. The IASB therefore proposed in the 2020 Exposure Draft that an entity would be required to reinstate</p>	<p>BC7.94 IASB는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회복이 IFRS 9의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IASB의 이전 결정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는 위험회피회계가 전진적으로 적용되고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후판단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개혁의 특정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중단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IASB는 이러한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회복이 단기간 동안 특정한 경우, 즉 위험회피회계 관련 2단계 개정이 중단된 시점에 적용되었다면 중단되지 않았을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기업이 제안된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기 전에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사항만으로 중단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hedging relationships that were discontinued solely due to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before an entity first applies the proposed amendments.	
<p>BC7.95 Respondents to the 2020 Exposure Draft generally supported and welcomed the transition proposals but asked the IASB to reconsider a specific aspect of the proposal that would require entities to reinstate particular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s. Specifically, these respondents highlighted circumstances in which reinstating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s would be challenging or have limited benefit—for example, when:</p> <p>(a) the hedging instruments or the hedged items in the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s have been subsequently designated into new hedging relationships;</p> <p>(b) the hedging instruments in the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s no longer exist at the date of initial application of the amendments—eg they have been terminated or sold; or</p> <p>(c) the hedging instruments in the discontinued hedging</p>	<p>BC7.95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으로 경과규정 제안을 지지하고 환영하였으나, 기업이 중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의 특정 측면을 재고할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특히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복원이 어렵거나 효익이 제한적일 수 있는 다음의 상황을 강조하였다.</p> <p>(1)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 수단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후속적으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되었다.</p> <p>(2)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 수단은 개정의 최초 적용일에도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예: 종료되거나 매각된 경우).</p> <p>(3)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 수단은 현재 다른 거래 포지션</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relationships are now being managed within a trading mandate with other trading positions and reported as trading instruments.	과 함께 거래의무 대상(trading mandate)으로 관리되며, 거래상품으로 보고된다.
BC7.96 The IASB noted that the transition requirements as proposed in the 2020 Exposure Draft to apply the amendments retrospectively in accordance with IAS 8—including the requirement to reinstate particular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s—would be subject to impracticability applying IAS 8. However, the IASB agreed with respondents’ concerns that there could be other circumstances in which it would not be impracticable to reinstate the hedging relationship, but such reinstatement would be challenging or would have limited benefit. For example, if the hedging instrument or hedged item has been designated in a new hedging relationship, it appears inappropriate to require entities to reinstate the ‘old’ (original) hedging relationship and discontinue or unwind the ‘new’ (valid) hedging relationship. Consequently, the IASB added paragraph 7.2.44(b) to IFRS 9 to address these concerns.	BC7.96 IASB는 개정 내용을 IAS 8에 따라 소급적용하도록 제안한 2020년 공개초안의 경과규정(중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도록 한 요구사항 포함)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되는 IAS 8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그 밖의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고 효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제출자들의 우려에 동의하였다. 예를 들어,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되었다면 ‘구(원래의)’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고 ‘신(유효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거나 해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우려를 다루기 위해 IFRS 9에 문단 7.2.44(2)를 추가하였다.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p>BC7.97 In addition, the IASB concluded that if an entity reinstates a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 applying paragraph 7.2.44 of IFRS 9, for the purpose of applying paragraphs 6.9.11 - 6.9.12 of IFRS 9, the 24-month period for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designated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component begins from the date of initial application of the Phase 2 amendments (ie it does not begin from the date the entity designated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component for the first time in the original hedging relationship).</p>	<p>BC7.97 또한 IASB는 IFRS 9의 문단 6.9.11 ~ 6.9.12를 적용하기 위해 IFRS 9의 문단 7.2.44를 적용하여 중단된 위험 회피관계를 회복하는 경우,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24개월 기간은 2단계 개정의 최초 적용일부터 기산한다고 결론 내렸다(즉, 원래의 위험회피관계에서 최초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지정한 날부터 기산하지 않는다).</p>
<p>BC7.98 Consistent with the transition requirements for Phase 1, the IASB decided that an entity is not required to restate comparative information. However, an entity may choose to restate prior periods if, and only if, it is possible without the use of hindsight.</p>	<p>BC7.98 IASB는 1단계의 경과규정과 일관되게 비교 정보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p>
<p>BC7.99 The IASB decided that it did not need to amend IFRS 1. Entities adopting IFRS Standards for the first time as required by IFRS 1 would apply IFRS Standards, including the Phase 2 amendments, and the transition requirements in IFRS 1 as applicable.</p>	<p>BC7.99 IASB는 IFRS 1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IFRS 1에서 요구하는 대로 IFRS를 최초 채택하는 기업은 2단계 개정과 적용가능한 IFRS 1의 경과규정을 포함하여 IFRS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p>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p> <p>This Basis for Conclusions accompanies, but is not part of, IAS 39.</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Paragraphs BC289–BC371 are added. A heading is added before paragraph BC289. For ease of reading new text is not underlined</p> </div>	<p>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의 개정</p> <p>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문단 BC289~BC371을 추가하였다. 문단 BC289 앞에 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p> </div>
Hedging	위험회피
<p>Amendments for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 (August 2020)</p> <p>Background</p> <p>BC289 In 2014,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recommended the reform of specified major interest rate benchmarks such as interbank offered rates (IBORs). Since then, public authorities in many jurisdictions have taken steps to implement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and have increasingly encouraged market participants to ensure timely progress towards</p>	<p>‘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개정(2020년 8월)</p> <p>배경</p> <p>BC289 2014년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은행간 대출금리(IBORs: Interbank offered rates)와 같은 주요 이자율지표의 개혁을 권고하였다. 그 이후, 많은 국가의 공적 기관에서는 이자율지표 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이자율지표를 대신하여 많은 거래 데이터에 기반하고 위험이 거의 없는 대체 이자율(대체 지표 이자율)로 상당 부분 대체하</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the reform of interest rate benchmarks, including the replacement of interest rate benchmarks with alternative, nearly risk-free interest rates that are based, to a greater extent, on transaction data (alternative benchmark rates). The progress towards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follows the general expectation that some major interest rate benchmarks will cease to be published by the end of 2021. The ter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refers to the market-wide reform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as described in paragraph 102B of IAS 39 (the reform).</p>	<p>는 등 이자율지표 개혁을 위하여 시기적절한 진전을 시장참여자에게 장려하였다. 이자율지표 개혁이 진전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2021년 말까지 일부 주요 이자율지표가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IAS 39 문단 102B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개혁’)을 말한다.</p>
<p>BC290 In September 2019, the Board amended IFRS 9, IAS 39 and IFRS 7, to address as a priority issues affecting financial reporting in the period before the reform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including the replacement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Phase 1 amendments). The Phase 1 amendments provide temporary exceptions to specific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due to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Paragraphs BC223 - BC288 discuss the background to the Phase 1 amendments.</p>	<p>BC290 2019년 9월에 IASB는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자율지표의 개혁 이전 기간의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루기 위해 IFRS 9, IAS 39와 IFRS 7을 개정하였다(1단계 개정). 1단계 개정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한시적 예외규정을 제공한다. 문단 BC233~BC288에서 1단계 개정의 배경을 논의한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BC291 After the issuance of the Phase 1 amendments, the Board commenced its Phase 2 deliberations. In Phase 2 of its project on the reform, the Board addressed issues that might affect financial reporting during the reform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including changes to contractual cash flows or hedging relationships arising from the replacement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replacement issues).</p>	<p>BC291 1단계 개정을 공표한 후, IASB는 2단계 심의를 시작하였다. IASB는 개혁에 관한 2단계 과제에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이슈(‘대체 이슈’)에서 발생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이나 위험회피관계의 변경을 포함하여 이자율지표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재무 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를 다루었다.</p>
<p>BC292 The objective of Phase 2 is to assist entities in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and to support preparers in applying IFRS Standards when changes are made to contractual cash flows or hedging relationships because of the transition to alternative benchmark rates. The Board observed that for information about the effects of the transition to alternative benchmark rates to be useful, the information has to be relevant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and faithfully represent the economic effects of that transition on the entity. This objective assisted the Board in assessing whether it should amend IFRS Standards or whether the requirements in IFRS Standards already provided an adequate basis to account for such effects.</p>	<p>BC292 2단계의 목적은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이나 위험회피관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IFRS를 적용하는 재무제표 작성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IASB는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것의 영향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해야 하며 그 전환이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목적은 IASB가 IFRS를 개정해야 하는지 또는 IFRS의 요구사항이 이미 그러한 영향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BC293 In April 2020 the Board published the Exposure Draft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 (2020 Exposure Draft), which proposed amendments to specific requirements in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nsurance Contracts and IFRS 16 Leases to address replacement issues.	BC293 2020년 4월 IASB는 대체 이슈를 다루기 위해 IFRS 9, IAS 39, IFRS 7, IFRS 4와 IFRS 16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2020년 공개초안)'를 발표하였다.
BC294 Almost all respondents to the 2020 Exposure Draft welcomed the Board's decision to address replacement issues and agreed that the proposed amendments would achieve the objective of Phase 2. Many respondents highlighted the urgency of these amendments, especially in some jurisdictions that have progressed towards the reform or the replacement of interest rate benchmarks with alternative benchmark rates.	BC294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의 대부분은 대체 이슈를 다루기로 한 IASB의 결정을 환영하였고, 이 개정이 2단계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 개정이 긴급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이자율지표를 개혁하거나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데 진전이 있는 일부 국가의 의견제출자들이 그러하였다.
BC295 In August 2020 the Board amended IFRS 9, IAS 39, IFRS 7, IFRS 4 and IFRS 16 by issuing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 (Phase 2 amendments). The Phase 2 amendments, which confirmed with modifications the proposals in the 2020 Exposure Draft added paragraphs 102O - 102Z3 and 108H - 108K of IAS 39. Paragraph 102M was amended.	BC295 2020년 8월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단계 개정)를 발표하여 IFRS 9, IAS 39, IFRS 7, IFRS 4와 IFRS 16을 개정하였다. 2020년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확정된 2단계 개정에서 IAS 39에 문단 102O~102Z3과 108H~108K를 추가하고, 문단 102M을 개정하였다.
Amendments to hedging relationships	위험회피관계의 변경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BC296 The Phase 2 amendments relating to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IAS 39 apply to hedging relationships directly affected by the reform as and when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102D - 102I of IAS 39 cease to apply to a hedging relationship (see paragraphs 102J - 102O of IAS 39). Therefore, an entity is required to amend the hedging relationship to reflect th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as and when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is no longer present with respect to the hedged risk or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of the hedged item or of the hedging instrument. The scope of the hedging relationships to which the Phase 2 amendments apply is therefore the same as the scope to which the Phase 1 amendments apply, except for the amendment to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which also applies to the designation of new hedging relationships (see paragraph 102Z3 of IAS 39).</p>	<p>BC296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과 관련된 2단계 개정은,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IAS 39 문단 102D~102I의 요구사항 적용을 중단하는 대로,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한다(IAS 39 문단 102J~102O 참조). 그러므로 개혁으로 발생하는 회피대상위험과 관련된 불확실성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대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여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도 적용되는 별도의 식별 가능성에 대한 요구사항의 개정(IAS 39 문단 102Z3 참조)을 제외하고, 2단계 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의 범위는 1단계 개정이 적용되는 범위와 동일하다.</p>
<p>BC297 As part of the Phase 1 amendments, the Board acknowledged that, in most cases, for uncertainty regarding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arising from the reform to be</p>	<p>BC297 1단계 계정의 일부로서, IASB는 이 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하여 개혁으로 발생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기초 금융상품이 대체</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resolved, the underlying financial instruments designated in the hedging relationship would have to be changed to specify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alternative benchmark rate-based cash flows.</p>	<p>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을 특정하도록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였다.</p>
<p>BC298 The Board noted that, applying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IAS 39, changes to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a financial asset or a financial liability (see paragraphs 5.4.6 - 5.4.9 of IFRS 9) that are designated in a hedging relationship would affect the designation of such a hedging relationship in which an interest rate benchmark was designated as a hedged risk.</p>	<p>BC298 IASB는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IFRS 9 문단 5.4.6~5.4.9 참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변경되면, 이자율지표가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p>
<p>BC299 The Board observed that amending the formal designation of a hedging relationship to reflect th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would result in the discontinua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 This is because, as part of the qualifying criteria for hedge accounting to be applied, IAS 39 requires the formal designation of a hedging relationship to be documented at inception. The hedge documentation includes identification of the hedging instrument, the hedged item, the nature of the risk being hedged</p>	<p>BC299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여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하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의 일부로서, IAS 39에서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문서화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위험회피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의 식별과 위험회피의 효과성 평가방법을 포함한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and how the entity will assess hedge effectiveness.	
<p>BC300 The Board therefore concluded that, in general,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IAS 39 are sufficiently clear about how to account for hedging relationships directly affected by the reform after the Phase 1 exceptions set out in paragraphs 102D - 102I of IAS 39 cease to apply. However, consistent with the Board's objective for Phase 2 (see paragraph BC292) and its objective for Phase 1 (see paragraph BC227), the Board considered that discontinuing hedge accounting solely due to the effects of the reform would not always reflec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on a hedging relationship and therefore would not always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p>	<p>BC300 따라서 IASB는 일반적으로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IAS 39의 문단 102D~102I에 명시된 1단계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한 후에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험회피관계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충분히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IASB는 2단계의 목적(문단 BC292 참조) 및 1단계의 목적(문단 BC227 참조)과 일관되게, 단지 개혁의 영향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개혁이 위험회피관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항상 반영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따라서 항상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p>
<p>BC301 Accordingly, the Board decided that if the reform requires a change to a financial asset or a financial liability designated in a hedging relationship (see paragraphs 5.4.6 - 5.4.8 of IFRS 9), it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Board's objective for Phase 2 to require the hedging relationship to be amended to reflect such a change without requiring discontinuation of that hedging</p>	<p>BC301 따라서 IASB는 만약 개혁에 따라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변경(IFRS 9의 문단 5.4.6~5.4.8 참조)해야 한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을 요구하지 않고 이러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2단계에 대한 IASB의 목적과 일관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변경하기 위해 이미 문서화한 위험회피관계의</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relationship. For these reasons, in the 2020 Exposure Draft, the Board proposed that an entity would be required to amend the formal designa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 as previously documented to make one or more of these changes:</p> <p>(a) designating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contractually or non-contractually specified) as a hedged risk;</p> <p>(b) amending the description of the hedged item so it refers to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p> <p>(c) amending the description of the hedging instrument so it refers to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or</p> <p>(d) amending the description of how the entity will assess hedge effectiveness.</p>	<p>공식적 지정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p> <p>(1) 대체 지표 이자율(계약상 특정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p> <p>(2)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을 수정</p> <p>(3)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기술을 수정</p> <p>(4) 위험회피 효과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을 수정</p>
<p>BC302 Respondents to the 2020 Exposure Draft agreed with the proposed amendments because those proposals would generally result in an entity continuing to apply hedge accounting to hedging relationships directly affected by the reform. Respondents also said that changes to the hedge designation necessary to reflect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are not expected to represent a</p>	<p>BC302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개정안에 동의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개정안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견제출자들은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위험회피지정의 변경은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위험관리전략 또는 위험관리목적의 변경을 나타내</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change in an entity's risk management strategy or risk management objective for hedging their exposure to interest rate risk. Therefore, the Board concluded that continuing to apply hedge accounting to the affected hedging relationships when making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would correspond with the Board's objective for issuing the Phase 1 amendments in September 2019.</p>	<p>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이 있을 때 영향을 받은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2019년 9월에 공표된 1단계 개정에 대한 IASB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p>
<p>BC303 However, notwithstanding their general agreement with the proposed amendments, some respondents asked the Board to clarify the scope and timing of the required changes to the affected hedging relationships.</p>	<p>BC303 그러나,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일반적인 동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요구되는 변경의 범위와 시기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p>
<p>BC304 Regarding the scope of the required changes to the affected hedging relationships, the Board acknowledged it may be necessary to amend the designated hedged portion of the cash flows or fair value being hedged when the hedging relationship is amended to reflect th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The Board also noted that th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described in paragraphs 5.4.6 - 5.4.8 of IFRS 9 were implicit in the required amendments to the hedging relationships as proposed in the 2020 Exposure Draft. In</p>	<p>BC304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요구되는 변경의 범위와 관련하여,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부분은 변경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IASB는 IFRS 9의 문단 5.4.6~5.4.8에 기술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들은 2020년 공개초안으로 제안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요구된 개정사항에 암묵적으로 포함되었다고 보았다. 기업이 영향을 받은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 하는 시점을 검토하면서, IASB는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운영노력과 위험회피관계의 변경에서 요구되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considering the timing of when entities are required to amend an affected hedging relationship, the Board sought to balance the operational effort needed to amend the hedging relationships with maintaining the required discipline in the amendments to hedging relationships. Specifically, it sought to address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specifying the timing of when entities have to amend hedging relationships as required in paragraph 102P of IAS 39—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the large volume of changes that entities may need to make in a relatively short time—while also ensuring that the amendments to hedging relationships are accounted for in the applicable reporting period.</p>	<p>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IASB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변경이 해당 보고기간에 회계처리 되도록 함과 동시에, (특히 기업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수많은 변경을 해야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 IAS 39의 문단 102P에 따라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만 하는 시점을 특정하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p>
<p>BC305 In response to respondents' requests, the Board revised the proposed wording in paragraph 102P of IAS 39 so that:</p> <p>(a) amending the description of the hedged item includes amending the description of the designated portion of the cash flows or fair value being hedged;</p> <p>(b) th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described in paragraphs 5.4.6 - 5.4.8 of</p>	<p>BC305 의견제출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IASB는 IAS 39 문단 102P의 제안된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p> <p>(1)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을 수정하는 것에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한다.</p> <p>(2) IFRS 9의 문단 5.4.6~5.4.8에 기술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들은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IFRS 9 are relevant when amending the formal designation of a hedging relationship; and</p> <p>(c) amendments to hedging relationships are required to be made by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during which the respective changes to the hedged item, hedged risk or hedging instrument are made.</p>	<p>변경하는 경우에 관련성이 있다.</p> <p>(3) 위험회피관계의 변경은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각각의 변경들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요구된다.</p>
<p>BC306 The Board noted that the Phase 1 amendments may cease to apply at different times to directly affected hedging relationships and to the different elements within a hedging relationship. Therefore, an entity may be required to apply the applicable Phase 2 exceptions in paragraphs 102P - 102Z2 of IAS 39 at different times, which may result in the designation of a particular hedging relationship being amended more than once. The Phase 2 amendments to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IAS 39 apply only to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se paragraphs. All other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IAS 39, including the qualifying criteria in paragraph 88 of IAS 39, apply to hedging relationships directly affected by the reform. In addition,</p>	<p>BC306 IASB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1단계 개정의 적용이 서로 다른 시점에 중단될 수도 있고, 한 위험회피관계의 서로 다른 요소들에 대한 1단계 적용이 서로 다른 시점에 중단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시점에 IAS 39 문단 102P~102Z2의 적용 가능한 2단계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할 수 있고, 그 결과 여러 번 특정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2단계 개정은 이러한 문단에서 특정된 요구사항에만 적용한다. IAS 39 문단 88의 적용요건을 포함하여 IAS 39의 다른 모든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개혁에 직접 영향을 받은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한다. 더불어, 1단계 개정에 대한 IASB의 결정(문단 BC254 참조)과 일관되게, 2단계 개정 또한 위험회피관계의 측정 요구사항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의 변동을</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consistent with the Board's decision for the Phase 1 amendments (see paragraph BC254), the Phase 2 amendments also do not provide an exception from the measurement requirements for a hedging relationship. Therefore, entities apply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89 or 96 of IAS 39 to account for any changes in the fair value of the hedged items or hedging instruments (also see paragraphs BC315 - BC320).</p>	<p>회계처리하기 위해, IAS 39 문단 89 또는 96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문단 BC315~BC320 참조).</p>
<p>BC307 As set out in paragraph BC5.318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the Board considered that changes might be made to a financial asset or a financial liability, or to the formal designation of a hedging relationship, in addition to thos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The effect of such additional changes to the formal hedge designation on the application of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would depend on whether those changes result in the derecognition of the underlying financial instrument (see paragraph 5.4.9 of IFRS 9).</p>	<p>BC307 IFRS 9 결론도출근거 문단 BC5.318에 명시된 바와 같이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추가하여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 또는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에 변경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식적 위험회피지정에 대한 추가적 변경의 효과는 이러한 변경들이 기초 금융자산의 제거를 야기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IFRS 9 문단 5.4.9 참조).</p>
<p>BC308 The Board therefore required an entity first to apply the applicable requirements in IAS 39 to determine if those additional changes result in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 for example,</p>	<p>BC308 그러므로 IASB는 기업이 IAS 39의 적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먼저 적용하여 이러한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는지(예: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추가하여 이루어진 변경의 결과로 위험회피대상항</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if the financial asset or financial liability designated as a hedged item no longer meets the qualifying criteria to be an eligible hedged item as a result of changes in addition to those required by the reform. Similarly, if an entity amends the hedge designation to make a change other than the changes described in paragraph 102P of IAS 39 (for example, if it extends the term of the hedging relationship), the entity would first determine if those additional changes to the hedge designation result in the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 If the additional changes do not result in the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 the designa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 would be amended as required by paragraph 102P of IAS 39.</p>	<p>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가 더 이상 적격한 위험회피 대상항목이 되기 위한 적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였다. 마찬가지로, 만약 기업이 IAS 39의 문단 102P에 명시된 변경이 아닌 변경을 위해 위험회피지정을 변경한다면(예: 위험회피관계의 기간을 연장), 기업은 이러한 위험회피지정의 추가적 변경이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먼저 결정할 것이다.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은 IAS 39의 문단 102P에서 요구한 것과 같이 변경될 것이다.</p>
<p>BC309 Some respondents to the 2020 Exposure Draft said that entities may change a hedging relationship as a result of the reform, but such a change is not necessary as a direct consequence of the reform. This could include, for example, designating a basis swap as a new hedging instrument to mitigate ineffectiveness arising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mpounding of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s used for cash</p>	<p>BC309 2020년 공개초안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개혁의 결과로 기업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경이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이러한 변경은 비파생상품과 파생상품에 대해 사용되는 대체 지표 이자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비효과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위험회피수단으로 베이스스왑을 지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이러한 변경을 IAS 39의 문단 102P에 규정하는 요구되는 변경의 범주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IASB는 개혁의</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products and derivatives. These respondents asked the Board to permit such changes to be in the scope of the required changes to the hedging relationship set out in paragraph 102P of IAS 39. The Board however decided not to extend the scope of paragraph 102P of IAS 39 to other changes an entity makes as a result of the reform. The Board considered that its objective for the Phase 2 amendments is not only to support entities in applying the IFRS requirements during the transition to alternative benchmark rates, but also to provide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with useful information about the effect of the reform on an entity's financial statements. To balance achieving this objective with maintaining the discipline that exists in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IAS 39, the Board limited the scope of the changes required to the designation of hedging relationships to only those changes that are necessary to reflect th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as described in paragraphs 5.4.6 - 5.4.8 of IFRS 9).</p>	<p>결과로 발생한 다른 변경에 대해 IAS 39 문단 102P의 범위를 확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2단계 개정의 목적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기간에 IFRS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기업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개혁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존재하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요구되는 변경의 범위를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는 데 필요한 변경으로만 제한하였다(IFRS 9 문단 5.4.6~5.4.8에서 기술한 바와 같음).</p>
<p><i>Replacement of hedging instruments in hedging relationships</i></p> <p>BC310 Respondents to the 2020 Exposure Draft said that, instead of</p>	<p><i>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의 대체</i></p> <p>BC310 2020년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changing the contractual terms of a derivative designated as a hedging instrument, counterparties may facilitate the transition to alternative benchmark rates using approaches that result in outcomes that are equivalent to changing the contractual terms of the derivative. These respondents asked whether using such an approach would be within the scope of the Phase 2 amendments – ie whether paragraph 102P(c) of IAS 39 would apply – if the approach results in an economic outcome that is similar to changing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the derivative.</p>	<p>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대신에, 계약상대방은 파생상품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야기하는 접근법을 사용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의견 제출자들은 만약 이러한 접근법이 파생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유사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2 단계 개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즉, IAS 39의 문단 102P(3)이 적용될 것인지)를 문의하였다.</p>
<p>BC311 The Board confirmed that, consistent with the rationale in paragraph BC5.298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it is the substance of an arrangement, rather than its form, that determines the appropriate accounting treatment. The Board considered that the conditions in paragraph 5.4.7 of IFRS 9 – ie the change is necessary as a direct consequence of the reform and is done on economically equivalent basis – are helpful in analysing the amendments to the contractual terms of derivatives described in paragraph BC310. In this context, the Board noted that if these other approaches result in</p>	<p>BC311 IFRS 9 결론도출근거 문단 BC5.298의 논리와 일관되게, IASB는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계약의 실질이라고 확인하였다. IASB는 IFRS 9 문단 5.4.7의 조건(즉, 변경이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으로 이루어짐)이 문단 BC310에서 기술한 파생상품 계약 조건의 변경을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IASB는 다른 접근법으로 파생상품의 최초 계약조건과 상당히 다른 조건을 가진 파생상품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변경은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IASB는 만약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된다면, 위험회피회계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derivatives with substantially different terms from those of the original derivative, the change may not have been made on an economically equivalent basis. The Board also noted that if a hedging instrument is derecognised, hedge accounting is required to be discontinued. Therefore, the Board decided that for hedge accounting to continue it is also necessary that the original hedging instrument would not be derecognised.</p>	<p>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위험 회피회계가 지속되려면 최초 위험회 피수단이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p>
<p>BC312 The Board considered these approaches described by respondents:</p> <p>(a) close-out and replace on the same terms (ie off-market terms) – An entity applying this approach would enter into two new derivatives with the same counterparty. These two would be, a new derivative that is equal and offsetting to the original derivative (so both contracts are based on the interest rate benchmark to be replaced), and a new alternative benchmark-based derivative with the same terms as the original derivative so its fair value at initial recognition is equivalent to the fair value – on that date – of the original derivative (ie the new derivative is off-market).</p>	<p>BC312 IASB는 의견제출자들이 명시한 다 음의 접근법들을 고려하였다.</p> <p>(1) ‘종결(close-out) 및 동일한 조건 으로 대체(즉, 시장외 조건)’ - 이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새로운 두 가지 파생상품을 체결할 것이다. 이 두 파생상품 중 하나는 최초 파생상품과 동일하고 최초 파생 상품과 상쇄되는 새로운 파생상품(이 두 계약은 모두 대체될 지 표 이자율에 근거함)이고, 다른 하나는 최초 파생상품과 조건이 동일하여 이것의 최초 인식시점 의 공정가치가 최초 파생상품의 해당일의 공정가치이며(즉, 새로운 파생상품은 시장에서 거래되 지 않는 상태(off-market)임) 새로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반 한 파생상품일 것이다. 이 접근 법에 따르면, 새로운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은 최초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과 동일하고, 최초 파</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Under this approach the counterparty to the new derivatives is the same as to the original derivative, the original derivative has not been derecognised and the terms of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derivative are not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original derivative. The Board therefore concluded that such an approach could be regarded as consistent with th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as required in paragraph 102P of IAS 39.</p> <p>(b) close-out and replace on substantially different terms (eg on-market terms) – An entity applying this approach would terminate (close-out) the existing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derivative with a cash settlement. The entity then enters into a new on-market alternative benchmark rate derivative with substantially different terms, so that the new derivative has a fair value of zero at initial recognition. Some respondents to the 2020 Exposure Draft were of the view that since this</p>	<p>생상품은 제거되지 않으며, 대체 지표 이자율 파생상품의 조건이 최초 파생상품의 조건과 상당히 다르지는 않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은 IAS 39의 문단 102P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된다고 여겨질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p> <p>(2) ‘종결(close-out) 및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대체(예, 시장 조건)’ - 이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존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현금결제로 종결할 것이다. 그런 다음 이 기업은 상당히 다른 조건이지만 시장 조건에 맞는 대체 지표 이자율 파생상품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새로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최초 인식시점에 영(0)이 되도록 할 것이다. 2020년 공개초안의 일부 의견 제출자들은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교환이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최초 파생</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approach does not result in any gain or loss recognised in profit or loss, it suggests the exchange was done on an economically equivalent basis. The Board disagreed with this view because the original derivative is extinguished and replaced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derivative with substantially different contractual terms. Therefore, this approach is not considered consistent with th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as required in paragraph 102P of IAS 39.</p> <p>(c) add a new basis swap— An entity applying this approach would retain the original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derivative but enter into a basis swap that swaps the existing interest rate benchmark for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The combination of the two derivatives is equivalent to modifying the contractual terms of the original derivative to replace the interest rate benchmark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p>	<p>상품이 소멸되고, 상당히 다른 계약 조건의 대체 지표 이자율 파생상품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은 IAS 39의 문단 102P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p> <p>(3) ‘새로운 베이스스 스왑의 추가’ - 이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최초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보유하되, 기존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베이스스 스왑을 체결할 것이다. 이들 파생상품의 결합은 최초 파생상품 계약 조건을 이자율지표에서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도록 변경하는 것과 동등하다. IASB는 원칙적으로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과 ‘이자율지표-대체 지표 이자율 스왑’의 조합은 최초 이자율지표에 기초한</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The Board noted that, in principle, the combination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derivative and an interest rate benchmark-alternative benchmark rate swap could achieve an outcome economically equivalent to amending the original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derivative. However, the Board observed that, in practice, basis swaps are generally entered into on an aggregated basis to economically hedge an entity's net exposure to basis risk, rather than on an individual derivative basis. The Board therefore noted that for this approach to be consistent with th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as described in paragraph 102P of IAS 39, the basis swap must be coupled or linked with the original derivative, ie done on an individual derivative basis. This is because a change to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a hedging instrument is made to an individual instrument and, to achieve</p>	<p>파생상품을 변경하는 것과 그 결과가 경제적으로 동등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실무에서 베이스스왑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베이스스 위험의 순노출을 경제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개별 파생상품 기준이 아니라 통합 기준으로 체결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이 IAS 39의 문단 102P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되려면, 반드시 베이스스왑이 최초 파생상품과 결합되거나 연계되어야 한다고(즉, 개별 파생상품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베이스스왑 변경은 개별 금융상품에 대해 이루어지고, 같은 결과를 얻으려면 베이스스왑이 개별 파생상품과 결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the same outcome, the basis swap would need to be coupled with an individual derivative.</p> <p>(d) novating to a new counterparty – An entity applying this approach would novate the original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derivative to a new counterparty and subsequently change the contractual cash flows on the novated derivative to replace the interest rate benchmark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The Board noted that novation of a derivative would result in the derecognition of the original derivative and thus would require hedge accounting to be discontinu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01 of IAS 39 (see further paragraphs B C 2 2 0 E - B C 2 2 0 G) . Therefore, this approach is not consistent with th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as set out in paragraph 102P of IAS 39.</p>	<p>(4) ‘새로운 거래상대방과의 경개 (novating)’ - 이 접근법을 적용한 기업은 최초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새로운 거래상대방과 경개하고, 후속적으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기 위해 경개된 파생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변경할 것이다. IASB는 파생상품의 경개가 최초 파생상품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따라서 IAS 39의 문단 101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될 것이라고 보았다 (추가적으로 문단 BC220E - BC220G 참조).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은 IAS 39의 문단 102P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되지 않는다.</p>
BC313 The Board therefore added paragraph 102Q of IAS 39 so that, an entity also applies paragraph 102P(c) of IAS 39 if	BC313 따라서 IASB는 IAS 39의 문단 102Q를 추가하여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IAS 39의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these three conditions are met:</p> <p>(a) the entity makes a change required by the reform using an approach other than changing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the hedging instrument (as described in paragraph 5.4.6 of IFRS 9);</p> <p>(b) the original hedging instrument is not derecognised; and</p> <p>(c) the chosen approach is economically equivalent to changing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the original hedging instrument (as described in paragraphs 5.4.7 and 5.4.8 of IFRS 9).</p>	<p>문단 102P(3)도 적용하도록 하였다.</p> <p>(1) 기업은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IFRS 9의 문단 5.4.6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이 아닌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한다.</p> <p>(2) 최초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되지 않는다.</p> <p>(3) 선택된 접근법은 최초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등하다(IFRS 9의 문단 5.4.7과 5.4.8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p>
<p>BC314 The Board decided not to add further amendments or provide application guidance because IAS 39 as amended provides an adequate basis for analysing the accounting requirements in context of the approaches described in paragraph BC312.</p>	<p>BC314 문단 BC312에서 기술된 접근법의 맥락에서, 개정된 IAS 39가 회계적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한 적합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IASB는 추가적인 개정이나 적용지침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p>
<p><i>Remeasurement of the hedged item and hedging instrument</i></p> <p>BC315 In paragraph BC254, the Board explained that no exceptions were made in Phase 1 to the measurement requirements for hedged items or hedging</p>	<p><i>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i></p> <p>BC315 IASB는 문단 BC254에서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관한 측정 요구사항은 1단계에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IASB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대한 인</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instruments. The Board concluded that the most useful information would be provided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if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and measurement of hedge ineffectiveness remain unchanged (see paragraph BC253). This is because recognising ineffectivenes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based on the actual results of a hedging relationship faithfully represent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reform, thereby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식과 측정의 요구사항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유용한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문단 BC253 참조). 이는 위험회피관계의 실제 결과에 기반한 비효과성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은 개혁의 경제적 영향을 충실하게 표현하며, 따라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BC316 Applying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IAS 39, a gain or loss arising from the remeasurement of the hedged item attributable to the hedged risk or from remeasuring the hedging instrument is reflected in profit or loss when measuring and recognising hedge ineffectiveness.	BC316 IAS 39의 위험회피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재측정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에 따른 손익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을 측정하고 인식할 때 당기손익으로 반영된다.
BC317 When deliberating the Phase 2 amendments, the Board considered that changes in the fair value of the hedged item or hedging instrument could arise when the formal designation of a hedging relationship is amended	BC317 2단계 개정사항을 심의할 때, IASB는 위험회피대상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이 변경될 때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BC318 The Board considered whether to provide an exception from the requirement to include in hedge ineffectiveness such fair value changes when they arise. The	BC318 IASB는 그러한 공정가치 변동이 발생할 때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그러한 공정가치 변동을 포함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예외규정을 둘지를 고려하였다. IASB가 고려하였지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Board considered, but rejected, these approaches:</p> <p>(a) recognising the measurement adjustment in profit or loss over time—An entity applying this approach would recognise the measurement adjustment in profit or loss over time (ie amortised) as the hedged item affects profit or loss. The Board rejected this approach because it would require an offsetting entry to be recognised either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or as an adjustment to the carrying amount of the hedged item or hedging instrument. Such an offsetting entry would fail to meet the definition of an asset or a liability in the Conceptual Framework. Adjusting the carrying amount of the hedged item or hedging instrument would result in the recognition of a net measurement adjustment of zero and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Board's decision that no exceptions would be made to the measurement of hedged items or hedging instruments. The Board also noted that such an approach would likely result in increased operational complexity because an entity would need to track adjustments that occur at different times for the purpose of amortising the adjustments in the period(s) in which the hedged</p>	<p>만 기각한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p> <p>(1) '측정 조정금액을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 -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걸쳐 측정 조정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즉, 상각)할 것이다. IASB는 이 접근법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재무상태표에서 상계 계정을 인식하거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의 조정으로 상계 계정을 인식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계 계정은 '개념체계'의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측정 조정금액의 순액이 영(0)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측정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IASB의 결정과도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IASB는 또한 이러한 접근법이 운영상 복잡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기업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조정금액을 상각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한 조정금액을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item affects profit or loss.</p> <p>(b) recognising the measurement adjustment as an adjustment to retained earnings – An entity applying this approach would recognise the measurement adjustment as an adjustment to retained earnings during the period in which the measurement difference arises. However, the Board rejected this approach because the changes to the hedged risk might be driven by amendments to hedging relationships that may occur in different reporting periods. Therefore, recognising adjustments to retained earnings over time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Board’s previous decisions (throughout IFRS Standards) that an adjustment to retained earnings only applies on transition to new requirements in IFRS Standards. Furthermore, the Board noted that the measurement adjustment would meet the definition of income or expense in the Conceptual Framework</p>	<p>(2) ‘측정 조정금액을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 -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측정 조정금액을 측정치의 차이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IASB는 이 접근법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회피대상위험의 변동은, 서로 다른 보고기간에 발생했을 수 있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조정에서 기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정금액을 기간에 걸쳐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하는 것은 IFRS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으로의 전환하는 경우에만 이익잉여금을 조정한다는 (IFRS 기준 전반에 걸친) IASB의 과거 결정들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또 IASB는 측정 조정금액이 ‘개념체계’의 수익과 비용(income or expense)의 정의를 충족할 것이고, 따라서 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IASB는 또한 측정 조정금액을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는 것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측정에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and therefore should be recognised in the statement of profit or loss. The Board also noted that recognising measurement adjustments directly in retained earnings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decision that no exceptions should be made to the measurement of hedged items or hedging instruments.</p>	
<p>BC319 Some respondents to the 2020 Exposure Draft said they would not expect any significant changes in fair value to arise from the remeasurement of a hedged item or hedging instrument based o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That is because these amendments would apply only when the conditions in paragraph 5.4.7 of IFRS 9 are met, which require that changes are made on an economically equivalent basis. The Board acknowledged these comments noting that, applying paragraph 102P of IAS 39, a significant change in fair value arising from the remeasurement of the hedged item or the hedging instrument indicates that the changes were not made on an economically equivalent basis. Furthermore, the Board observed that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102P(b) of IAS 39 which requires</p>	<p>BC319 2020년 공개초안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근거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으로 발생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이 유의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이 개정이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에서 이루어진 변동을 요구하는 IFRS 9의 문단 5.4.7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IASB는 이러한 의견이 IAS 39의 문단 102P를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에서 생기는 공정가치의 변동이 유의적이라면 그 변동은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변동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또 IASB는 IAS 39 문단 102P(2)의 요구사항에서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어서 기업들은 위험회피대상항</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the description of the designated portion for the cash flows or fair value being hedged enables entities to amend a hedging relationship to minimise fair value changes on the remeasurement of the hedged item or the hedging instrument.	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최소화하도록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할 것이라고 보았다.
BC320 The Board therefore confirmed its previous decision not to provide an exception from the requirements in IAS 39 regarding the measurement and recognition of hedge ineffectiveness. Therefore, an entity would apply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89 (for a fair value hedge) and 96 (for a cash flow hedge) of IAS 39 for the measurement and recognition of hedge ineffectiveness. The Board considered that accounting for such fair value changes in any other way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decision to continue applying hedge accounting for such amended hedging relationships (see paragraph 102P of IAS 39). In the Board's view, applying the requirements in IAS 39 for the recognition and measurement of ineffectiveness reflect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amendments to the formal designation of a hedging relationship and therefore,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BC320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대한 측정과 인식과 관련하여 IAS 39의 요구사항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과거의 결정을 확정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측정에 IAS 39의 문단 89(공정가치위험회피)와 문단 96(현금흐름위험회피)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것이다. IASB는 공정가치 변동을 그 밖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그러한 변경된 위험회피관계에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결정(IAS 39 문단 102P 참조)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비효과성의 인식과 측정에 IAS 3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에 대한 변경의 경제적 영향을 반영하고, 따라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Accounting for qualifying hedging relationships</p> <p><i>Retrospective effectiveness assessment</i></p> <p>BC321 Applying the Phase 1 exception in paragraph 102G of IAS 39, an entity is not required to discontinue a hedge accounting relationship because the actual results of the hedge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 AG105(b) of IAS 39. Applying paragraph 102M of IAS 39, an entity is required to cease applying this exception when the uncertainty is no longer present with respect to the hedged risk and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of the hedged item and hedging instrument, unless the hedging relationship is discontinued before that date. As with the other Phase 1 amendments, at the date the exception in paragraph 102G of IAS 39 ceases to apply, an entity must apply the requirements in IAS 39 (as amended by the Phase 2 amendments). Therefore, at that time, an entity would apply paragraph AG105(b) of IAS 39 to assess whether the actual results of the hedge are within a range of 80 - 125 per cent</p>	<p>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p> <p>소급적 효과성 평가</p> <p>BC321 IAS 39 문단 102G의 1단계 예외규정을 적용하면서,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IAS 39 문단 AG105(2)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IAS 39의 문단 102M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관계가 이전에 중단되지 않았다면, 회피대상위험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자율지표에 기초하는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 기업은 다른 1단계 요구사항과 더불어, IAS 39 문단 102G의 예외규정 적용을 중단하는 날에 IAS 39의 요구사항(2단계 개정 포함)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그 시점에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80~125%의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IAS 39의 문단 AG105(2)를 적용할 것이고, 그 결과가 해당 범위 밖에 있을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할 것이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and, if the results are outside that range, discontinue hedge accounting.	
BC322 The Board considered that when paragraph 102G of IAS 39 ceases to apply and an entity first applies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AG105(b) of IAS 39 to assess the retrospective effectiveness of a hedging relationship, the hedging relationship could fail the retrospective assessment if the entity assesses hedge effectiveness on a cumulative basis. In the Board's view, this outcome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Board's objective for Phase 1. Specifically, it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of the exception to prevent the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 solely due to the effects of the uncertainties arising from the reform on the actual results of a hedge while recognising all ineffectivenes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BC322 IASB는 기업이 IAS 39 문단 102G의 적용을 중단하고 위험회피관계의 소급적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IAS 39의 문단 AG105(2)의 요구사항을 최초로 적용할 때, 누적기준으로 위험회피 효과성을 평가한다면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소급적 평가에 실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IASB는 이러한 결과가 1단계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구체적으로 재무제표에 모든 비효과성을 인식하면서, 개혁에서 생긴 불확실성이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에 미치는 영향만을 이유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는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BC323 To address the issue described in paragraph BC322, the 2020 Exposure Draft proposed an amendment to IAS 39 that would require an entity, only for the purpose of applying the retrospective assessment, to reset to zero the cumulative fair value changes of the hedged item and the hedging instrument when the exception from the retrospective	BC323 문단 BC322에서 기술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20년 공개초안은 소급적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할 때, 기업이 소급적 평가 적용의 목적으로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누계액을 영(0)으로 재설정하도록 하는 IAS 39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된 개정안은 누적기준으로 소급적 효과성을 평가할 때에만 적용될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assessment ceases to apply. This proposed amendment would apply only when an entity assesses retrospective effectiveness on a cumulative basis (ie using the dollar offset method on a cumulative basis). As required by IAS 39, the entity would continue to measure and recognise hedge ineffectiveness by comparing the actual gains or losses on the hedged item to those on the hedging instrument.</p>	<p>것이다[누적기준에 따른 금액적 상계 방법(dollar offset method)]. 기업은 IAS 39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실제 손익을 위험회피수단의 실제 손익과 비교하여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속 측정하고 인식할 것이다.</p>
<p>BC324 Respondents to the 2020 Exposure Draft agreed with the objective of this proposed amendment but identified particular circumstances in which it could unintentionally cause some hedging relationships to fail the retrospective effectiveness assessment. For example, this could be the case when there is market volatility during the initial period following the transition to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Such volatility could cause the retrospective effectiveness assessment to breach the 80-125 per cent threshold because an entity would be precluded from assessing effectiveness based on data prior to the reset date even if that data would show that the hedging relationship actually is effective over a longer time horizon. The Board agreed with these comments and therefore, amended</p>	<p>BC324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이 제안된 개정안의 목적에는 동의하였으나, 일부 위험회피관계의 소급적 효과성 평가에서 실패하게 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특정 상황을 식별하였다. 예를 들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한 초기에 시장 변동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변동성에 따라 소급적 효과성 측정이 80~125%라는 임계치를 넘을 수 있다. 이는 재설정일 전의 자료가 더 긴 기간 동안 위험회피관계가 실제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더라도, 재설정일 전의 자료를 기초로 효과성을 평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IASB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여, IAS 39의 문단 102V를 수정하였다. 이 문단에서는 기업이 소급적 효과성을 측정할 목적으로 공정가치 변동누계액을 영(0)으로 재설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설정할 수 있도록(즉,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IASB는 이러한 개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위험회</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paragraph 102V of IAS 39 so that it permits, rather than requires, entities (ie entities may elect) to reset to zero the cumulative fair value changes for the purpose of assessing the retrospective effectiveness of a hedging relationship on a cumulative basis. Considering the nature of this amendment, the Board decided this election is made on an individual hedging relationship basis.</p>	<p>피관계별로 선택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p>
<p><i>Prospective assessments</i></p> <p>BC325 The Phase 1 exception in paragraph 102F of IAS 39 requires an entity to assume that, for the purpose of the prospective effectiveness assessment as required by paragraphs 88(b) and AG105(a) of IAS 39,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cash flows and/or the hedged risk (contractually or non-contractually specified) are based, is not altered as a result of the reform. As noted in paragraph 102L of IAS 39, this exception ceases to apply to the hedged item and the hedging instrument, respectively, at the earlier of, when there is no longer uncertainty about the hedged risk or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and</p>	<p><i>전진적 평가</i></p> <p>BC325 IAS 39 문단 102F의 1단계 예외규정은 기업이 IAS 39의 문단 88(2)와 문단 AG105(1)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전진적 효과성 평가의 목적으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과(또는)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 지표(계약상 특정되거나 특정되지 않음)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것을 요구한다. IAS 39의 문단 102L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예외규정은 회피대상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때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속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중 이른 시점에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적용하는 것을 각각 중단한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when the hedging relationship that the hedged item and the hedging instrument are a part of is discontinued.	
BC326 Consistent with the Board's considerations on the highly probable requirement (see paragraphs BC327 - BC328), the Board considered that, when the formal designation of a hedging relationship has been amended (see paragraph 102P of IAS 39), the prospective assessment should be performed based o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on which the hedged cash flows and/or the hedged risk will be based. The Board therefore provided no exceptions from the prospective assessment for the period after the Phase 1 exception in paragraph 102F of IAS 39 ceases to apply.	BC326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발생가능성의 요구사항에 대한 IASB의 검토결과와 일관되게(문단 BC327~BC328 참조),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이 변경될 때(IAS 39 문단 102P 참조), 전진적 평가는 위험회피현금흐름과(또는)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할 대체 지표 이자율에 근거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IAS 39 문단 102F의 1단계 예외의 적용이 중단된 후의 기간에 전진적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
<i>Amounts accumulated in the cash flow hedge reserve</i> BC327 During the period in which a hedging relationship is affected by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paragraph 102D of IAS 39 requires an entity to assume that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cash flows (contractually or non-contractually specified) are based is not altered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a forecast transaction (or a component thereof) is highly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 BC327 개혁에 따라 발생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IAS 39의 문단 102D는 예상거래(또는 그 구성요소)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결정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되거나 특정되지 않음)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도록 한다. 기업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probable. An entity is required to cease applying this exception at the earlier of the date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is no longer present with respect to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of the hedged item; and the date the hedging relationship of which the hedged item is a part of is discontinued.</p>	<p>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때 또는 위험회피 대상항목이 속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중 이른 시점에 이러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p>
<p>BC328 The Board considered that uncertainty about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the hedged cash flows would no longer be present when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cash flows are based is altered as required by the reform. In other words, uncertainty would no longer be present when an entity amends the description of the hedged item, including the description of the designated portion of the cash flows or fair value being hedged, applying paragraph 102P(b) of IAS 39. Thereafter, applying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88(c) of IAS 39, the assessment of whether the hedged cash flows are still highly probable to occur would be based on the contractual cash flows determined by reference to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p>	<p>BC328 IASB는 개혁에 따라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 지표가 변경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즉, 기업이 IAS 39의 문단 102P(2)를 적용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 포함)을 수정할 때, 불확실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IAS 39의 문단 88(3)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에 대한 평가는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여 결정된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할 것이다.</p>
<p>BC329 The Board noted that the amendment in paragraph 102P(b) of IAS 39 for amending the</p>	<p>BC329 IASB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공식적 지정의 변경과 관련하여 IAS 39</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formal designation of a hedging relationship could lead to changes in the hedged item. Therefore, if an entity uses a hypothetical derivative—that is, a derivative that would have terms matching the critical terms of the designated cash flows and the hedged risk, commonly used in cash flow hedges to represent the forecast transaction—the entity may need to change the hypothetical derivative to calculate the change in the value of the hedged item to measure hedge ineffectiveness.</p>	<p>의 문단 102P(2)의 개정이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변경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업이 가상의 파생상품(지정된 현금흐름의 주요한 조건과 회피대상위험이 일치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주로 현금흐름위험 회피에서 예상거래에 대응하여 사용됨)을 사용한다면,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을 측정할 목적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을 계산하기 위해 가상의 파생상품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p>
<p>BC330 Consequently, as hedge accounting would not be discontinued when a hedging relationship is amended for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see paragraph 102P of IAS 39), the Board decided that an entity would deem the amount accumulated in the cash flow hedge reserve at that point to be based o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on which the hedged future cash flows are determined. Therefore, in applying paragraph 97 of IAS 39, the amount accumulated in the cash flow hedge reserve would be reclassified to profit or loss in the same period(s) during which the hedged cash flows based o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affect profit or loss.</p>	<p>BC330 결과적으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관계가 변경될 때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IAS 39의 문단 102P 참조), IASB는 그 시점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을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 39의 문단 97을 적용할 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것이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BC331 The approach described in paragraph BC330 is consistent with the Board's view that, when a hedging relationship is amended for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more useful information is provided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if hedge accounting is not discontinued and amounts are not reclassified to profit or loss solely due to th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This is because such an approach will more faithfully reflect the economic effects of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p>	<p>BC331 문단 BC330에서 기술된 접근법은 위험회피관계가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따라 변경될 때,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고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이유로만 금액이 당기손익으로 재조정되지 않는다면, 더 유용한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는 IASB의 관점과 일관된다. 이는 이러한 접근법이 보다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의 경제적 효과를 더 충실하게 반영할 것이기 때문이다.</p>
<p>BC332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102E and 102K of IAS 39, the Board considered whether to provide similar relief for any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s in which the previously designated hedged item is subject to the reform. The Board observed that although a hedging relationship may have been discontinued, the amount accumulated in the cash flow hedge reserve arising from that hedging relationship remains in the reserve if the hedged future cash flows are still expected to occur. The Board noted that if the hedged future cash flows are still expected to occur, the previously designated hedged item will be subject to a change required by the reform, even if the hedging</p>	<p>BC332 IAS 39 문단 102E와 102K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IASB는 이전에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개혁의 대상이었으나 이미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유사한 경감규정을 둘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비록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그 위험회피관계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여전히 적립금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심지어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은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relationship has been discontinued.	
<p>BC333 The Board therefore decided that, for the purpose of applying paragraph 101(c) of IAS 39, an entity deems the cumulative gain or loss recognised in the other comprehensive income for a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 to be based o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on which the contractual cash flows will be based, which is similar to the amendment in paragraph 102W of IAS 39. That amount is reclassified to profit or loss in the same period(s) in which the hedged future cash flows based o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affect profit or loss.</p>	<p>BC333 그러므로 IASB는 IAS 39의 문단 101(3)을 적용할 때, 기업은 IAS 39 문단 102W의 개정과 유사하게,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결정하였다. 그 금액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p>
<p>BC334 Some respondents to the 2020 Exposure Draft asked the Board to clarify whether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102W - 102X of IAS 39 require the retrospective measurement of the hedged item based o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based cash flows—in other words, whether an entity would be required to recalculate what the cumulative gain or loss recognised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would have been if the hedged item was based o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since inception.</p>	<p>BC334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 제출자들은 IASB에게 IAS 39 문단 102W~102X의 요구사항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소급적 측정을 요구하는지(즉, 기업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개시 이후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였을 경우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재계산해야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BC335 The Board considered that the cumulative gain or loss recognised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is adjusted as required by paragraph 96 of IAS 39 (ie the cumulative gain or loss recognised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is not subject to separate measurement requirements, but instead is derived from the cumulative changes in the fair value of the hedged item (present value) and hedging instrument). The Phase 2 amendments do not include an exception from the measurement requirements in IFRS 9. Accordingly, the fair value of the hedging instrument or of the hedged item (ie the present value of the cumulative changes in the hedged expected future cash flows) is determined at the measurement date based on the expected future cash flows and assumptions that market participants would use. In other words, the fair values are not determined retrospectively. The Board therefore considered that the cumulative gain or loss recognised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is not remeasured as if it had been based o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since incep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p>	<p>BC335 IASB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IAS 39의 문단 96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조정된다고(즉,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별도의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위험회피대상항목(현재가치)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누계액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2단계 개정은 IFRS 9의 측정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즉, 위험회피대상 기대 미래현금흐름 변동누계액의 현재가치)는 기대 미래 현금흐름과 시장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일에 결정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공정가치는 소급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IASB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위험회피관계가 개시된 이후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해 왔던 것처럼 재측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p>
<p>BC336 The Board confirmed that the amendments in paragraphs 102W - 102X of IAS 39 extend to cash</p>	<p>BC336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이 되는 포트폴리오가 개방형인지 또</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flow hedges, regardless of whether the cash flow hedge is for an open or closed hedged portfolio. The general reference to cash flow hedges in these paragraphs reflects such scope, therefore, the Board considered that explicitly addressing open or closed hedged portfolios was unnecessary.</p>	<p>는 폐쇄형인지에 관계없이, IAS 39의 문단 102W~102X의 개정이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확장된다고 확정하였다. 이 문단의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일반적인 참조는 그러한 범위를 반영하므로, IASB는 개방형 또는 폐쇄형 포트폴리오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p>
<p>Groups of items</p> <p>BC337 The Board considered that for groups of items designated as hedged items in a fair value or cash flow hedge, the hedged items could consist of items still referenced to the interest rate benchmark as well as items already referenced to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Therefore, an entity could not amend the description of the hedged risk or the hedged item, including the designated portion of the cash flows or fair value being hedged with reference only to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for the whole group. The Board also considered that it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the Phase 2 amendments to require the discontinuation of such a hedging relationship solely because of the effects of the reform. In the Board's view, the</p>	<p>항목 집합</p> <p>BC337 IASB는 공정가치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이미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는 항목뿐만 아니라 이자율지표를 여전히 참조하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전체 집합에 대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만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회피대상 위험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을 포함)에 대한 기술을 수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IASB는 또한 오직 개혁의 영향을 이유로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2단계 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다른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요구사항과 경감규정이, 동적위험회피</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same requirements and relief that apply to other hedging relationships should apply to groups of items designated as hedged items, including dynamic hedging relationships.</p>	<p>관계(dynamic hedging relationships)를 포함하여, 위험회피 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p>
<p>BC338 Paragraphs 102Y - 102Z of IAS 39 therefore require an entity to allocate the individual hedged items to subgroups based on the benchmark rate designated as the hedged risk for each subgroup and to apply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78 and 83 of IAS 39 to each subgroup separately. The Board acknowledged that this approach is an exception to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IAS 39 because other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cluding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89 and 96 of IAS 39, are applied to the hedging relationship in its entirety. However, in the Board's view, the robustness of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s maintained because if any subgroup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78 and 83 of IAS 39, the entity is required to discontinue hedge accounting for that entire hedging relationship. The Board concluded this accounting outcome is appropriate because the basis for designating the hedged item on a group basis is that the entity is managing the designated hedge for the group as a whole.</p>	<p>BC338 그러므로 IAS 39의 문단 102Y~102Z는 각 하부 집합에 대한 회피 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하부 집합에 개별 위험회피대상항목을 배분하고, IAS 39의 문단 78과 83의 요구사항을 각각의 하부 집합에 개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IAS 39의 문단 89과 96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그 밖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이 전체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되기 때문에,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이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IASB의 견해에 따르면, 하부 집합들 중 일부가 IAS 39 문단 78과 83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하므로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의 엄격성이 유지된다. IASB는 이러한 회계처리의 결과가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는 집합 기준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는 근거가 기업이 집합 전체에 대하여 지정된 위험회피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BC339 The Board acknowledged that preparers may incur additional costs to assess each subgroup in a hedging relationship separately, and to track items moving from one subgroup to another. However, the Board concluded that an entity is likely to have such information available because IAS 39 already requires it to identify and document hedged items designated within a hedging relationship with sufficient specificity. Therefore, the Board concluded that the benefits of avoiding the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 and the resulting accounting impacts outweigh the associated costs of this exception.</p>	<p>BC339 IASB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하나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각각의 하부 집합별로 개별적으로 측정하고, 하부 집합 간 이동하는 항목을 추적하는 데 원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IAS 39가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이미 충분히 세부적으로 식별하고 문서화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므로 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과 이에 따른 회계처리의 영향을 회피하는 효익이 이러한 예외의 관련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p>
<p>BC340 Respondents to the 2020 Exposure Draft asked the Board whether the requirement for groups of items applies to dynamic hedges of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items when the items mature and are replaced with alternative benchmark rate-based items. The Board considered that although the objective of the Phase 2 amendments is to provide relief when individual items transition to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the replacement of items that have expired with items that reference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is a natural consequence of a dynamic</p>	<p>BC340 2020년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항목이 만기가 되고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항목으로 대체될 때 항목 집합의 요구사항을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항목의 동적위험회피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IASB는 비록 2단계 개정의 목적이 개별 항목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될 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지만, 만료된 항목을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는 항목으로 대체하는 것은 동적위험회피관계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항목이 만기가 되었고, 그 항목을 대</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hedging relationship. Therefore, the Board observed that new items designated as part of the group to replac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items that have matured would be allocated to the relevant subgroup based on the benchmark rate being hedged.</p>	<p>체하기 위해 집합의 부분으로서 지정되는 새로운 항목은 위험회피되는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관련된 하부집합에 배분될 것으로 보았다.</p>
<p>BC341 Respondents also asked the Board to clarify how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102Y - 102Z of IAS 39 apply to the hypothetical derivative in a cash flow hedge, specifically, whether the hypothetical derivative could be amended (and therefore measured) based o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if the actual hedged item (such as a floating rate loan) has not yet transitioned to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The Board considered that IAS 39 does not include specific requirements for the hypothetical derivative because it is one possible way of calculating the change in the value of the hedged item to measure ineffectiveness. Therefore, the terms on which the hypothetical derivative is constructed replicate the hedged risk and the hedged cash flows of the hedged item an entity is hedging. The hypothetical derivative cannot include features in the value of the hedged item that exist only in the hedging</p>	<p>BC341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IAS 39의 문단 102Y ~ 102Z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가상의 파생상품에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실제 위험회피대상항목(예: 변동금리대출)이 아직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가상의 파생상품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변경(따라서 측정)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IASB는 IAS 39가 가상의 파생상품에 대해 비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분을 계산하는 가능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구체적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러므로 가상의 파생상품을 구조화하는 조건은 회피대상위험과 기업이 위험회피하려는 대상의 위험회피현금흐름을 복제하는 것이다. 가상의 파생상품은 위험회피수단에만 존재하는(그러나 위험회피대상항목에는 없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에 대한 특성을 포함할 수 없다. 그러므로 IASB는 적절한 가상의 파생상</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instrument (but not in the hedged item). The Board therefore decided that the identification of an appropriate hypothetical derivative is based on the requirements to measure hedge ineffectiveness and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include specific amendments for applying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102Y - 102Z to the hypothetical derivative.	<p>품에 대한 식별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요구사항에 기반하고, 문단 102Y~102Z의 요구사항을 가상의 파생상품에 적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다.</p>
<p>Designating financial items as hedged items</p> <p><i>End of application of the Phase 1 exception</i></p> <p>BC342 An entity may designate an item in its entirety or a portion of an item as the hedged item in a hedging relationship. Paragraphs 81 and AG99F of IAS 39 allow entities to designate only changes in the cash flows or fair value of an item attributable to a specific risk or risks (risk portion).</p>	<p>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p> <p><i>1단계 예외규정의 적용 종료</i></p> <p>BC342 위험회피관계에서 항목 전체나 항목의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IAS 39의 문단 81과 AG99F는 특정 위험이나 복수의 위험(위험 부분)으로 생긴 항목의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변동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p>
BC343 When developing the Phase 1 amendments, the Board decided not to set an end date for applying the exception for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see paragraphs 102H - 102I of IAS 39). The Board considered that including an end date for that exception could require an entity to immediately discontinue hedge accounting at a point in	BC343 1단계 개정을 개발할 때, IASB는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의 적용 종료일을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IAS 39 문단 102H~102I 참조). IASB는 그 예외규정에 종료일을 포함하는 것은 기업에게 즉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개혁이 진전됨에 따라(예를 들어,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시장이 형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time because, as the reform progresses, a risk portion based on the interest rate benchmark may no longer be separately identifiable (for example, as the market for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is established). As noted in paragraph BC283, in the Board's view, such an immediate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of this exception in Phase 1. Therefore, when issuing the Phase 1 amendments, the Board decided that an entity should cease applying the Phase 1 exception from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to a hedging relationship only when that hedging relationship is discontinued applying the requirements in IAS 39.</p>	<p>성됨에 따라),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위험 부분은 더 이상 별도로 식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단 BC28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IASB의 견해에 따르면, 이와 같이 위험회피회계를 즉시 중단하는 것은 1단계의 이 예외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IASB는 1단계 개정을 공표할 때, IAS 3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에만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1단계 예외규정을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p>
<p>BC344 Having considere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hase 1 exception from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and the Phase 2 amendments to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IAS 39, the Board decided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at an entity is required to cease applying the Phase 1 exception from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when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which led to that exception, is no longer present.</p>	<p>BC344 IAS 39에서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1단계 예외규정과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2단계 개정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IASB는 기업이 1단계 예외규정을 야기했던 개혁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BC345 The Board considered that continuing to apply the Phase 1 amendments after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is no longer present would not faithfully represent the actual characteristics of the elements of the hedging relationship in which the uncertainty has been eliminated nor the economic effects of the reform. The Board therefore added paragraph 102O to IAS 39 so the Phase 1 exception from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ceases to apply at the earlier of:</p> <p>(a) when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are made to the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portion as set out in paragraph 102P of IAS 39; or</p> <p>(b) when the hedging relationship in which the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portion was designated is discontinued.</p>	<p>BC345 IASB는 개혁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다음에도 1단계 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그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에서 위험회피관계의 구성요소에 대한 실제 특성과 개혁의 경제적 효과 모두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IAS 39에 문단 102O를 추가하여,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다음 중 더 이른 시점에 중단하도록 하였다.</p> <p>(1) IAS 39의 문단 102P에서 명시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이 개혁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때</p> <p>(2)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이 지정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p>
<p><i>Application of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to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i></p> <p>BC346 In developing the Phase 2 amendments, the Board was aware that considerations similar to those discussed in paragraphs BC342 - BC345 apply to designating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as a</p>	<p><i>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의 적용</i></p> <p>BC346 2단계 개정을 개발하면서, IASB는 문단 BC342~BC345에서 논의된 것과 유사한 고려사항이, 현금흐름 위험회피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서 대체 지표 이자율을</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portion in either a cash flow hedge or a fair value hedge. This is because an entity's ability to conclude that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meets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81 and AG99F of IAS 39 that a risk portion must be separately identifiable and reliably measurable could be affected in the early stages of the reform.</p>	<p>지정하는 것에 적용된다고 인지하였다. 이는 위험 부분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IAS 39의 문단 81과 AG99F의 요구사항을 대체 지표 이자율이 충족한다고 기업이 결론지을 수 있는지가 개혁의 초기 단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p>
<p>BC347 Specific requirements on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are already set out in paragraph 81 of IAS 39. However, the Board considered that an entity might expect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to meet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in IAS 39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even though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 when it is designated as a risk portion.</p>	<p>BC347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은 이미 IAS 39의 문단 81에서 제시되었다. 그러나 IASB는 비록 대체 지표 이자율이 위험 부분으로 지정될 때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합리적 기간 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이 IAS 39의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p>
<p>BC348 The amendment in paragraph 102Z1 of IAS 39 applies to different set of instruments from the Phase 1 exception. For items within the scope of paragraph 102Z1 of IAS 39,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has never been satisfied. In contrast, the population of hedging relationships to which the Phase 1 relief applied had already satisfied the qualifying criteria for hedge accounting to be applied. The</p>	<p>BC348 IAS 39의 문단 102Z1의 개정은 1단계 개혁의 예외규정과는 다른 금융상품의 집합(set)에 적용된다. IAS 39 문단 102Z1의 적용범위 내의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결코 충족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1단계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의 전체 집단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이미 충족하였다. 그러므로 IASB는 2단계 개혁에서 별도의 식</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Board therefore considered that any relief from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in Phase 2 should be temporary.</p>	<p>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경감규정도 한시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p>
<p>BC349 Consequently, in the 2020 Exposure Draft, the Board proposed that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tha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 to be separately identifiable at the date it is designated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portion would be deemed to have met the requirement at that date if, and only if, an entity reasonably expects that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will be separately identifiable within 24 months from the date it is designated as a risk portion.</p>	<p>BC349 결과적으로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대체 지표 이자율이 위험 부분으로 지정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별도로 식별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만, 대체 지표 이자율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되는 날에 별도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였다.</p>
<p>BC350 Respondents to the 2020 Exposure Draft agreed with this proposed amendment but asked the Board to clarify the date from which the 24-month period applies. The Board acknowledged respondents' concerns, and considered whether the 24-month period applies:</p> <p>(a) on a hedge-by-hedge basis – that is, to each hedging relationship individually, beginning from the date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is designated as a risk portion in that relationship; or</p>	<p>BC350 2020년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개정안에 동의하였으나, IASB에 24개월의 기간을 기산하는 날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IASB는 의견제출자들의 우려사항에 공감하였고, 24개월의 기간 적용에 대하여 다음의 대안들을 고려하였다.</p> <p>(1) 개별 위험회피 기준 - 즉, 대체 지표 이자율이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 부분으로 지정된 날부터 각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b) on a rate-by-rate basis – that is to, each alternative benchmark rate separately, beginning from the date when an entity first designates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as a hedged risk for the first time.	(2) 개별 이자율 기준 - 즉, 대체 지표 이자율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최초로 지정한 날부터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해 별도로 적용
BC351 The Board acknowledged that applying the 24-month period to each hedging relationship individually (as proposed in the 2020 Exposure Draft) – that is, on a hedge-by-hedge basis – is consistent with the basis on which hedging relationships are designated. For each new hedge designation, an entity is required to assess whether the qualifying criteria to apply hedge accounting, including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have been met. However, the Board also considered that applying the 24-month period to different hedging relationships (with the same alternative benchmark rate designated as a risk portion) at different times, could add an unnecessary operational burden as the period would end at different times and thus would need to be monitored over different periods, for different hedging relationships. For example, if an entity designates the alternative	BC351 IASB는 24개월의 기간을 각 위험회피관계에 개별적으로(즉, 개별 위험회피 기준으로) 적용(2020년 공개초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음)하는 것은 위험회피관계가 지정된 기준과 일관된다고 인정하였다. 기업은 새로운 위험회피지정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위험회피회계 적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IASB는 또한 서로 다른 위험회피관계(동일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위험 부분으로 지정한)에 24개월의 기간을 서로 다른 시점에 적용하는 것은, 그 기간이 서로 다른 시점에 종료할 것이고 그 결과 서로 다른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기간에 걸쳐 추적이 필요하여, 불필요한 운영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두 개의 위험회피관계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위험 부분으로 지정한 경우(첫 번째는 20X1년 3월 31일에, 두 번째는 20X1년 6월 30일에 지정한 경우), 비록 지정된 위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benchmark rate as the risk portion in two hedging relationships—the first designated on 31 March 20X1 and the second on 30 June 20X1—the 24-month period for each hedge would begin and end at different dates, although the designated risk is the same in both hedging relationships.</p>	<p>험이 두 위험회피관계에서 동일하더라도, 각 위험회피에 대한 24개월의 기간은 서로 다른 날에 기산되고 종료될 것이다.</p>
<p>BC352 Therefore, the Board decided that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102Z1 would apply on a rate-by-rate basis so the 24-month period applies to each alternative benchmark rate separately and hence, starts from the date that an entity designates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portion for the first time (but see also paragraph 108J of IAS 39). The Board considered that if an entity concludes for one hedging relationship that it no longer has a reasonable expectation that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would meet the requirements within the 24-month period, it is likely that the entity would reach the same conclusion for all other hedging relationships in which that particular alternative benchmark rate has been designated. Applying this requirement to the example in paragraph BC351, the 24-month period will begin on 31 March 20X1 for that alternative benchmark rate.</p>	<p>BC352 그러므로 IASB는 문단 102Z1의 요구사항을 ‘개별 이자율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고, 24개월의 기간을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별도로 적용하여,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최초로 지정한 시점에 해당 기간이 기산되도록 결정하였다(다만, IAS 39 문단 108J 참조). IASB는 기업이 하나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이 24개월 이내에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특정 대체 지표 이자율이 이미 지정된 그 밖의 모든 위험회피관계에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351의 사례에 이 요구사항을 적용할 경우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24개월의 기간은 20X1년 3월 31일부터 기산될 것이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BC353 Despite the requirement to apply the 24-month period to each alternative benchmark rate separately, the requirement to assess whether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is separately identifiable continues to separately apply to each hedging relationship. In other words, an entity is required to assess, for each hedge designation, whether the qualifying criteria to apply hedge accounting, including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are met for the remainder of the 24-month period (ie until 31 March 20X3 following from the example in paragraph BC351).</p>	<p>BC353 24개월의 기간을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별도로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이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요구사항은 각 위험회피관계에 별도로 계속 적용해야 한다. 즉, 기업은 각 위험회피지정에 대하여 24개월의 잔여기간에(즉, 문단 BC351의 사례에서 20X3년 3월 31일까지)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p>
<p>BC354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 in IAS 39 to continuously assess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an entity's ability to conclude that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is a separately identifiable component requires assessment over the life of the hedging relationship including during the 24-month period discussed in paragraph BC352. However, the Board decided that to avoid the complexity of detailed judgements during the 24-month period, an entity is required to cease applying the requirement during the 24-month</p>	<p>BC354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계속적으로 평가하는 IAS 39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대체 지표 이자율이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구성요소라고 결론 내리는 기업은 위험회피관계의 존속기간(문단 BC352에서 논의된 24개월의 기간 포함)에 걸쳐 별도의 식별가능성을 평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IASB는 24개월의 기간에 세부적 판단에 따른 복잡성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그 기간 내에 별도의 식별 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24개월의 기간에 해당 요구사항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period if, and only if, the entity reasonably expects that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will not meet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within that period. If an entity reasonably expects that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will not be separately identifiable within 24 months from the date the entity designates it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portion for the first time, the entity is required to cease applying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102Z1 of IAS 39 to that alternative benchmark rate and discontinue applying hedge accounting prospectively from the date of that reassessment to all hedging relationships in which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was designated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portion.</p>	<p>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최초 지정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기업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IAS 39 문단 102Z1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한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그 재평가일로부터 전진적으로 중단한다.</p>
<p>BC355 The Board acknowledged that 24 months is an arbitrary period. However, in the Board's view, a clearly defined end point is necessary because of the temporary nature of the amendment. The exception described in paragraphs 102Z1 - 102Z3 of IAS 39 is a significant relief from one of the</p>	<p>BC355 IASB는 24개월이 임의적으로 정한 기간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개정이 특성상 한시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된 종료시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IAS 39의 문단 102Z1~102Z3에 기술된 예외규정은 엄격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구성하는 요구사항 중 하나에 대한 유의적인 경감규정이므로, 따라</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requirements that is a basis for the robustness of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therefore the relief is intentionally short-lived. The Board considered that a period of 24 months will assist entities in applying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IAS 39 particularly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transition to alternative benchmark rates. Therefore, the Board decided that a period of 24 months from the date an entity first designates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portion, is a reasonable period and would enable entities to implement the reform and comply with any regulatory requirements, while avoiding potential short-term disruption as the market for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develops.</p>	<p>서 이 경감규정은 의도적으로 짧은 기간에 유효하다. IASB는 24개월의 기간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특히) 초기에, IAS 39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기업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처음으로 지정한 날부터 24개월의 기간은 합리적인 기간이고,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시장의 성장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단기적 혼란을 막고, 기업이 개혁을 이행하고 모든 규제 요구사항을 따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p>
<p>BC356 While developing the proposals in the 2020 Exposure Draft, the Board considered proposing alternative periods for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102Z1 of IAS 39, including a period of 12 months or a period longer than 24 months. However, the Board acknowledged the diversity in the approaches to the reform or replacement of interest rate benchmarks and the timing of the expected completion across various jurisdictions. The Board</p>	<p>BC356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을 개발하는 동안 12개월의 기간 또는 24개월보다 긴 기간을 포함해 IAS 39의 문단 102Z1에 대한 대체 기간을 제시할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 또는 대체, 그리고 여러 국가에 걸쳐 예상되는 완료시점에 대한 접근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하였다. IASB는 12개월은 모든 국가에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와 동시에, IASB는 기업이 대체 지표 이</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was concerned that 12 months would not provide sufficient time across all jurisdictions. At the same time, the Board considered that entities may not be able to have a reasonable expectation that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would satisfy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over a period longer than 24 months.</p>	<p>자율이 24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걸쳐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았다.</p>
<p>BC357 The Board emphasised that the amendments apply only for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and not the reliably measurable requirement. Therefore, if the risk portion is not reliably measurable, either when it is designated or thereafter,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would not meet the qualifying criteria to be designated as a risk portion in a hedging relationship. Similarly, if the hedging relationship fails to meet any other qualifying criteria set out in IAS 39 to apply hedge accounting, either at the date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is designated or during the 24-month period, the entity is required to discontinue hedge accounting prospectively from that date. The Board decided that providing relief only for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would achieve the objective described in paragraph BC292.</p>	<p>BC357 IASB는 이 개정이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만 적용되고 신뢰성 있는 측정가능성 요구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위험 부분이 지정된 시점이나 그 후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경우 대체 지표 이자율은 위험 회피관계에서 위험 부분으로 지정하는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기업은 대체 지표 이자율이 지정된 날이나 24개월 동안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기 위해 IAS 39에서 정한 다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날부터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IASB는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경감규정을 제공하면, 문단 BC292에서 기술한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p>
Mandatory application	의무적용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BC358 The Board decided to require application of the Phase 2 amendments. The Board considered that allowing voluntary application of these amendments (ie except for the amendment in paragraph 102V of IAS 39 which is permitted, but not required) could lead to selective application to achieve specific accounting results. The Board also noted that the amendments are, to a large extent, interlinked and need to be applied consistently. Voluntary application, even if only possible by area or type of financial instruments, would reduce comparability of information provid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between entities. The Board also does not expect that mandatory application of these amendments would result in significant additional costs for preparers and other affected parties because these amendments are designed to ease the operational burden on preparers, while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and would not require significantly more effort by preparers in addition to what is already required to implement th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p>	<p>BC358 IASB는 2단계 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개정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도록 허용할 경우(즉, 허용되지만 요구되지 않는 IAS 39 문단 102V의 개정은 제외) 특정 회계처리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 내용이 대체로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비록 자발적 적용이 금융상품의 일부 영역이나 유형에서만 가능할 지라도,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또 IASB는 이 개정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재무제표 작성자의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에 이 개정의 의무적용이 재무제표 작성자와 그 밖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유의적인 추가 원가를 들게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며, 재무제표 작성자에게 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미 요구되는 것 이외에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End of application</p> <p>BC359 The Board did not add specific end of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the Phase 2 amendments because the application of these amendments is associated with the point at which changes to financial instruments or hedging relationships occur as a result of the reform. Therefore, by design, the application of these amendments has a natural end.</p>	<p>적용 종료</p> <p>BC359 IASB는 2단계 개정의 적용이 개혁의 결과로 발생하는 금융상품이나 위험회피관계의 변경 시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2단계 개정의 적용 종료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에 따라 이 개정의 적용은 자연스럽게 종료된다.</p>
<p>BC360 The Board noted that, in a simple scenario, the Phase 2 amendments will be applied only once to each financial instrument or element of a hedging relationship. However, the Board acknowledged that because of differences in the approach to the reform applied in different jurisdictions and differences in timing, implementing the reform could require more than one change to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a financial asset or a financial liability.</p>	<p>BC360 IASB는 간단한 시나리오에서 2단계 개정이 각 금융상품이나 위험회피관계의 요소에 한 번만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국가별로 적용되는 개혁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개혁을 이행하려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준이 여러 번 변경되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p>
<p>BC361 As noted in paragraph 102R of IAS 39, the Board considered that an entity may be required to amend the formal designation of</p>	<p>BC361 IAS 39의 문단 102R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기업이 서로 다른 시기에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위험회피</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its hedging relationships at different times, or to amend the formal designation of a hedging relationship more than once. For example, an entity may first mak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to a derivative designated as a hedging instrument, while only making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to the financial instrument designated as the hedged item later. In applying the amendments, the entity would be required to amend the hedge documentation to amend the description of the hedging instrument. The hedge documenta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 would then have to be amended again to change the description of the hedged item and/or hedged risk as required in paragraph 102P of IAS 39.</p>	<p>관계의 공식적인 지정을 여러 번 변경하여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기업은 먼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에 개혁 요구사항을 변경하고, 그 이후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개혁 요구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 개정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설명을 수정하기 위해 위험회피문서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후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회피문서는 IAS 39의 문단 102P에서 요구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또는) 회피대상위험에 대한 설명을 변경하기 위해 다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p>
<p>BC362 The amendment for hedges of risk portions in paragraph 102Z1 of IAS 39 applies only at the date an entity first designates a particular alternative benchmark rate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portion for the first time if an entity's ability to conclude that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is separately identifiable is directly affected by the reform. Thus, an entity could not apply this amendment in</p>	<p>BC362 IAS 39 문단 102Z1의 일부 위험 부분의 위험회피에 대한 개정은, 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에 따라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면, 특정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최초 지정한 날에만 적용한다. 그러므로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별도로 식별되는 위험 부분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는 그 밖의 상황에서는 이 개정을 적용할 수 없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other circumstances in which the entity is not able to conclude that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is a separately identifiable risk portion.</p>	
<p>BC363 The Board developed the amendment in paragraph 102V of IAS 39 to address the potential effect in hedge accounting at the date the Phase 1 exception from the retrospective assessment in paragraph 102G of IAS 39 ceases to apply. Therefore, the amendment in paragraph 102V of IAS 39 only applies at that date ie the date that the exception from the retrospective assessment in paragraph 102G of IAS 39 ceases to apply.</p>	<p>BC363 IASB는 IAS 39의 문단 102G의 소급적 평가에서 1단계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하는 날에 위험회피회계의 잠재적인 영향을 다루기 위하여 IAS 39의 문단 102V를 개정하였다. 따라서 IAS 39의 문단 102V는 IAS 39 문단 102G의 소급적 평가 예외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날에만 적용된다.</p>
<p>Effective date and transition</p>	<p>시행일과 경과규정</p>
<p>BC364 Acknowledging the urgency of the amendments, the Board decided that entities must apply the Phase 2 amendments for annual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1, with earlier application permitted.</p>	<p>BC364 IASB는 개정의 긴급성을 인정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2단계 개정을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p>
<p>BC365 The Board decided that the amendments apply retrospectively in accordance with IAS 8 (except as discussed in paragraphs BC367 - BC370) because prospective application would have resulted in entities applying the</p>	<p>BC365 IASB는 문단 BC367~BC370에서 논의된 내용은 제외하고, 이 개정 내용을 IAS 8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전진 적용하게 되면,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이 개정의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이 개정</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amendments only if the transition to alternative benchmark rates occurred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amendments.	내용을 적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BC366 The Board acknowledged that there could be situations in which an entity amended a hedging relationship as specified in paragraph 102P of IAS 39 in the period before the entity first applied the Phase 2 amendments; and in the absence of the Phase 2 amendments, IAS 39 would require the entity to discontinue hedge accounting. The Board noted that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in paragraph 102P of IAS 39 (see paragraphs BC300 - BC301), apply equally in such situations. The Board therefore considered that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 solely because of amendments an entity made in hedge documentation to reflect appropriately the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regardless of when those changes occurred, would not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BC366 IASB는 기업이 2단계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기 이전 기간에 IAS 39의 문단 102P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하였고, 2단계 개정이 없는 경우에는 IAS 39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IASB는 IAS 39 문단 102P의 개정 사유(문단 BC300~BC301 참조)가 그러한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언제 변경되었든 간에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기업이 위험회피문서를 수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BC367 The Board acknowledged that the reinstatement of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s is inconsistent with the Board's	BC367 IASB는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회복이 IAS 39의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IASB의 이전 결정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는 위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previous decisions about hedge accounting in IAS 39. This is because hedge accounting is applied prospectively and applying it retrospectively to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s usually requires the use of hindsight. However, the Board considered that in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reform, an entity would typically be able to reinstate a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 without the use of hindsight. The Board noted that this reinstatement of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s would apply to a very targeted population for a short period – that is, for hedging relationships which would not have been discontinued if the Phase 2 amendments relating to hedge accounting had been applied at the point of discontinuation. The Board therefore proposed in the 2020 Exposure Draft that an entity would be required to reinstate hedging relationships that were discontinued solely due to changes required by the reform before an entity first applies the proposed amendments.</p>	<p>험회피회계가 전진적으로 적용되고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후판단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개혁의 특정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중단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IASB는 이러한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회복이 단기간 동안 특정한 경우, 즉 위험회피회계 관련 2단계 개정이 중단된 시점에 적용되었다면 중단되지 않았을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기업이 제안된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기 전에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사항만으로 중단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p>
BC368 Respondents to the 2020 Exposure Draft generally supported and	BC368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으로 경과규정 제안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welcomed the transition proposals but asked the Board to reconsider a specific aspect of the proposal that would require entities to reinstate particular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s. Specifically, these respondents highlighted circumstances in which reinstating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s would be challenging or have limited benefit – for example, when:</p> <p>(a) the hedging instruments or the hedged items in the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s have been subsequently designated into new hedging relationships;</p> <p>(b) the hedging instruments in the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s no longer exist at the date of initial application of the amendments – eg they have been terminated or sold; or</p> <p>(c) the hedging instruments in the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s are now being managed within a trading mandate with other trading positions</p>	<p>을 지지하고 환영하였으나, 기업이 중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의 특정 측면을 재고할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특히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복원이 어렵거나 효익이 제한적일 수 있는 다음의 상황을 강조하였다.</p> <p>(1)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후속적으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되었다.</p> <p>(2)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은 개정의 최초 적용일에도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예: 종료되거나 매각된 경우).</p> <p>(3)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은 현재 다른 거래 포지션과 함께 거래의무 대상(trading mandate)으로 관리되며, 거래상품으로 보고된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and reported as trading instruments.	
BC369 The Board noted that the transition requirements as proposed in the 2020 Exposure Draft to apply the amendments retrospectively in accordance with IAS 8—including the requirement to reinstate particular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s—would be subject to impracticability applying IAS 8. However, the Board agreed with respondents’ concerns that there could be other circumstances in which it would not be impracticable to reinstate the hedging relationship, but such reinstatement would be challenging or would have limited benefit. For example, if the hedging instrument or hedged item has been designated in a new hedging relationship, it appears inappropriate to require entities to reinstate the ‘old’ (original) hedging relationship and discontinue or unwind the ‘new’ (valid) hedging relationship. Consequently, the Board added paragraph 108I(b) to IAS 39 to address these concerns.	BC369 IASB는 개정 내용을 IAS 8에 따라 소급적용하도록 제안한 2020년 공개초안의 경과규정(중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도록 한 요구사항 포함)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되는 IAS 8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그 밖의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고 효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제출자들의 우려에 동의하였다. 예를 들어,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되었다면 ‘구(원래의)’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고 ‘신(유효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거나 해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우려를 다루기 위해 IAS 39에 문단 108I(2)를 추가하였다.
BC370 In addition, the Board concluded that if an entity reinstates a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	BC370 또한 IASB는 IAS 39의 문단 102Z1~102Z2를 적용하기 위해 IAS 39의 문단 108I(2)를 적용하여 중단된 위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p>applying paragraph 108I(b) of IAS 39, for the purpose of applying paragraphs 102Z1 - 102Z2 of IAS 39, the 24-month period for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designated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portion begins from the date of initial application of the Phase 2 amendments (ie it does not begin from the date the entity designated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as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portion for the first time in the original hedging relationship).</p>	<p>험회피관계를 회복하는 경우,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24개월 기간은 2단계 개정의 최초 적용일부터 기산한다고 결론 내렸다(즉, 원래의 위험회피관계에서 최초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지정한 날부터 기산하지 않는다).</p>
<p>BC371 Consistent with the transition requirements for Phase 1, the Board decided that an entity is not required to restate comparative information. However, an entity may choose to restate prior periods if, and only if, it is possible without the use of hindsight.</p>	<p>BC371 IASB는 1단계의 경과규정과 일관되게 비교 정보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p>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p>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7 <i>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i></p> <p><i>This Basis for Conclusions accompanies, but is not part of, IFRS 7.</i></p> <div> <p>Paragraphs BC35DDD - BC35OOO are added. A heading is added before paragraph BC35DDD. For ease of reading new text is not underlined.</p> </div> <p>...</p> <p>Other Disclosures - Additional disclosures related to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 <p>BC35DDD In April 2020 the Board published the Exposure Draft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 (2020 Exposure Draft), which proposed amendments to specific requirements in IFRS 9, IAS 39, IFRS 7, IFRS 4 and IFRS 16 to address issues that might affect financial reporting during</p>	<p>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결론도출근거의 개정</p> <p>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p> <div> <p>문단 BC35DDD~BC35OOO를 추가하였고, 문단 BC35DDD 앞에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들 문단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p> </div> <p>...</p> <p>그 밖의 공시 - 이자율지표 개혁에 관한 추가 공시</p> <p>BC35DDD 2020년 4월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 기간 동안에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2020년 공개초</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p>the reform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including the replacement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The ter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refers to the market-wide reform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as described in paragraph 6.8.2 of IFRS 9 (the reform). The Board issued the final amendments to IFRS 9, IAS 39, IFRS 7, IFRS 4 and IFRS 16 in August 2020 (Phase 2 amendments). Paragraphs BC5.287 - BC5.320, BC6.604 - BC6.660 and BC7.86 - BC7.99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and paragraphs BC289 - BC371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discuss the background to these amendments.</p>	<p>안)를 발표하였다.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IFRS 9의 문단 6.8.2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개혁’)을 말한다. IASB는 2020년 8월에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최종 개정을 공표하였다(2단계 개정). IFRS 9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5.287~BC5.320, BC6.604~BC6.660, BC7.86~BC7.99와 IAS 39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89~BC371에서는 이러한 개정의 배경을 논의한다.</p>
<p>BC35EEE In deciding whether disclosures should accompany the Phase 2 amendments, the Board acknowledged that it was important to balance the benefits of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p>	<p>BC35EEE 공시가 2단계 개정에 수반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때, IASB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익과 재무제표 작성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원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IASB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원가가 효익을</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p>with the costs for preparers to provide the information. To achieve this balance, the Board sought to develop disclosure requirements that w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about the effects of the reform on an entity’s financial instruments and risk management strategy without requiring disclosures for which the cost of providing that information would outweigh the benefits of the amendments. Consequently, the Board decided not to require <u>quantitative</u> disclosures of what the effects of the reform would have been in the absence of the Phase 2 amendments because the cost of providing such information could outweigh the benefits provided by the amendments. For the same reason, the Board decided not to require entities to</p>	<p>초과하는 공시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개혁이 기업의 금융상품과 위험관리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IASB는 2단계 개정이 없을 때를 가정한 개혁의 영향에 대한 양적공시를 요구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원가가 효익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같은 이유로 IASB는 IAS 8의 문단 28(6)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p>BC35FFF In the 2020 Exposure Draft the Board proposed limited additional disclosure requirements by setting out the proposed disclosure objectives and the disclosure requirements to meet those objectives. Most respondents to the 2020 Exposure Draft supported the proposed disclosure objectives and broadly agreed with the proposed disclosures. However, respondents suggested that the Board should simplify aspects of the disclosure required by paragraph 24J(b) of IFRS 7. Furthermore, respondents asked the Board to reconsider whether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how an entity applied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5.4.6 - 5.4.8 of IFRS 9 would provide</p>	<p>BC35FFF 2020년 공개초안에서 IASB는 제안된 공시 목적과 그러한 목적에 맞는 공시 요구사항을 정함으로써 제한된 추가 공시요구사항을 제안하였다.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공시 목적을 지지하였고 제안된 공시에 대체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IFRS 7 문단 24J(2)에서 요구하는 공시 사항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기업이 IFRS 9 문단 5.4.6~5.4.8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다시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p>BC35GGG Paragraph 24J(b) of IFRS 7 in the 2020 Exposure Draft proposed requiring that entities disclose the carrying amount of non-derivative financial assets, non-derivative financial liabilities and the nominal amount of derivatives, that continue to reference interest rate benchmarks subject to the reform. Respondents to the 2020 Exposure Draft agreed that providing quantitative information about the magnitude of remaining financial instruments that still need to transition to alternative benchmark rates would be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entity’s progress towards comple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orm. However, respondents said that the requirement to provide this quantitative information based on the carrying amounts of the relevant non-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may require an entity to make costly enhancements to its</p>	<p>BC35GGG 2020년 공개초안의 IFRS 7 문단 24J(2)에서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자율지표를 계속 참조하는 비파생금융자산, 비파생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파생상품의 명목금액을 공시하도록 제안하였다.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해야 하는 나머지 금융상품의 규모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개혁 이행 진척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의견제출자들은 관련 비파생금융상품의 장부금액에 기초하여 양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보고시스템 개선에 비용이 들게 하고, 추가적인 통제와 조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제한된 기간에 재무제표 작성자, 특히 2단계 개정을 조기 적용할 계획인 재무제표 작성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대체 기준에 따른 양적 정보 공시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예를 들면, 관련 비파생금융상품의 장부금액에 대한 정보를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없다면, 기업은 개혁 이행의 일환으로 경영진에</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p>reporting systems and implement additional controls and reconciliations. In the light of a limited time frame, this would be challenging for preparers, in particular those preparers that plan to early apply the Phase 2 amendments. These respondents asked the Board to permit entities to disclose quantitative information on alternative bases – for example, if information about the carrying amounts of relevant non-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is not available without undue cost or effort, an entity would be able to disclose the quantitative information on the basis that is reported internally to management as part of implementing the reform.</p>	<p>게 내부적으로 보고된 양적 정보에 기초하여 공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p>
<p>BC35HHH During outreach on the proposed disclosure requirements,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old the Board that, while the quantitative information proposed in the 2020 Exposure Draft is a useful measure of an entity’s progress in implementing</p>	<p>BC35HHH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2020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양적 정보는 기업의 개혁 이행 진척도에 대한 유용한 측정치이지만, 비파생금융자산과 비파생금융부채에 대한 양적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의 관련 항목에 이미 표시된 금액의 일</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p>the reform, they acknowledge the quantitative information for non-derivative financial assets and non-derivative financial liabilities is only a subset of the amounts already presented in the relevant line items of the entity’s financial statements and therefore such quantitative information does not reconcile. These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said that quantitative information would still be useful even if an entity selected another representative basis on which to disclose it.</p>	<p>부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양적 정보는 (이미 표시된 그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기업이 양적 정보를 공시할 다른 기준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양적 정보는 여전히 유용할 것이라고 하였다.</p>
<p>BC35III The Board considered that the underlying objective of the disclosure required by paragraph 24J(b) of IFRS 7 is to enable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o understand the entity’s progress towards completing the transition to alternative benchmark rates. Quantitative information about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 that—as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reference interest rate benchmarks that are subject to the reform would therefore assist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o assess an entity’s</p>	<p>BC35III IASB는 IFRS 7 문단 24J(2)에서 요구하는 공시의 기본적인 목적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 진척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고기간말 현재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자율지표를 참조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양적 정보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개혁 이행의 진척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IASB는 이러한 공시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자율지표를 계속 참조하는 비파생금융자산, 비파생금융</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progress towards implementing the reform. The Board also considered that for this disclosure to be useful, the quantitative information about non-derivative financial assets, non-derivative financial liabilities and derivatives that continue to reference interest rate benchmarks subject to the reform should be provided in the context of the total non-derivative financial assets, total non-derivative financial liabilities and total derivatives as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부채, 파생상품에 대한 양적 정보는 보고기간말 현재 비파생금융자산, 비파생금융부채, 파생상품의 총액의 맥락에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BC35JJJ The Board agreed that an entity could still meet the underlying objective of this disclosure requirement by providing the relevant quantitative information in different ways. Furthermore, the Board considered that permitting entities to select a basis on which to provide relevant quantitative information to achieve the disclosure objective would allow entities to leverage information that is already available and therefore would reduce the costs of providing the information.	BC35JJJ IASB는 기업이 관련 양적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 제공하여도 여전히 공시의 기본적인 목적을 충족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공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적적합한 양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이미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 정보 제공 원가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았다.
BC35KKK Accordingly, the Board amended paragraph 24J(b) of IFRS7 to require an entity to disclose quantitative information that enables users of	BC35KKK 따라서 IASB는 보고기간말 현재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지 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정도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게 양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p>financial statements to understand the extent of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 that, as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have yet to transition to alternative benchmark rates. This information would be disaggregated by significant interest rate benchmark. An entity would select the basis for disclosing the quantitative information and explain which basis was applied. For example, the quantitative information may be based on:</p> <p>(a) the carrying amounts of non-derivative financial assets, the carrying amount of non-derivative financial liabilities and the nominal amount of derivatives;</p> <p>(b) the amounts related to recognised financial instruments (for example, the contractual par amount of non-derivative financial assets and non-derivative</p>	<p>록 IFRS 7 문단 24J(2)를 개정하였다. 이 정보는 유의적인 이자율지표별로 세분화될 것이다. 기업은 양적 정보를 공시하는 기준을 선택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설명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양적 정보는 다음을 기초로 할 수 있다.</p> <p>(1) 비파생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비파생금융부채의 장부금액, 파생상품의 명목금액</p> <p>(2) 인식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금액(예: 비파생금융자산과 비파생금융부채의 계약상 액면금액, 파생상품의 명목금액)</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p>financial liabilities, and nominal amounts of derivatives); or</p> <p>(c) the amounts provided internally to key management personnel (as defined in IAS 24) of the entity about these financial instruments, for example, the entity’s board of directors or chief executive officer.</p>	<p>(3)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해 기업의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 와 같은 주요 경영진(IAS 24에서 정의함)에게 내부적으로 제공한 금액</p>
<p>BC35LLL Furthermore, the Board clarified that the disclosure in paragraph 24J(b) of IFRS 7 does not require disclosure of financial instruments that are referenced to an interest rate benchmark subject to the reform at the reporting date, but which will expire prior to transitioning to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This is because, to meet the objective of this disclosure requirement (see paragraph BC35III), an entity is required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financial instruments that would be required to transition to alternative benchmark rates (ie before their maturity).</p>	<p>BC35LLL 또한, IASB는 보고일에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자율지표를 참조하지만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기 전에 소멸할 금융상품에 대해 IFRS 7 문단 24J(2)의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이 공시 요구사항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문단 BC35III 참조), 기업은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해야 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즉, 만기 이전에)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p>BC35MMM The 2020 Exposure Draft proposed requiring a description of how an entity determined the base rate and relevant adjustments to that rate, including any significant judgements the entity made to assess whether the conditions for applying the practical expedient in paragraph 5.4.7 of IFRS 9 were met. Respondents to the 2020 Exposure Draft said that in the light of the regulatory nature of the reform, entities might be unable to provide this information in a way that would be sufficiently detailed and entity-specific for it to be useful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Respondents often described the potential challenges in disclosing this information in a meaningful way by reference to multinational entities that are exposed to different alternative benchmark rates. These respondents said that if the proposed disclosure was intended to confirm that the changes were</p>	<p>BC35MMM 2020년 공개초안에서는 IFRS 9 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내린 유의적인 판단을 포함하여 기준 금리와 그 금리의 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제안하였다.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개혁의 규제적 특성에 비추어 기업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하도록 충분히 상세하고 기업 특유의 방식으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의미있는 방식으로 공시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종종 서로 다른 대체 지표 이자율에 노출되어 있는 다국적기업을 참조하여 기술하였다. 이들은 제안된 공시가, 그러한 변경이 경제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의도라면 그러한 공시는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기업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했다는 사실은 기업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평가했다는 것을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자동적으로 알려준다. 또한 이러한 조건을 적용하기 위하여 유의적인 판</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p>economically equivalent, then the disclosure was unnecessary. The fact that an entity has applied the practical expedient would automatically inform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hat the entity has assessed that the conditions for applying the practical expedient were met. These respondents also said that, if applying those conditions required significant judgement, paragraph 122 of IAS 1 would require an entity to disclose those judgements.</p>	<p>단이 필요하다면, IAS 1 문단 122에 따라 기업은 그러한 판단을 공시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p>
<p>BC35NNN During outreach on the proposed disclosure requirements in the 2020 Exposure Draft,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expressed mixed views on this proposed disclosure requirement. While some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said the proposed disclosure could be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extent of changes to financial instruments to which the practical expedient is being applied, others were sceptical about whether entities would be able to</p>	<p>BC35NNN 2020년 공개초안의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나타내었다. 일부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제안된 공시가 실무적 간편법이 적용된 금융상품의 변동 정도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말했지만, 다른 이용자들은 기업이 의미있는 정보를 위해 충분히 상세하게 공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특히, 그들은 그러한 공시가 정보가 유용하지 않을 정도의 통합 수준에서 요약될 위험을 우려하였다. 또한 기업이 IFRS 9 문단 5.4.7의 실무적 간</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p>disclose information in sufficient detail for it to be meaningful. In particular, they highlighted the risk that the disclosures would be summarised at such an aggregated level that the information would not be useful. They also said that they would regard a requirement for an entity to explain how it has determined that it met the conditions to apply the practical expedient in paragraph 5.4.7 of IFRS 9 to be an audit or regulatory enforcement matter, rather than a matter for disclosure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he Board therefore decided to omit this proposed disclosure requirement from the final amendments to IFRS 7.</p>	<p>편법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어떻게 충족하였는지 설명하는 요구사항을 재무제표에 공시하는 문제가 아니라 감사나 규제 집행에 해당하는 문제로 간주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IASB 는 이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을 IFRS 7의 최종 개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p>
<p>BC35000 Some respondents to the 2020 Exposure Draft asked the Board to clarify whether paragraphs 24I and 24J of IFRS 7 are required for comparative periods, ie periods before the date of initial application of these amendments, even if the</p>	<p>BC35000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비교표시되는 기간, 즉 이 개정의 최초 적용일보다 앞선 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IFRS 7 문단 24I와 24J를 적용해야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IASB 는 IFRS 9, IAS 39, IFRS 4,</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p>entity does not restate prior periods. The Board noted that the transition requirements for the Phase 2 amendments to IFRS 9, IAS 39, IFRS 4 and IFRS 16 specify that an entity is not required (but is permitted if, and only if, it is possible without the use of hindsight) to restate prior periods to reflect the application of these amendments. Therefore, if the entity does not restate prior periods, paragraphs 24I and 24J of IFRS 7 need not be applied to prior reporting periods.</p>	<p>IFRS 16의 2단계 개정의 경과규정에 따라 기업이 이 개정의 적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그러나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기업이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다면 IFRS 7 문단 24I와 24J를 과거 보고기간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p>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4 Insurance Contrac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의 개정
<p>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4 Insurance Contracts</p> <p><i>This Basis for Conclusions accompanies, but is not part of, IFRS 4.</i></p> <p>Paragraphs BC277D - BC277G are added. A subheading is added before paragraph BC277D. For ease of reading new text is not underlined.</p>	<p>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결론도출근거의 개정</p> <p>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p> <p>문단 BC277D~BC277G를 추가하였다. 문단 BC277D 앞의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편하도록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p>
<p>...</p> <p><i>Amendments for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 (August 2020)</i></p> <p>BC277D In April 2020 the Board published the Exposure Draft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 (2020 Exposure Draft), which proposed amendments to specific requirements in IFRS 9, IAS 39, IFRS 7, IFRS 4 and IFRS 16 to address issues that might affect financial reporting during the reform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including the replacement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The ter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refers to the market-wide reform</p>	<p>...</p> <p>'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개정 (2020년 8월)</p> <p>BC277D 2020년 4월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 기간 동안에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2020년 공개초안)'를 발표하였다.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IAS 39 문단 102B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개혁')을 말한다. IASB는 2020년 8월에 IFRS 9, IAS</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4 Insurance Contrac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의 개정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as described in paragraph 102B of IAS 39 (the reform). The Board issued the final amendments to IFRS 9, IAS 39, IFRS 7, IFRS 4 and IFRS 16 in August 2020 (Phase 2 amendments). Paragraphs BC5.287 - BC5.320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discuss the background to these amendment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최종 개정을 공표하였다(2단계 개정). IFRS 9 결론도출근거 문단 BC5.287~BC5.320에서는 이러한 개정의 배경을 논의한다.
BC277E The Board noted that paragraph 20A of IFRS 4 permits an insurer that meets specific criteria to apply IAS 39 rather than IFRS 9 for annual periods beginning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IFRS 17 (temporary exemption from applying IFRS 9).	BC277E IASB는 IFRS 4 문단 20A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자에 대해, IFRS 17의 시행일 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는 IFRS 9가 아닌 IAS 39를 적용하도록 허용(IFRS 9 적용에 대한 한시적 면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277F When the Board decided to provide a temporary exemption from applying IFRS 9 (see paragraph 20A of IFRS 4), the Board noted that, because of the temporary nature of the exemption and its relatively narrow application, a version of IAS 39 (except for its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would not be maintained and updated for any subsequent amendments to other IFRS Standards. This would mean that an insurer applying the	BC277F IASB가 IFRS 9 적용에 대한 한시적 면제(IFRS 4 문단 20A 참조)를 제 공하기로 결정했을 때, 면제규정이 특성상 한시적이고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IASB는 IAS 39(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제외)가 다른 IFRS의 후속 개정으로 변경되거나 갱신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보험자는 개혁으로 인해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변경되는 것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IAS 39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러한 보험자는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4 Insurance Contrac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의 개정
temporary exemption would be required to apply the requirements in IAS 39 to account for changes in the basis for determining contractual cash flows as a result of the reform; ie such an insurer would not be able to apply the amendments set out in paragraphs 5.4.5 - 5.4.9 of IFRS 9.	IFRS 9 문단 5.4.5~5.4.9에 기술된 개정 내용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BC277G The Board noted that the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 of such an insurer could be affected by the reform in the same way as those for other entities. The Board therefore decided the Phase 2 amendments in paragraphs 5.4.5 - 5.4.9 of IFRS 9 should apply to insurers that apply the IAS 39 requirements. The Board noted that amending the superseded paragraphs in IAS 39 would be inconsistent with its previous decisions that IAS 39 (except for its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would not be maintained. However, the Board decided to amend IFRS 4 to require insurers applying the temporary exemption from IFRS 9 to apply requirements that are comparable to paragraphs 5.4.5 -	BC277G IASB는 그러한 보험자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와 같은 방식으로 개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IFRS 9 문단 5.4.5~5.4.9의 2단계(phase 2) 개정 내용이 IAS 3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보험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IAS 39의 대체된 문단을 개정하는 것은 IAS 39(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제외)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전의 결정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적용하는 보험자가, 개혁으로 인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하여 2단계(phase 2) 개정의 문단 5.4.5~5.4.9와 대응되는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IFRS 4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개혁이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4 Insurance Contrac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의 개정
<p>5.4.9 of the Phase 2 amendments to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 for which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tractual cash flows of those financial assets or financial liabilities change as a result of the reform. The Board noted that this decision was due to the significance of the potential effect of the reform on insurers and reaffirmed its overall position that it will not update the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requirements of IAS 39.</p>	<p>보험자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보았고, IAS 39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갱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반적인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p>

K-IFRS 제1116호 ‘리스’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16 Leas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p>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16 Leases</p> <p><i>This Basis for Conclusions accompanies, but is not part of, IFRS 16.</i></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Paragraphs BC267A–BC267J are added. A heading is added before paragraph BC267A. For ease of reading new text is not underlined.</p> </div> <p>Temporary exception arising fro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 <hr style="border: 1px solid black; margin: 10px 0;"/> <p>BC267A In April 2020 the Board published the Exposure Draft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 (2020 Exposure Draft), which proposed amendments to specific requirements in IFRS 9, IAS 39, IFRS 7, IFRS 4 and IFRS 16 to address issues that might affect financial reporting during the reform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including the replacement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The ter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refers to the market-wide</p>	<p>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결론도출근거의 개정</p> <p>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문단 BC267A~BC267J를 추가하였고, 문단 BC267A 앞에 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p> </div> <p>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한시적 예외규정</p> <p>BC267A 2020년 4월 IASB는 이자율지표의 개혁(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 기간 동안에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2020년 공개초안)’를 발표하였다.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IFRS 9의 문단 6.8.2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개혁’)을 말한다. IASB는</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16 Leas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p>reform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as described in paragraph 6.8.2 of IFRS 9 (the reform). The Board issued the final amendments to IFRS 9, IAS 39, IFRS 7, IFRS 4 and IFRS 16 in August 2020 (Phase 2 amendments). Paragraphs BC5.287 - BC5.293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and paragraphs BC289 - BC295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discuss the background to these amendments.</p>	<p>2020년 8월에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최종 개정을 공표하였다(2단계 개정). IFRS 9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5.287~BC5.293과 IAS 39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89~BC295는 이러한 개정의 배경을 논의한다.</p>
<p>BC267B In developing the Phase 2 amendments, the Board also considered the potential effects of the reform o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an entity applying the requirements of IFRS Standards, other than IFRS 9 and IAS 39. The Board specifically considered the potential effects arising in the context of IFRS 16.</p>	<p>BC267B 2단계 개정을 개발하면서, IASB는 IFRS 9와 IAS 39 이외에 IFRS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개혁의 잠재적 영향도 고려하였다. IASB는 IFRS 16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였다.</p>
<p>BC267C Some leases include lease payments that are referenced to an interest rate benchmark that is subject to the reform as described in paragraph 6.8.2 of IFRS 9. IFRS 16 requires a lessee to include variable lease payments referenced to an interest rate benchmark in the measurement of the lease liability.</p>	<p>BC267C 일부 리스에서 리스료는 IFRS 9 문단 6.8.2에 기술된 개혁의 대상인 이자율지표를 참조한다. IFRS 16에 따르면,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 측정치에 이자율지표를 참조하는 변동리스료를 포함하여야 한다.</p>
<p>BC267D Applying IFRS 16, modifying a lease contract to change the</p>	<p>BC267D IFRS 16을 적용하는 경우, 변동리스료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리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16 Leas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p>basis for determining the variable lease payments meets the definition of a lease modification because a change in the calculation of the lease payments would change the original terms and conditions determining the consideration for the lease.</p>	<p>계약의 변경은 리스변경의 정의를 충족한다. 리스료 계산의 변경은 리스대가를 산정하는 변경 전 리스 조건을 변경시킬 것이기 때문이다.</p>
<p>BC267E IFRS 16 requires that an entity accounts for a lease modification by remeasuring the lease liability by discounting the revised lease payments using a revised discount rate. That revised discount rate would be determined as the interest rate implicit in the lease for the remainder of the lease term, if that rate can be readily determined, or the lessee's incremental borrowing rate at the effective date of the modification, if the interest rate implicit in the lease cannot be readily determined.</p>	<p>BC267E IFRS 16은 수정 할인율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하여 리스변경을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한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남은 리스기간의 내재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하지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한다.</p>
<p>BC267F However, in the Board's view, reassessing the lessee's entire incremental borrowing rate when the modification is limited to what is required by the reform (ie when the conditions in paragraph 105 of IFRS 16 are met) would not reflec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modified lease. Such a requirement might also impose additional cost on preparers, particularly when leases</p>	<p>BC267F 그러나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사항에 한정(IFRS 16 문단 105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되는 리스변경의 경우, 리스이용자의 전체 증분차입이자율을 재평가 하는 것은 변경된 리스의 경제적 효과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자의 원가가 추가될 수 있는데, 특히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자율지표를 참조하는 리스가 서로 다른 시기에</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16 Leas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p>that are referenced to a benchmark rate that is subject to the reform are expected to be amended at different times. This is because preparers would have to determine a new incremental borrowing rate at the effective date of each such lease modification.</p>	<p>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각각의 리스변경 유효일에 새로운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p>
<p>BC267G For the reasons set out in paragraph BC5.306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to IFRS 9, the Board provided a practical expedient to account for a lease modification required by the reform applying paragraph 42 of IFRS 16. This practical expedient requires remeasurement of the lease liability using a discount rate that reflects the change to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variable lease payments as required by the reform. This practical expedient would apply to all lease modifications that change the basis for determining future lease payments that are required as a result of the reform (see paragraphs 5.4.6 and 5.4.8 of IFRS 9). For this purpose, consistent with the amendments to IFRS 9, a lease modification required by the reform is a lease modification that satisfies two conditions—the modification is necessary as a direct consequence of the reform and the new basis for</p>	<p>BC267G IASB는 IFRS 9 결론도출근거 문단 BC5.306에 제시된 이유로,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을 IFRS 16 문단 42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에 따르면, 개혁에서 요구된 변동리스료를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은 개혁의 결과로 미래 리스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변경하는 모든 리스변경에 적용될 것이다(IFRS 9 문단 5.4.6과 5.4.8 참조). 이 경우, IFRS 9의 개정과 일관되게,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은 두 가지 조건[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변경이 필요하고, 리스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해야 함]을 충족해야 한다.</p>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16 Leas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determining the lease payments is economically equivalent to the previous basis (ie the basis immediately preceding the modification).	
BC267H The practical expedient provided for lease modifications applies only to the lease modifications required by the reform. If lease modifications in addition to those required by the reform are made, an entity is required to apply the requirements in IFRS 16 to account for all modifications made at the same time, including those required by the reform.	BC267H 리스변경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은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에만 적용된다.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에 추가하여 리스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시에 이루어진 모든 리스변경(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 포함)의 회계처리에 IFRS 16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BC267I In contrast to the amendments for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 in IFRS 9 (see paragraph 5.4.9 of IFRS 9), the Board decided not to specify the order of accounting for lease modifications required by the reform and other lease modifications. This is because the accounting outcome would not differ regardless of the order in which an entity accounts for lease modifications required by the reform and other lease modifications.	BC267I IFRS 9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개정 내용(IFRS 9 문단 5.4.9 참조)과는 달리,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과 그 밖의 리스변경을 회계처리하는 순서를 규정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과 그 밖의 리스변경을 회계처리하는 순서에 따라 회계처리 결과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BC267J The Board also considered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a lessor, lease payments included in the measurement of the net investment in a finance lease may include variable lease payments that are referenced to an interest rate benchmark. The	BC267J 또한 IASB는 리스제공자 관점에서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에 이자율지표를 참조하는 변동리스료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IASB는 리스제공자의 관점에서 리스계약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을 개정하지 않

영문	국문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16 Leas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p>Board decided not to amend the requirements for accounting for modifications to lease contracts from the lessor's perspective. The Board did not make such amendments because, for finance leases, a lessor is required to apply the requirements in IFRS 9 to a lease modification, so the amendments in paragraphs 5.4.5 - 5.4.9 of IFRS 9 would apply when those modifications are required by the reform. For operating leases, the Board decided that applying the requirements in IFRS 16 for lessors will provide useful information about the modification in terms and conditions required by the reform in the light of the mechanics of the operating lease accounting model.</p>	<p>기로 결정하였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제공자는 리스변경에서 IFRS 9를 적용하여야 하고, IFRS 9의 문단 5.4.5~5.4.9의 개정 내용은 개혁에서 요구된 이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을 하지 않았다. 운용리스의 경우, IASB는 리스제공자에 대한 IFRS 16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운용리스 회계모형의 적용방식에 따라 개혁에서 요구된 조건의 변경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p>

관 련 법 규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처리기준)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③ (생 략)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⑦ (생 략)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2.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⑦ (생 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95